

성재덕 신부 종합 강론집

발간사

하느님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당신 구원 사업의 도구로 쓰시고자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 행로에서 풍성한 결실을 내고 계십니다. 성 신부님의 삶과 말씀은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책은 성 신부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삶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 신부님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본당 사목에서 늘 가난한 이들 곁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복음 연구를 통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성 신부님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 중에서 가장 소외받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하느님 사랑을 중심으로 설파한 신부님 강론은 서술이 쉽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은 그의 매력적인 단순성과 믿음의 삶과 우리를 감동시키는 순진무구한 하느님 사랑에 대해 꾸밈없이 드러내 줍니다. 대림절 강론에서 소비녀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성 신부님의 단순하고도 확고한 비유를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테이트 신청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살아 계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한 인물이십니다.”

성 신부님의 강론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전하거나 또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을 상기시키는 살아 있는 강론입니다. 이 단순하고 순진무구한 말씀은 우리를 신부님의 삶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을 통찰하도록 이끕니다

매우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을 다해 선교 활동을 하셨고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당신 삶의 체험이 깃들인 이야기이므로 신부님의 강론은 우리 마음에 감화를 줍니다.

신부님의 일상에 대한 신앙 어린 시선은 신앙이 고갈된 오늘의 우리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주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수도회의 카리스마적 생활을 통해 시대에 구현하려는 이때, 신부님의 강론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고 삶에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원장 이영자 프리스카 수녀

책 소개

이 책은 1999년 9월에 성 신부님의 사제관을 정리하다 발견된 불어본 자료 중의 일부이다. 이것은 그 불어본들 가운데에서 일부 강론집만을 수집, 번역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는 성 신부님이 홍산 본당에 계실 때(1967-1969년)와 1969년 12월 우리 수도회 지도 신부로 오신 후의 주일 강론이 수록되어 있다. 신부님은 강론하실 때마다 연도를 기록 하였고 모든 강론을 보관하셨으므로, 전례시기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제목의 강론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수록된 강론은 제목이 같은 여러 개의 강론 가운데에서 몇 개만 선택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전례시기에 따른 주일 강론으로서 성인, 성녀 대축일과 혼배미사, 그리고 선종한 우리 수녀님들의 장례미사 강론 등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우리 수도회의 연례행사인 성가정 모임(매년 1월초) 강론과 지원자들을 위한 말씀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성 신부님의 종합 강론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앞서 출판된 2권의 강론집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나 새로운 말씀이 많고 평신도 대상의 말씀도 있어, 성 신부님의 보편적이고도 전반적인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성령 강림 시기(연중시기)의 강론과 성인, 성녀 대축일 강론,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의 장례미사 강론, 혼배미사 강론 등으로 짜여져 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는 연중시기로 표기되지 않고 성령 강림 제1주, 2주로 표기되었다.

특히 이 번역집은 성 신부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2000년도 연피정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초고 번역은 김 미리암 수녀가 하였고, 1993년에 출판한 『성재덕 신부 서한집』을 번역했던 유소연(비안네)님이 감수 및 교정을 맡았다.

앞으로 이 책은 우리 회원들의 일상의 영성은 물론이고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차 례

발간사	3
책 소개	5
대림 제1주일	13
대림 제1주일	15
대림 제1주일(1967년)	18
대림 제1주일(1970년)	21
대림 제1주일(1972년)	25
대림 제2주일(1969년)	28
대림 제2주일(1970년)	32
대림 제2주일(1972년)	35
대림 제3주일(1967, 1970년)	38
대림 제4주일(1968, 1970년)	41
대림 제4주일(1970년)	44

성가정 축일	47	
성가정 축일(1967년)	50	
성가정 축일(1968년)	54	
성가정 축일(1975, 1980년)	56	
성가정 축일(1971, 1976년)	59	
다해 새해 인사(1981년)	63	
주님 공현 대축일(1973, 1977년)	64	
주님 공현 대축일(1974, 1981년)	67	
주님 공현 대축일(1975년)	71	
주님 공현 대축일(1980년)	74	
주님 세례 축일(1970, 1977년)	76	
주님 세례 축일(1971, 1981년)	79	
주님 세례 축일(1972년)	82	
주님 세례 축일(1975년)	85	
주님 세례 축일(1976년)	88	
주님 세례 축일(1977, 1980년)	91	
재의 수요일	94	
재의 수요일(1967, 1974, 1980년)	96	
재의 수요일(1970년)	98	
재의 수요일 후 목요일	101	
재의 수요일 후 금요일	103	
재의 수요일 후 토요일	104	
사순 제2주일(1972년)	106	
사순 제3주일	109	
사순 제3주일(1968, 1971년)	113	
사순 제3주일(1969년)	116	
사순 제4주일	119	
사순 제4주일(1965, 1968년)	123	
주님 수난 성지 주일(1971년)	125	
주님 수난 성지 주일(1971, 1974년)	129	
주님 수난 성지 주일(1972, 1981년)	132	
주님 수난 성지 주일(1977년)	134	
주님 수난 성지 주일(1980년)	137	
성목요일(1967, 1975년)	140	
성목요일(1972, 1981년)	143	
성목요일(1977년)	146	
성목요일(1978년)	149	
성금요일(1977년)	152	
성금요일(1978년)	155	
성토요일(1977년)	158	
부활 대축일(1968년)	161	

부활 대축일(1972, 1975년)	163	
부활 제3주일(1966년)	166	
부활 제3주일(1968년)	170	
부활 제3주일(1969, 1971년)	172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1969년)	174	
부활 제4주일(1971년)	177	
부활 제4주일(1972년)	182	
부활 제5주일	185	
부활 제5주일(1970년)	188	
부활 제5주일(1971년)	190	
예수 승천 대축일	194	
예수 승천 대축일	197	
예수 승천 대축일(1959, 1967년)	200	
예수 승천 대축일(1971, 1981년)	205	
예수 승천 대축일(1972, 1979년)	208	
예수 승천 대축일(1978년)	211	
성령 강림 대축일	214	
성령 강림 대축일(1953, 1958, 1966, 1970, 1978, 1981년)		218
성령 강림 대축일(1969, 1971, 1980년)	222	
성령 강림 대축일(1972, 1979년)	224	
성령 강림 대축일(1976년)	228	
삼위일체 대축일(1966, 1969, 1975, 1979년)		231
삼위일체 대축일(1967, 1971년)	234	
삼위일체 대축일(1970년)	236	
삼위일체 대축일(1972년)	240	
삼위일체 대축일(1977년)	243	
삼위일체 대축일(1978년)	247	
삼위일체 대축일(1980년)	250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65년)	254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66, 1970년)		256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67년)	260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68, 1970년)		264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71년)	266	
성체 거동(1972년)	268	
성체 거동(1980년)	272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74년)	275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76년)	278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1977년)	282	
예수 성심 대축일(1966, 1969, 1971, 1981년)		285
예수 성심 대축일(1979년)	288	
성령 강림 제4주일(1967, 1971년)	292	

성령 강림 제4주일(1969, 1971년)	295	
성령 강림 제5주일	298	
성령 강림 제6주일	300	
성령 강림 제6주일(1965, 1968년)	304	
성령 강림 제7주일	308	
성령 강림 제7주일(1968, 1971년)	311	
성령 강림 제8주일(1969년)	314	
성령 강림 제8주일(1972년)	316	
성령 강림 제9주일	320	
성령 강림 제9주일(1968년)	323	
성령 강림 제9주일(1969년)	325	
성령 강림 제11주일	327	
성령 강림 제13주일(1966년)	330	
성령 강림 제13주일(1967년)	331	
성령 강림 제13주일(1968년)	334	
성령 강림 제13주일(1969, 1971년)		336
성령 강림 제14주일	338	
성령 강림 제14주일(1969, 1971년)		341
성령 강림 제15주일	344	
성령 강림 제15주일(1969, 1971년)		347
성령 강림 제16주일(1969, 1971년)		350
성령 강림 제18주일	352	
성령 강림 제19주일	355	
성령 강림 제19주일	358	
성령 강림 제20주일(1969, 1970년)		361
성령 강림 제20주일(1971년)	364	
성령 강림 제20주일(1971년)	367	
성령 강림 제22주일	369	
성령 강림 제23주일	372	
성령 강림 제23주일	374	
성령 강림 제23주일	378	
성령 강림 제24주일(1965, 1969년)		380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	383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1968년)	386	
그리스도 왕 대축일(1970, 1980년)		388
그리스도 왕 대축일(1973년)	391	
그리스도 왕 대축일(1974, 1977년)		394
그리스도 왕 대축일(1976년)	397	
교황 주일(1956, 1968, 1977, 1979년)		401
한국 순교자 축일(1969년)	404	
순교자 성월(1976년)	408	

전교 주일 제29주일	412	
전교 주일(1976년)	416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1972, 1977, 1981년)		41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1975, 1979년)	421	
십자가 현양 축일(1975년)	425	
성녀 소화 테레사 대축일(1971년)	428	
모든 성인의 날	433	
모든 성인의 날(1955년)	436	
모든 성인의 날(1955, 1971년)	439	
모든 성인의 날(1968, 1977년)	442	
모든 성인의 날(1970년)	444	
모든 성인의 날(1974년)	448	
모든 성인의 날(1976년)	451	
모든 성인의 날(1981년)	454	
일치 주간	456	
일치 주간	460	
원장 수녀 모임(1970년)	462	
수녀들에게(1978년)	465	
지원자들에게	468	
장례 미사	473	
김 켈마나(영순) 수녀 장례 미사(1974년)	476	
김 이레네오(영자) 수녀 장례 미사(1975년)	478	
혼배 미사(1976년)	481	

대림 제1주일

그리스도의 4번 강림

오늘 저녁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전례상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복 많이 받으시오”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므로 주님의 사제로서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성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내일은 대림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할 것입니다. 성탄일은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내려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 있어 ‘내려오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그만 내가 개미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성탄일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느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므로 그분 위에 더 이상 바라볼 곳도, 생각할 것도 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더 높은 곳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며, 그분은 변화를 거듭하셨을 것이고 하느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높은 곳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낮은 데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분보다 더 높은 곳이 없으므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야훼님 만민 위에 드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 누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비길 손가.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 땅 굽어보시거늘!”

하느님께서서는 4가지 방법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분은 성탄일에 사랑스럽고 온순한 아이의 형상으로 베들레헴에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며 하느님은 선하고 사랑스러운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죽이려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매일 아침 제대 위의 성체 안으로 내려오시고 성체를 통하여 우리 영혼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번 역시 부드럽고 고요한 내림이십니다. 여기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분을 맞이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에 그분의 장엄하고 영광된 ‘내려오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려오심’을 믿었던 이들에게는 그날은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이의 영혼 속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 노인, 어린아이를 돌볼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내려오시어 우리와 함께 그 영혼들에게 내리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는 하느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청하겠습니다. 제발 그분이 내려오시는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

대림 제1주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전례상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교리나 묵주기도 또한 모든 축일을 통해 우리에게 자주 예수님의 일대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의 독립 혹은 대통령 선출... 이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사건이죠. 그러나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의 일들은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전 인류에게 미치는 사건은 아니며 그것도 현재에 국한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 탄생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작은 나라를 벗어나 하느님처럼 크게 보고 전 인류를 바라보되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 끝 날까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류'라는 전체의 집단 속에 우리는 그저 한 알갱이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 속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기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로 아담 이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인류는 33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 이후 인류는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Adventus)'인데, 그 단어의 뜻이 '도착', '도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늘 대림절을 맞고 있는 셈이지요. 대림절 동안 교회가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는 단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정신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까지 일러주어 성탄 대축일까지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강생을 알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속아 오류에 빠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느님께 그분의 강생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되시어 몸소 온 인류의 위대한 대표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처럼 인간이신 하느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위대합니다!

4주일 후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우리들 가운데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아기 앞에선 무서워 떨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 끝 날엔 그분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오실 터인데, 그때 그분은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인성 안에서, 성체 안에서 그분

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 끝 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희에 가득 찰 것입니다.

대림의 정신은 기다림의 정신입니다. 대림절은 열망하고 희망하고 기뻐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당 신부인 저는 여러분께 이 시기를 잘 보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느님을 생각하세요. 더 자주 미사에 오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고행을 하십시오. 비록 교회법은 단식이나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들 자신이 고행을 행하고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큰 손님을 맞을 때면 우선 온 집안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탄일에 성체 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쁜 습관들을 청소하고 선행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다른 형제들 영혼 안으로도 강림하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 그분 없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매일 매일의 고된 생활에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 세상은 그리고 나에게서는 그분의 강림이 필요하다.”

이 대림절을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번 성탄 축일은 여러분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요란한 외적인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더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은밀한 내면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대림 제1주일
(1967년)

마지막 심판 - 그분께서 오시니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교회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축일을 따라 그때마다 경건하게 기념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면 예수님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교회는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우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며 또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는 그저 지나가고 마는 이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비애의 날이요 크고도 참혹한 날이다. 이날이 최후의 심판 날이다”(마태 24,38).

세상 끝 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모든 것이 멸망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마태 24,29). 심판의 나팔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모두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활하리라. 성인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육체와 합칠 것이며, 지옥의 영혼들은 나와서 그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던 그들의 간악한 육체와 합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거기엔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증거자들, 동정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엔 얼마나 많은 추악한 자들과 극악무도한 자들, 반종교적인 자들, 생명을 죽인 자들, 부정한 자들, 인색한 자들과 위선자들이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가 일찍이 비웃고 모욕하며 경멸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어리석은 우리들은 저들의 삶을 미쳤다 하고 저들의 최후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겼구나. 보라. 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 헤아려지고 성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요란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그분의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선택된 이들은 환희와 승리의 고향을 지킵니다. 그들은 생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울부짖을 터이니, 그들 생전의 삶은 십자가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수백만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의로운 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편 반대편의 악인들은 공포에 떨며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2.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만민 앞에 펼쳐놓고 세상을 심판 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란 하나도 없고, 알지 못하게 감추인 것도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선한 이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친구들은 주님께서 몸소 칭송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덕행과 훌륭한 업적, 자선, 자애로운 행동, 그리고 그들이 생전에 행한 복음 선포를 주님께서 날 낚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추어진 잘못들, 태만의 죄, 성사를 잘 받지 않은 것... 그들의 추악한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애초에 그들 또한 하느님의 모상이었으나 죄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었구나...”

3. 선고(판결)

이때, 주님은 선택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너희를 위해 마련한 왕국을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 형제들과 내 사람들을 도왔으니 나를 도와준 것이며, 너희는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노라.”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려 반대편 이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악을 일삼는 자들

아.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불쌍한 이들을 도운 적도 없으며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느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네 욕신만 돌보고 나를 섬기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성인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환희 속에 천국에 오를 것이며, 악한 자들은 그들의 친구와 친지들이 영광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비탄에 젖어 탄식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여, 친구들이여, 친지들이여, 다시는 못 보리니 영원히 이별이구나...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 구세주 예수여... 이제 영원히 작별합니다.” 그 순간 깊은 구렁이 열리며 그들을 영영 삼켜버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새해 전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은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그토록 쏟아 부어주신 은총을 받드시 갚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십시오.

대림 제1주일 (1970년)

형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첫날 축복의 인사를 나누듯이 여러분의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교우들은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냉담자들은 자신들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특히 많은 외교인들이 교회를 알고 세례를 받도록 기원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한 사람의 외교인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난 주일, 즉 성령 강림 축일 후 마지막 주일의 복음서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역시 복음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에 관해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우선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와 함께 또다시 천국을 향해, 최후의 심판 날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교회는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날에 이로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세 차례에 걸쳐 내려오십니다. 처음엔 성탄일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한 아기의 형상으로 베들레헬으로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영혼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교리를 통해 그분 말씀을 통해, 특히 성체를 통해 한 조각 빵으로 우리 안으로 내려오십니

다. 여기서도 그분의 강림은 폭신평신했던 빵처럼 따끈한 밥처럼 부드럽고 온정이 깃들인 강림을 취하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 장엄하고 영광스런 강림을 하실 터인데, 그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강림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되겠지만 거부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첫 강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느님은 죽지 않는 분이므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부모가 되었고 고귀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고귀한 자답게 하느님의 부모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세 번째 강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속으로 내려오시는 그분의 두 번째 강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강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으로 내려오시는 두 번째 강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 속으로 내려오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잘 영접하는 이는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 복음서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당신을 영접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이에게는 능력을 주시어 곧 천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라.”

그러나 하느님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맨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하여 존경을 드리는 예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려오셨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분만을 생각하는 성인이 되는 날, 그분은 우리 안에 완전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하며 우리 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일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 구세주 대림 기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전의 이 가련한 세상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얼마나 가련하게 되었습니까, 무지한 자들, 돈과 우상과 육신만을 쫓는 자들...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약속받은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하였고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드높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이곳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더 깊게 강림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대림 기간은 사순 기간과 같습니다. 회개의 기간으로, 우리들 각자가 지난날의 죄를 속죄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통회를 해야 예수께서 우리 안의 맨 첫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에 더욱 자주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치십시오. 외교인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교리를 알려 주십시오. 성탄일에 많은 외교인들을 데려와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더욱 온전히 강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탄은 대축일인 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대축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이 기간을 유익하게 보내십시오. 성 바오로와 성 요한의 충고에 귀기울이십시오.

성탄일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첫 강림을 잘 받아들이시고 영성체 안에서 오시는 그분의 두 번째 강림을 영접하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분의 세 번째 강림 때에는 여러분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분이 오심을 볼 것이니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라 내 아버지의 강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차지하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천주께 영광이라.”

우리가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부나 심부름 온 사람, 혹은 이웃은 문간에서 맞이하죠. 친구일 경우에는 좀더 잘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서 최고의 방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대림 제1주일
(1972년 12월 3일)

대림주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림절에 대해 물어오셔서 오늘의 강론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Adventus)”, 즉 도착, 강생을 뜻하며 특히 율사람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대축일 둘을 든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듯이 강림절을 통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성탄 축일을 더 잘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기도와 회개의 기간인 것입니다.

1. 대림절의 역사는 초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조금 지난, 정확히 4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푸르 지방의 썬 마르탱 주교는 영세자들에게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11월 2일(성 마르탱의 축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순절 동안처럼 40일간 단식하는 것이었으니, 말하자면 성 마르탱의 사순기인 썬이었죠!

후에, 이 기간은 교황령에 의해 4주(28일)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주일이 1000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아담과 예수 사이에 4000년이라는 시간상의 거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단식을 폐지하고 단지 소제(육식을 피함)만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후에 공의회에서는 이것마저 생략했습니다. 비록 단식과 소제는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기도와 고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가 출현하기 전 세례자 요한이 요구했던 바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최초의 대림절 강론자인 썬이죠! “당신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이시오… 주의 길을 닦으시오!”

2. 대림절의 의미

하느님의 아들은 세 번 강림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 땅에 내려오심인데, 성탄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림절의 4주간은 수천 년을 상징하는데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특히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열망

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총과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강림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내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있을 하느님의 강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사심판이나 세상 끝날인 공심판이 그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이면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세 번 강림하심, 즉 베들레헴으로의 강림, 우리의 영 안으로의 강림 그리고 심판날의 강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3. 교회법은 비록 단식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대림절을 회개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회개의 상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순시기와 마찬가지로 미사 때의 보라색은 회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한 미사 전례에서 환희의 찬가인 글로리아를 생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미사가 예수 수난과 죽음으로 슬프게 끝나는 반면, 대림절 미사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며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미번역)

대림절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마치 5월, 성모의 달처럼 또 한번의 성모의 달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성모 무염 시태 대축일도 이때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한 모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론을 맺으려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묵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빛을 그분께 지었습니까?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를 열렬히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직분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힘써야겠으며 덕행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개선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회개입니다.

3. 더 많이 기도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어린 예수를 생각할 수는 없듯이 성모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결합이 바로 성탄의 신비 아닙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세례자 요한께도 기도합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세례자 요한보다 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 사제들과 수녀님들이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말해야 무엇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전교를 맡은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일을 맡은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미사성제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성 바오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며 강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이 되시오.”

대림 제2주일
(1969년)

대림절은 통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지 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점들을 말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 또한 저의 임무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세상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 역시 오늘날과 같은 조합을 세워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모두들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 흥산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신자들이 외교인들에게 전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 즉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나라에 가서 가르치십시오.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무관심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지붕 위에서 외쳐라. 내가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마태 10,26-27).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교를 회피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설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그래서 곧 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흠송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화를 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고 적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력해서 적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느라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제자들도 역시 말을 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외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잘 얻기도 하고 또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제자라면 여러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길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자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

드릴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믿음도 사랑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강생하신 하느님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하느님이시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리를 가르쳐주신 하느님이심을 안다면 도저히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말을 해야만 합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불행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교회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지나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인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의 신입 교우들은 교회 홍보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교황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걱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국내에서는 교회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쏟습니까? 다음 주면 한국에 32명의 새 사제가 탄생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왜 이곳 홍산에는 전교회장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이나 교회 잡지를 읽습니까? 이 교회 잡지 안에는 온 세계의 교회 소식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소식 그리고 교리 설명과 신입 교우들의 신앙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많은 교우들이 교회 소식에 무관심하여 이곳 교우들은 무식하고 미지근하며 오직 육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돼요.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은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6일이나 할애하셨고 7일째 날은 당신을 생각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의 많은, 너무 많은 교우들이 주일을 평일처럼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도무지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일에 일하려면 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신자들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들이니 주일을 지키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허락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에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하느님은 첫째 되시는 분이시 두째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야겠기에, 김장 때문에, 집에 손님이 왔기에, 시험 등등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주일도 지키지 않으니 세례만 받아서 신자이지, 생활은 신자라고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연약한 신자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나쁜 본보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두 문장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와 “보아라, 내가 예언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으리라”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들 역시 외교인들 가운데 선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계속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을 가르쳐서 그들 영혼

안에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 제2주일
(1970년)

의로운 자들의 시험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해 일했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에게 돌아온 보상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도 세례자 요한과 같은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유 아오스딩, 현 가롤로, 김 대건 안드레아와 같은 분들 역시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일하며 비록 외교인들에게서 온갖 중상 모략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고 하느님께 자녀를 봉헌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일자리가 없어 실직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죠? 하느님은 왜 그리 불공평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 저마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를 조명하십니다.1)

만사가 순조로울 때면 우리는 자주 하느님을 잊고 지내죠. 대부분 사람들이 당시에 행복하면 그것이 다 저들의 것인 양,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고통이 찾아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만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선 편안함보다 고통이 유익할 때가 자주 있는 법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인도 없습니다.

2.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다듬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선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고통도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을 뽑아내기 위함이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더욱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빛을 갠도록 허락하십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도 치러야 할 죄의 값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이 지상에서 작은 고통으로 치르는 것이 죽어서 연옥 고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회개한 죄수를 보세요. 그는 중죄인이었으나 자기 육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4.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갑니다. 모든 성인들께서는 “고통이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고통을 갈망했습니다. 죄 없으신 성 마리아는 순교자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실진대, 고통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안에 들기 전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 지상에서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며 그분 사랑의 표시입니다.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므로 많은 시험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읊은 의로운 자였으므로 그도 고난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을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성 안드레아처럼 “오! 감미로운 십자가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이사 53,4).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히브 4,1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르 10,45).

대림 제2주일

(1972년)

기다림의 정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너희의 영혼을 준비시켜라.... 하느님께서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까! 구약성서에서는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십여 번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성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권하십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시고 계시니 모두 회개하여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진실로 고대합니까?

통회에도 완전한 상등통회와 불완전한 하등통회가 있듯이, 또 자비에도 사랑을 지닌 완전한 자비와 염려를 지닌 불완전한 자비가 있듯이, ‘깨어 있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이 나

타날까 혹은 도둑이 들어올까 두려움에 깨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에 깨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앓고 있는 자식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엄마처럼, 귀가하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약혼자를 기다리는 약혼녀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수도자들인 우리들은 사랑하는 마음에 깨어 지새워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깨어 있든지 두려움으로 깨어 있든지 항상 주의하십시오. 항상 귀기울이십시오. 항상 자기를 비워두십시오. 하느님을 진정 만나려거든 이러한 자세를 갖추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믿음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데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살아 계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한 인물이십니다. 데이트 신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주 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표시를 아는 즉시 그분께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립절은 하느님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과 만남이란 어떤 만남입니까? 하느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 주실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요? 우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들 각자의 영혼은 신비스러워서 저마다 고유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 안에 계신 하느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당시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은 여전히 저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리이러한 규칙에 순종해라, 어떠한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께서 저를 통하여 크나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 말씀은 듣지 않고 오직 제 생각과 제 이상만을 듣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공베르 신부님은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인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초자연인입니까?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실까요? 하느님은 그분의 말씀을 오랫동안 유순하게 듣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벗들과 함께 그분 말씀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곁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 바오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는 하느님의 모든 풍요로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도, 성경을 읽을 시간도, 장상들의 강론이나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성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각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대화 안에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이 모두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진리의 일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와 자유에 굶주린 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바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가난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몸이 병들었거나 영혼의 시련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늘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며 다윗 성인처럼 “과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큰 유혹 중에 당신 언니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기다리는 데 싫증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데 먼저 싫증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수녀님들, 여러분은 모두 과수꾼입니까? 이제 곧 성탄입니다. 하느님의 방문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일 매일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매일 매일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마지막 큰 만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스런 종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어라.”

대림 제3주일
(1967, 1970년)

너희 가운데서 계신 분을 너희는 모르는도다

이는 성 요한께서 유다인을 꾸짖으며 하신 말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우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도처에 계심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신자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성인들마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을 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유혹이며, 반면에 하느님 현존을 생각하면 어떤 유혹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느님을 생각해야 하며, 그랬을 때의 이로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화하여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도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성으로서-성 베르나도는,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계십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의 본성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하심으로서-하느님은 당신의 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꿰뚫습니다. “하느님 대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알몸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당신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능으로서-하느님은 당신 전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분을 찬미하여야 하며 비록 혼자 있는 순간이라도 그분 앞에 예의 있는 품행을 갖춰야 합니다. 성 프란치

스코 살레시오는 “우리들의 온순함을 모두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무수하고 무한한 하느님의 은총을 자주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높이 받드나이다. 주의 영광 크시기에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란 한 순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이러한 은혜를 잇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2.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잊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누가 감히 면전에 있는 왕한테 욕할 수 있습니까? 성 이냐시오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간직하는 데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행실이 나쁜 여자가 성 에프렘을 유혹하면서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러는 것은 너무 창피한 짓이에요.” 그러자 에프렘 성인이 대답하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앞에서 걸으며 완전한 자 되어라.”

하느님 현존을 생각하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군인이 그의 국왕 앞에서 전투를 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찬사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걸었으니...”라는 표현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을 거닐 때, 우리 영혼은 유혹과 고통에 맞서 싸우는 데서 즐거움마저 찾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녀는 믿음과 정결에 거슬리는 무시무시한 유혹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녀는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혹과 맞서 싸우던 그날 성녀는 다시 예수님을 뵈게 되자,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 마음 안에 있었다. 네가 싸우고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었으며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3.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기 위해선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우선 조용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혼란 중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순결하지 못한 애정이나 헛된 망상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일들을 피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며 생각하세요. 착한 아들이 늘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듯 말입니다. 잠에서 눈을 뜰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나, 가능하면 매일같이 시계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잠깐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주 하느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빛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처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비오니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비추소서.”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을 너희는 모르는도다.”

대림 제4주일
(1968, 1970년)

대림절이 거의 끝나갑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성탄 대축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교회에 순종하는 보다 나은 신자가 되려고 이 기간 동안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성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찰고를 받지 않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교회 서적을 읽고 자녀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는 우선 깊이 회개하시길 빌며 내년에 더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복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주어졌으니…”

교회의 대축일 가운데 성탄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가장 대중적인 축일입니다. 월남처럼 전쟁 중인 나라도 그날만큼은 전쟁을 중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그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란 성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길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 외아들을 이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받아들여셨으나 인간의 죄만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나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너희의 가난함은 흠이 아니며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귀한 신분이 될 터인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통 중에 있느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의 고통이 내 고통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대속하고 구원하리라.

너희가 세상 모든 이에게 멸시를 받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드러나지 못했느냐, 너희가 권력자들 가운데 끼지 못했느냐?

나를 보아라! 나는 조그만 아기에 불과하다. 나는 여인숙에 방 하나도 구하지 못하여 외양간으로 가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고 있느냐? 나 또한 그러하다.

나는 세상에 유익한 일을 행하였는데도 부당하게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부당하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긴 행렬 맨 앞에 내가 있다.

땅 위의 것은 모두 스쳐지나가나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나는 너희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매겨 주신다. 하느님께서 저마다에 걸맞는 보상을 내려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각자 구유 앞에서 묵상하며 각자의 마음 안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탄은 작은 이들의 축일이며 겸손한 사람들의 축제이고 선한 뜻을 가진 이들의 축일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들의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의미가 너무나 심오하여 한 대의 미사로는 그 뜻을 다 전할 수 없기에 이날만큼은 3대의 미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정미사 -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십니다.

새벽미사 -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영혼 안에 오십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마리아에게 내려오셨고 이제 우리 안으로도 내리시길 원합니다.

낮미사 -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아들, 그의 탄생은 하느님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성탄 밤, 별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마다 그 별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별을 보지 못하는 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바로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주치는 가난한 사람, 외교인들, 어린이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이들을 맞이하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행복만을 찾듯이 자신만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내려오시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체 안으로, 우리들 마음 안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 안으로도 내려오시도록 그분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들 자신이 별이 됩시다.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성탄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며 예수님의 축일이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을 이방인들처럼 식사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이나 주고받으며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생일인 것입니다.

대림 제4주일
(1970년)

성탄 준비

“하늘아! 이슬같이 의인을 내리고, 구름아! 비같이 의인을 내려 보내소서.”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의 외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어 말씀을 전하실 터이니 여러분은 통회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성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강생은 매우 큰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감동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은총 없이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목동들처럼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감동받고 기쁨에 넘

켰습니다.

이교인들이 이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축일을 이해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으라... 이에 모든 사람이 천주의 구세주를 뵈오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혀져 주름진 길은 바르게 하고,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이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1. 주름진 길은 바르게 하고

결함이 있고 옳지 못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죄든 소죄든 죄가 남아 있는 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여러분에게 그저 평범한 아기로 보일 뿐,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해하시고 통회하십시오.

2.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의 영혼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방인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번 성탄도 그들을 회개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보다 이 지상을, 정신보다 물질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크나큰 공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3. 모든 산과 고개를 낮게 하고

여기에서 산은 우리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사탄에게 졌던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산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우리 주 구세주께서는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잘 이해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4. 굽었던 것을 곧게 하고

하느님은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는 진실과 옳고음과 정의를 좋아하십니다. 바리새이파들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지나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5.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울퉁불퉁한 이 길은 바로 우리의 성격입니다.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우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이해하려면 우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없애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서로 사랑으로 참아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마태 5,23-24).

어느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큰 즐거움으로 영성체하며 성체의 맛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그는 동료 수도자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와 같이 잘 준비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올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강생의 의미를 음미하여, “이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세주를 뵈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잘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느끼지도 못한 채 전처럼 하느님에 대해 무지하고 미온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오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곳 홍산에 오실 것입니다. 역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성모님과 성 요셉께 간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아! 이슬같이 의인을 내리고,
구름아! 비같이 의인을 내려보내소서.”

성가정 축일
(루가 2,41-52)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수 성탄 대축일을 지낸 첫 주일로서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 성탄 다음으로 성가정은 교회가 목상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고, 우리의 수도원 역시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훌륭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합심 없는 가정이 있듯이 합심 없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나 영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정 또는 신문이나 소설을 읽어 봐도 행복하고 순수한 가정을 보기란 드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의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인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바라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대해 토를 달니다! ‘그 가정의 세 식구는 가장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무지하며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마리아, 요셉은 완전하신 분들이고 영혼 안에 큰 사랑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에게도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처럼 수많은 근심과 문제와 내적 외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렸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처녀에게 이보다 더 흉악한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파혼까지도 생각하였습니다. 또 베들레헴으로의 위험한 여행은 어땠습니까? 여관엔 머무를 방이 없어서 외양간으로 가게 되

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메온의 고통스러운 예언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에집트에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는 어린 예수를 잃었다가 사흘 만에 찾았을 때, 그 예수로부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가 나자렛 집을 떠나셨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갈바리아 산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안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에 불과합니다. 30년 동안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걱정들도 있었습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부모는 그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 다른 자녀들도 다 같지 않습니까? 내일 그(자녀)가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릴 떠나게 될지, 언제? 어떻게? 교구청의 주교나 수도원의 원장 역시 그들의 사제나 수녀를 두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첫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십시오.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여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며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사랑은 상품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참아주고, 프로테스탄트들과 일치하며, 외교인들과 착하게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먼저 우리들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때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 자매 수녀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매들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겸손되어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자매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자매들을 돕되, 그들의 대리자가 되지는 말 것이며, 그들을 의심하지 말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성가의 수녀님들, 마음으로부터 자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단조롭고 날마다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지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골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삼위의 모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같은 희생제사에 참여하여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

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 깊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성가정 축일

(1967년)

여자 예언자 안나

여름이면, 추운 날엔 여름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꿀벌들은 여름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분주히 날아다니며 꿀을 모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주일마다 성서 안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위한 꿀을 모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예언자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성령이 쓰신 복음서를 몇 구절 읽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깨달음을 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성서에는 세 명의 안나라는 성녀가 나옵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²⁾ 토비트의 아내 안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여자 예언자 안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할머니인 안나도 계십니다만, 성서에 전해지는 바는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구전으로만 전해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예언자 안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두 노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안나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하느님을 사랑하였으니 성령의 찬사는 그녀에게 내린 아름다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룩한 여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양일 수도 있으며 특히 경건하게 사는 여인들의 표양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 안나가 지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네 가지가 있었으니, 순결, 열심, 향구한 믿음 그리고 열성이었습니다.

우선 순결을 생각해 봅시다. 순결은 세 가지 경우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과부 생활(독신 생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나는 이 세 경우를 통해 순결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먼저, 그녀는 혼인 전에 동정녀였습니다. 성서는 “처녀로서 출가해서...”라고 밝힙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젊은 한 쌍이 맺어지는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에게 깨끗한 몸, 순결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 안의 이 보화를 정성껏 간직하십시오. 위험한 기회를 피하고 혼인 전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마십시오. 이미 순결하지 못한 육신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이는 망신이요, 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이미 혼인 전에 유혹에 빠진 일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 생활 중에도 정결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오직 그녀의 남편에게 신의를 지켰으며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부들 가운데는 결혼 때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심하면 이혼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마지막 날까지 혼자 살며 정결을 지켰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엔 재혼을 한다 해도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재혼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성 바오로께서도 “혼인하는 것이 정욕으로 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부나 홀아비로서 독신으로 머무는 것은 훨씬 더 온전합니다. 그러려면 안나처럼 세상을 피해 일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둘째, 그녀는 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성녀처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84세에 이르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단식과 기도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공로를 닦았습니다. “단식하고 기구함으로써...” 그것도 어찌다 한 번씩 한 것이 아니라 늘, “주야로... 84세까지” 행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유혹을 물리치고 정결하게 머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과부는 보속과 희생을 하며 자신의 욕신을 다스리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됩니까! 이 과부는 우리처럼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우리처럼 성체를 모시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이 여인 앞에서 얼마나 얼굴을 붉히게 되겠습니까!

셋째, 그녀는 항구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신앙 행위가 몇 개월, 몇 년 간 것도 아니고 84세까지 평생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항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느님은 그녀에게 약속된 구원자를 뵈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오!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매일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항구한 믿음을 지니고 하느님의 은혜에 더 감사드릴 줄 알고 더욱 충실해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넷째, 그녀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총으로 충만하여 하느님께 영광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녀는 사도가 되어 만민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였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열의를 지닌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한다면 말은 저절로 나옵니다! 가정에서 여신도들이 적어도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 친척들에게 이러한 열의를 보인다면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성은 많은 결실을 맺고 또 많은 공로를 얻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표양, 여자 예언자 안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녀처럼 우리들도 순결을 사랑하고 목상을 즐기며 기도와 통회의 정신을 가집시다. 공로를 닦는 데 꾸준합시다. 우리 주위에 이 은혜를 퍼뜨리는 사도가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상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성가정 축일
(1968년)

예수 탄생 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늙은 시메온이 예수님을 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시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루가 2,34).

예수님께서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예수님이 “백성을 넘어뜨리는 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소름끼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 넘어질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될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그러할 것인데, 모든 유대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이방인들은 제외하고 이천 년 동안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며 교회를 박해한 이방인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르셨으나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그리스도 신자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가난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매일 죄를 짓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냉담자, 나쁜 표양을 보이는 남자들,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나라가 오도록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나쁜 교우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영혼들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심한 신자들, 사제들을 통해 그들을 계속 부르시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거절하며 교회와 성사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와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온 나라로 파견되어 이방인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았으며 또 순교한 이도 많았습니다. 성 요한은 하늘나라에 “허다한 백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톨릭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냉담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에 충실하며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몇 푼을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일을 지키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열심한 교우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기를 “너희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성부께서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기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시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원하심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매일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있는 교우들, 부모,

교사들 그리고 비교우 권위자들,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혼자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야 하며 죄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게 맡겨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총에 큰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일을 하셨던 구유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참 행복을 위해서 일할 것을 결심합니다.

성가정 축일
(1975, 1980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약 30년간 나자렛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가회의 수녀인 만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그분께서 가정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으나 평생을 거의 가정 안에 숨어서 묵묵히 지내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30년의 나자렛의 삶,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3년 동안의 삶,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흘이 그것입니다.

나자렛에서 그분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점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4가지입니다. 기도, 순명, 육체노동 그리고 성장입니다.

첫째, 나자렛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도이며 모든 이를 위한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응답을 받는 기도!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분들의 기도하는 방식, 그분들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며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분들은 자주 기도하셨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천사들도 감동했습니다. 성부께서는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분원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성가정을 모방해야 되겠습니다. 성가정은 기도하고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나자렛의 성가정은 순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나의 양식은 성부의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형집행인에게도 순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성가회의 수녀들은 이와 같이 순명합니까? 우리의 순명은 온전한 순명

입니까? 우리의 순명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순명을 닮았습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자매에게 순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순명하는 것을 볼 때 왜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셋째, 나자렛의 예수, 마리아, 요셉은 가난했기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가롭게 지낼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불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러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매일 일과가 짝 차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은 성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도와 살림을 보살피셨고 요셉을 도와 작업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일은 창피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평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과 부모의 봉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보속하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영혼들, 게으른 영혼들이여, 하느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이를 보고 겸손을 배우고 게으름을 피하고 불평 없이 일하십시오. 아무리 창피스러운 일일지라도, 혹은 힘든 일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지만 나자렛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넷째,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며 하느님과 인간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마리아와 요셉의 열성 역시 나날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평신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성체를 하고 강론을 듣고 피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열심한 마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화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슬프게 보고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요셉 역시 잠든 예수를 보시며 감동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수녀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감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가정 대축일을 맞아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마리아, 요셉처럼 기도하고 늘 순명하며 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더 나아가 하느님 아버지께 지혜와 덕행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은총을 주십사고 청합시다. 우리도 나이와 지혜가 날로 자라며 하느님과 인간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가정 축일
(1971, 1976년)

영광스럽게도 우리 수도회의 이름이 “성가회”이니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도 더욱더 각별히 이 성가정을 공경하고 특히 그 덕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삶에 관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누가 그분들의 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믿음, 희망,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

혜로움, 정의로움, 용맹, 절제, 또 그분들의 가난의 정신, 정결의 정신, 순명의 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작용은 하느님처럼 무한하므로 우리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한다 해도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므로 오늘은 성가정의 한 덕이며 수도회에 정말 필요한 덕이기도 한 인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내는 기본 덕인 용맹의 덕의 딸입니다. 인내로써 고른 영적 상태를 지니게 되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어 냅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모두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통을 견디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불평하고 심지어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런 것은 다 나쁜 태도이며 여기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수도자들은 우리의 고통을(고통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으로써 견디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고통을 견디어야만 하지만 그것은 덜 완전한 것입니다.

완덕에 이르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정화의 길, 광명의 길, 일치의 길이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견디는 데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불평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고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내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봅시다.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와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번씩이나 적기를, “하느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1티모 6,11)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한 우리의 고통을 큰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합니다(로마 5,3).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강한 끈기를 낳고, 그와 같은 끈기에서 희망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묵시록에서 하느님께서 우선 주교들을 심판하시며 먼저 그들의 인내를 보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수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내를 사랑하십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강한 자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을 보십시오. 그분들만큼 고통을 당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었고 가장 큰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큰 굴욕과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셨으며, 마리아는 하늘나라와 지상의 여왕이시며, 하느님은 요셉에게 가장 큰 이 두 보화를 맡기셨으니, 그분들은 진실로 가장 고양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보다 더 순명하며 더 겸손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며칠 동안의 일이 아니라 온 생

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세까지, 마리아는 70세까지 그리고 요셉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불평하지만, 그분들은 한마디 불평도 않으셨고 오히려 삶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보다 덜 완전한 요셉이 가장이었으나 예수, 마리아는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은 인내의 본보기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우리들 역시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는 여기 한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잘 압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의 결점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는 너무나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일하려면 우선 가정 생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평화 안에서 살아야 하며, 비록 그가 덜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가장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참고, 용서하며, 피를 부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 사이에 증오가 있거나 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로 비판한다면 우리 공동체 이름인 성가정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성인을 보십시오. 사랑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만을 위해서 살으셨고,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님의 행복만을 생각하셨으며, 요셉도 예수와 마리아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축일 맞은 우리 성가정의 수녀님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인내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인내하십시오. 공동체 생활은 수도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도와주시고 모욕을 받더라도 곧 잊으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아파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인내와 겸손의 정신으로 산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잠시 후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께 가장 큰 인내의 덕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 주신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께 고통을 더 달라고 청하십시오. 예수, 마리아, 요셉은 오로지 고통받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인 그 고통들 덕분에 그분들은 구속사업의 위대한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다해 새해 인사
(1981년)

새해 첫날을 맞아 주님의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느님과 더욱더 일치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시길 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번 이것을 소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셨고, 우리의 세상 마지막 날엔 그분께서는 “착하고 충성스런 종아, 이제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몰려들자 제자들은 그만 질려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까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역시 많은 이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하며, 특히 우리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고 성체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 뜻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 달라는 것이며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더욱 잘 완성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더욱 잘 지키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1981년, 이 한 해를 복되고 풍요롭게 보내길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십시오. 믿음을 배우십시오. 오늘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은 언제나 성서를 공부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성서를 읽으십시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조명해 주고 인도하고 분발시킨다면 모든 이에게 이 한 해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교우 한 사람, 특히 수도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친자매처럼 살아간다면 새해는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녀님들께 복된 한 해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수도원과 전 세계에 하느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1973, 1977년)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공현을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 축일을 기념하는 목적은 삼왕을 축하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추가 들어 있는 과자를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삼왕은 하느님이 부르신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우리 각자의 신앙 생일입니다. 세례 때 사제의 “당신은 무엇을 청합니까?”라는 첫 질문에 “믿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삼왕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왔으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르러 그분 앞에 절을 드리고 흠송했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별을 보았는데, 이 별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별은 다 다릅니다. 훌륭한 부모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좋은 책, 선한 표양,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따라와 세례를 받았으며, 이 수도원에 입회한 것입니다. 삼왕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보고 왔다”고 말

합니다. “보았다”는 것은 은총이며, “왔다”는 것은 은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별을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별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지만 그 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훌륭하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죽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삼왕처럼 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항구하게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1. 우리의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이 나타나자 많은 이들이 그 별을 보았고 모두 같은 은총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역시 별을 보았고 찬미했으나 ‘왜?’ 하고 의문을 품고는 더 멀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만이 알아차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끝없는 행렬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별을 따라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조국과 가족과 친구와 나이와 여정의 피로를 무릅쓰고 그리고 체면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박사였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유혹과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은총의 빛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별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살며 세상일에만 생각을 둡니다. 종종 우리 수도자들도 예루살렘의 사제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가르치기만 할 뿐 자신은 그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이 삼왕처럼 “그 별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처럼 “조배하러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세 동방 박사는 즉시 은총을,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보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이에 지체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냉담해집니다. 선하신 하느님은 나를 기다릴 의무가 없으신 분이지만, 나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 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별을 보았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지체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3. 동방 박사 세 사람은 항구하게 별을 따라갔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늙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별도 없는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낮선 고장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이 하나도 없이…. 그렇다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소식에 기뻐해야 마땅했는데도 그들은 무관심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찾아보시오(우리는 모릅니다)”라는 반응에 세 사람은 놀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찾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하는 소리에 그곳에 가보니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은 궁전은커녕 어느 초라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으며 동시에 마음의 기쁨도 찾았습니다. 우리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느님을 찾읍시다! 혹시 어떤 고통이 있다 해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반대한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병고, 어둠 가운데서도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별이 사라진다 해도 순교자처럼 계속 나아가십시오. 두려

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인 별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별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세례 때와 해마다 성토요일이면 여러분에게 불을 붙인 초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별을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인들은 빛이고 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동방 박사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즐겁고 만족한 얼굴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1974, 1981년)

하느님의 가장 선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축일입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언자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실하게 믿는 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께서 수천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은 진실을 모르며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거기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께서 수천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그들을 대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은 보호해야 할 보배이며 이방인들은 마치 전염병자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며,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빛이기에 그 빛을 뒷박 아래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되고 촛대 위에 올려 놓아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멋있게 묘사합니다.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세 이방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믿음을 지녔고 신자들의 지도자들이었던 헤로데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이방인에 대한 하느님의 행위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만나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로마 백인대장을 맞아들이셨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나안 여자를 맞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그녀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각을 가르쳐줍니다. 즉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온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기에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만의 혹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이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의 희망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별과 같이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심은 확실하기에 그것을 믿어야만 하며 조금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오늘 주님 공현 축일에 우리 모두 하느님처럼 생각해 봅시다.

1.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느님께는 이방인도 없으며 무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 동방 박사처럼 몇 가지 노력하기를 청하실 뿐입니다.

2.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한 번도 은총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비처럼 눈처럼 어디에서나 쏟아 떨어집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듯 은총을 주십니다. 별이 무수한 것처럼 은총도 무수합니다. 모든 백성 안에서, 그들의 지난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들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내버릴 것은 아닙니다.

3. 세례 받은 우리들, 수도자들인 우리 역시 이방인들을, 심지어 악한 이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애공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이며 우리 부모님의 덕분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교인 나라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나쁜 표양 때문이 아닐까요?

이교인들을 좋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애써 잡으려 들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고객에게 미소짓는 상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타인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복이란 당장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기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인들 앞에서 우선 좋은 표양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슬픈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물어 올 때 우리는 아는 대로만 말해 줄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마음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둡시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훌륭히 일하십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1975년)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좀 막연하지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은 ‘하늘 공(公)’이고 ‘현’은 ‘나타날 현(現)’입니다. 즉 공중에 주님의 증명, 표시, 빛이 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들과 노동 조합원들은 월급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데모를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데모이고, 데모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사랑과 결합을 표현합니다. 편지나 입맞춤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웃음은 기쁨의 징표이고 눈물은 슬픔의 징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징표로써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았기에 주위를 기울여 하느님의 징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하느님의 이런 사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우선, 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부르는 신비스런 무엇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징표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동방 박사는 전 세계의 이방인들의 예수를 향한 그들의 이끌림을,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원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기나긴 여행을 통해서, 곤란 중에도 강인함을 보임으로써, 애굽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무관심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2. 아기 예수님 역시 하나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징표를 보내시고자 하신 것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단지 한 백성, 한 교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동방 박사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까? 탄생과 어린 시절을 통해 그분은 바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난한 삶을 함께 나누려고 오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미소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시며, 그분은 고국을 떠난 나그네처럼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단지 천둥과 번개의 하느님, 무시무시한 하느님, 복수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교리에서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나약한 아기를 바라보노라면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큰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악한 사람일지라도 아기 앞에서는 진정하고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웃음을 띠기도 할 것이며 아기를 돕고 싶은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며 동방 박사를 끌어당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십니다.

그분은 우선 별을 통해서 우리의 지력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유에 맡기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물러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도처에 현존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십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와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큰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기 앞에서면 권한을 상실합니다.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결점을 갖고 있어도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에서는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강요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드러내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나 그보다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은 우리 인성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인입니다.

3.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하느님의 반사광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해를 쳐다볼 수는 없지만 해가 비추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정의와 형제애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봅니다.

수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반사광을 볼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드러낸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과 수녀들은 행동을 통해 더욱더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동방 박사들이 하느님을 찾으려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느님을 찾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좋은 본보기만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십자군 전쟁이나 중세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모상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빈첸시오 드 폴, 돈 보스코 성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도 코블 신부나 샤를르 드 푸코, 까마라,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병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모든 수녀들은 별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징표가 됩시다.

주님 공현 대축일
(1980년)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분은 주님 공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묵상 안에서 그들(동방 박사)의 믿음과 성실, 그리고 열심한 마음을 감탄하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뵈은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박사들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본 나라에 돌아갔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1. 하느님께서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하셨습니다. 헤로데는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지만 하느님은 그의 속임수와 아기의 위험을 아셨기에 박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

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에서 머리 카락 한 올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느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면 그분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평화 안에 머물며 그분을 의심하지 맙시다.

2.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그 다른 길에 놓여있을지도 모를 위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은 단순하게 복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신뢰가 충만한 채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갔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길로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특히 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신 후에는 헤로데 쪽이나 죄 쪽으로, 우리에게 죄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과 세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욕망들과 우리의 악습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수도원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그분을 찾았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매일 쾌락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수고와 보속의 길을 통해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갑시다.

3. 동방 박사들은 그날 이후부터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구유에서 받은 은총과 마리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활동을 봉헌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완덕에 진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되어 그들이 본 오묘한 것을 모든 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열정으로써 열심하지 않은 이들의 회개를 위해 일했습니다. 성전(聖傳) 말씀에 의하면 토마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주교서품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결국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조명하셨고, 굳세게 하셨으며, 위로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이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실 안에서 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 안에서 그분을 만나기에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들은 겁없이 굳셈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삼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놀랄 만한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
(1970, 1977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6개월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

오.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요한 1,26-27).

사실 요한은 예수를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사막에서 지냈기에 베들레헴이나 나자렛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갈망했고 그분의 오심을 청하며 기도하면서 어서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의 거룩한 두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예수에게 나자렛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의 작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눈물을…).

어느 날 요르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회의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고 있던 요한은 갑자기 군중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이 용약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어머니 엘리사벳 태중에 있으면서 마리아가 가까이 오셨을 때 떨었던 그 기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분께로 가서 엎드려 절을 하려 했으나 예수께서 먼저 죄인과 마찬가지로 통회하시며 겸손되어 세례를 청했습니다. 요한은 몸을 떨며, “제가 마땅히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오시나이까?”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강생하심으로써 그리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분은 죄인처럼 가슴을 치고 죄의 용서를 얻고자 물에 들어가기로 원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홀로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분을 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커다란 신비가 완성되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체 안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바로 그 순간 물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능력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느님의 자녀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주실 세례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는 강에서 나와 강변에 서시어 인류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렸는데, 아담 이후로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셨으며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셨으니, 이 새 아담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이 사람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몇몇 사람은 이 음성을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었을 뿐 이해하지 못했으나 세례자 요한만이 성삼위를 이해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 구속사업을 명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녀 한 사람은 그의 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몇 해를 기다렸다가 장상으로부터 명을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박식한 분이면서도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수녀님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1. 성삼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얼마나 잘 일치하고 계신지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께서 명령하시고 아드님은 순명하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십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 되십시오. 교황과 주교와 우리의 장상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성삼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명할 때, 이는 한 사람의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순명하는 것이며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결합하고 영성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의 본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2.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 때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기에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당신 아들의 모상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비록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걱정, 근심, 고통이 있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비하면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증인이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어디서나 당신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 너희 보내기를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하노라.”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면 나 또한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성부 대전에서 증거할 것이다.”

주님 세례 축일

(1971, 1981년, 마태 3,13-17)

수녀님들! 여러분은 종신서원 날 세 가지 큰 허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세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녀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수도원을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세례 때의 계약을 계속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첫 번째 받는 성사이며 그 성사 없이는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날 육신의 생명을 받지만 세례 받는 날에는 영혼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먼저 구약을 통해 하느님께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에 대해 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어제와 오늘도 항상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종종 세례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표시로 물을 조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로 많은 고통을 겪다가 자유의 홍해를 건넌으로써 노예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했으나 하느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르단을 건넜는데 훗날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은 나병환자였는데 예언자 엘리사가 그를 요르단에 보내어 몸을 씻게 하여 치유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

는 ‘베싸이다’라고 하는 작은 못은 하느님의 천사가 매일 와서 그곳의 물을 휘저어 놓곤 해서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환자가 치유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물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이미 세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늘 두 사람이 관계되는 법이고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 받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한 쪽에는 하느님과 혹은 하느님의 대리인이 서고 다른 쪽은 세례 받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물로써 씻겨진 그에게 하느님은 하늘나라와 은총을 되돌려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규칙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계약은 매번 성체를 모시고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갱신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맺는 영원한 계약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아기였을 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위해 세례를 청한 것이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계약은 무효하다”고 하면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에게 육의 생명을 주셨듯이 나와 상의 없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세례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세례 전에 나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었으나 세례를 통해 나는 하느님과 결합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지만 원죄로 인한 형벌은 남아 있게 됩니다. 거기엔 네 가지가 있는데 무지, 음욕, 고통,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남아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것들이 세례로써 모두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마리아를 더욱더 닮게 됩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인데도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례 때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에게 다른 은혜도 줍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성화 은총, 즉 하느님의 생명을 줍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세례는 우리 영혼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 육신과 영혼과 성령으로 구성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세례자를 바라보시며 예수께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하늘나라는 진정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의 생활한 신비체가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교회의 은혜와 성사를 받을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 우리 영혼 안에는 도장처럼 인호가 박히는데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만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얻으면 크나큰 영광이 되겠으나 만일 지옥에 간다면 그건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에 줄리앙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배교자였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그는 믿음

을 포기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호를 지우려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염소의 피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인호는 지울 수 없는데도 그는 바보짓을 했던 것입니다. 수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례 때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제가 여러분에게 흰 두건을 주면서, “이 품위를 깨끗이 보존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축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늘 순결하게 머무십시오. 늘 하느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주님 세례 축일

(1972년)

교회는 오늘 두 신비를 기념하여 축일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신비와 처음으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신비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층 더 기쁜 날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이토록 즐거움을 주니 어떻게 교회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커다란 신비, 예수님의 세례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이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기에 하느님이신 그분은 아들로써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모든 인간과 결합하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대속의 세례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죄인처럼 물 속에 들어가셨을 때, 이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물에 들어간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느님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 사함을 얻어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대신 물로써 죄를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세탁의 상징이며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며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 우선 아버지 하느님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영원히 낳은 자이다... 내가 그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그 안에서 성령이 솟아 나온다! 그는 나와 같이 하느님이기에 어떤 인간보다 더 거룩하며 더 고양된 자이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인간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는 나의 아들이며, 그는 너희의 맏형이니 내가 창조한 너희 역시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면 너희 역시 피로써 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는 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분처럼 명확하고 박식한 스승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기에 그분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결합됩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사항이 체결됩니다. 사탄의 어둠을 끊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 하느님의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세례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 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교인들, 무지한 이들 가운데서 그는 빛이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또한 이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보아라,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얼마나 순결한가, 그의 말은 얼마나 거룩한가... 그 사람처럼 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바라보아라...” 세례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삽니까? 우리들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우리는 예수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3. 하느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장상들이 비록 결점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황님, 우리의 주교님들, 우리의 사제들, 우리의 장상들은 모두가 성부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외면만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지 않는 것은 유혹이며 작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죄를 명령한다면 그들에게 순명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으므로 순명하십시오. 비록 차라리 내가 지시를 내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선 보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4. 아버지 하느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아와 병자들, 우리의 학생들과 예비자들을 제시 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이 미소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즐겁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의 장상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흔쾌히 그들에게 순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슬플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서의 기쁨은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기쁘게 머물며 즐거움 속에서 일하십시오.

주님 세례 축일

(1975년)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생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곁에서 조용하게 좋은 표양을 보이며 사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나자렛과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분명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즈음에 세례자 요한은 설교를 하며,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찌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두가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에 따라 군중은 요르단으로 내려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달랐습니다. 우선 그의 세례는 거룩한 은총이 주어지는 성사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유다인의 전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인은 영혼의 죄를 통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주 그렇게 해왔고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 잠기었다가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가면 아직도 그때의 세례당(洗禮堂)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의 계단으로 나옵니다. 어떤 개신교 교파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아무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은 30세 가량의 남자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의 얼굴은 큰 엄위와 거룩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에 감동되고 그의 마음속의 성령이 그분이야말로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친척지간이며, 엘리사벳이 그(세례자 요한)를 낳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으니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두 사람은 그날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열심한 유다인들은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그때 그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집은 헤브론이었고 예수의 집은 나자렛이었으므로 두 집 사이의 거리는 꽤 먼 거리이기에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聖傳)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사무엘처럼 일찍이 은둔생활을 하여 사해 근처 한 수도원에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나자렛을 떠나 베타니아로 갑니다. 그곳은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엘 가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한 것이며 거기엔 매우 심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덕분으로 세례자 요한은 이 서른 살 가량의 남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세례를 청하자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세례를 원하셨습니까? 그는 죄인도 아니셨고 원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도 깨끗하여 통회도 용서도 필요 없는 분 아니십니까?

1. 세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이분께)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2.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항상 법에 순명하셨습니다. 할례, 성전에서의 봉헌, 과월절 참례, 그분은 겸손으로 모든 법에 순명하셨기에 계속해서 법에 순명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 특히, 그날(세례 받으시던 날) 예수께서는 구속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길 원하시어 죄인처럼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실 수 있도록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다.

4. 예수님은 물에 죄인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힘을 부여하시면서 그날 세례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물에서 나오시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께서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환시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그분을 위한 것이었기에 세례자 요한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삼위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안에 계신 성부와 예수님 안의 성자 그리고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아들에게 말씀의 선포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날부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루가 12,50).

주님 세례 축일

(1976년)

예수님의 세례 축일 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의아해 합니다.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마르코 복음에서는 비극의 서막처럼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한 남자가 구체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분명코 성공을 거둘 것임을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하리라는 어떤 분명한 징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1막 요르단 가까이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고행을 합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립니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군중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며 그를 보러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의 위대함을 두고 그는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와 ‘앞으로 오실 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가 하던 일과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은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 겸손되이 설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는 말하기를, 그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그보다 더 힘 있는 분의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놀라운 회개를 시켰을지라도 또 비록 그가 위대한 예언자라할지라도 그의 명성은 ‘앞으로 오실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말은 했으나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군중도 예수를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켰을 뿐이며 군중의 호기심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주의하시오!”라고 경고합니다.

제2막 군중 가운데서 별안간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라고 불리며 나자렛 출신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물에서 나오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두 징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상의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우선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누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이한지라 이 점에 대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전설이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고지식한 사람들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건 사실이였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니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출발의 큰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기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와 모두 일치합니다. 그들에게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서 맨 처음, 첫 창조가 있기 전에 “성령이 물 위에 빙빙 도시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시자 예수님 위로 내려온 이 비둘기는 바로 두 번째 영적 창조를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이미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사야, 다윗 같은 여러 예언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징표들을 통하여 모두의 주목을 예수에게 쏠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십니다. 이 예수를 세례자 요한은 아직 지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정과 부모,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온 정말이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그를 찬양하며 그를 지목하고 그를 파견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이제부터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의 임무가 시작되어 그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갑자기, 군중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가장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머물며 예언자들처럼 사명을 가지셨는데 그의 사명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더욱 심오하고 더욱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하느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이시며,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 이후로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은 예언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시니 그것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까? 각자 자유롭게 거기에 참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강요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우 몇몇 사람만 생각하지만 하느님, 그분께서는 온 인류를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 안에서 강생하시어 온 인류를 담당하셨고, 모든 죄인들을 책임지셨으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온 인류의 용서를 청하시고 얻으셨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

(1977, 1980년)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

오늘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맞아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 예수님에게 세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그때(세례 전)까지 나자렛에서 사셨으며 하느님의 아들인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첫 번째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한 그분의 첫 공적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권력 행위였습니까? 권위적인 행위였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행위였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어린양 같은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인들 속에 섞여 세례자 요한에게 첫 번째 물의 세례를 청하셨습니다. 훗날 그분은 두 번째 세례에 대해 말씀하실 터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두 세례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세례 때,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시각에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나 첫 번째의 세례를 받는 오늘은 반대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면서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세례는 그분의 장엄한 공식적인 서임식입니다. 성부께서 그분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라고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삼십 년 동안 이 명령을 기다리시면서 조용히 머무셨습니다. 오늘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르시며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내리십니다.

2.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모가 응답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그 자신이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종종 성서 안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미사에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늘 성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본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에 밝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기가 넘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3.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 날부터 하느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태어나므로 두 번째 생일인 셈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물은 정화의 표시이며 특히 생명의 표시입니다. 높은 산에서 폭포로 떨어지는 물은 젊음의 표시이듯 세례의 물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새 젊음을 주기에 날마다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바짝 마른 광야에는 모래뿐이지만 거기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고 즐거움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4. 세례 때 예수께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을 받으셨음은 이제부터 예수께서 늘 하느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본뜻대로 행동합니다. 상인은 상인처럼 생각하듯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께서는 언제나 성부의 영에 따라 행동하셨습니

다. 우리 역시 세례 때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우리 이마에 기름을 바를 때 그리스도의 이 기름은 깊숙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5. 세례 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세례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 너는 나를 도와 죄와 맞서 싸우겠느냐? 너는 나를 도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겠느냐? 나는 빛이니라. 너는 너의 좋은 표양과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명하지 않겠느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맹인들을 고쳐주고 포로 된 사람들,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러 왔다. 너도 네가 사는 장소에서 정의와 형제애와 평화의 누룩이 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수녀 여러분, 잘 목상해 보십시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세례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책임지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재의 수요일

여러분은 오늘의 독서를 들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요엘,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서기 500-6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서를 쓸 무렵, 이스라엘에는 대홍년이 들었습니다. 밀이며 포도며 올리브며 그 무엇 하나 짝이 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밀가루며 포도주며 기름이 있을 리 없고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메뚜기떼가 몰려와 그나마 있는 곡식마저 다 먹어치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재난은 곧 하느님이 벌하신 것이므로, 요엘은 유대인들에게 전 공동체가 참여하여 공동참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회의식으로 3가지를 행하는데, 옷을 찢고 자루를 뒤집어쓰고 땅에 재를 뿌립니다. 한국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아들은 찢어진 옷이나 자루로 된 옷을 입죠.

그래서 요엘은, 노인이든 어린 아이이든 신혼부부든 사제든, 모두에게 통회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는 한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 공동의 죄요, 단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통회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통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죄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죄의 위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은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속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느님의 증거자가 되었으니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반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나쁜 행동과 나쁜 표양을 본다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며 비웃고 하느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리스도 신자는 하느님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미사예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인이 아닌가, 마음 깊이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와 싸우십시오. 이것은 세상 끝 날까지 걸리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겸손하게 단식, 고행, 기도, 고해로써 그리고 저마다의 노력으로써 싸우십시오.

둘째, 우리는 하느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공부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로운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복수하시는 분이기보다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사순절 동안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가르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통회는 습관적인 죄를 물리치는 싸움과 하느님을 향한 귀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이 세 가지가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재의 수요일

(1967, 1974, 1980년)

에리고의 문전에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걸인이 있었습니다. 그 걸인이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니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자 그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며 외쳤습니다.

오늘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바르티메오처럼 이 기회를 이용합시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칩시다. 온 세계에서 교회는 커가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와 환호성을 올립니다. 전 세계가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이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즉시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만, 교회에게 돈은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의 조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각 나라의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교회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때문일까요? 물론 문화란 훌륭한 것입니다만, 교회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행과 보속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다져야 합니다. 교회는 돌, 반석(베드로) 위에 지어졌으며, 자기를 끊어버리고 극기, 희생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끊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오히려 생명을 구하리라.”

예수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지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들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 지기를 자청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나 희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은 강화될 것이며 기쁨이 커질 것이며 여러분은 하느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사순절 감사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속으로써 악습을 누르시고 마음을 들어 높이 시며 덕행을 키우고 상급을 베푸시나이다.” 보속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성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태평양 어느 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병으로 여러 해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두 눈은 없어졌고 고름이 두 구멍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병이 고맙기만 합니다.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본당의 수녀님들이 와 계십니다. 수녀님들은 추우나 더우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초상난 집을 찾아가 돕고 연도를 바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며 전교를 합니다. 병자를 간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 많은 희생을 바치는 수녀님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녀님들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수녀님들 자신의 영혼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본당 또한 약해질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부자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순절에 지켜야 할 규칙은 단식입니다. 단식은 사순절 첫날인 오늘과 마지막날인 성금요일, 이 두 번만 지키면 됩니다. 금요일의 금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규칙이 관대해진 이유는 열의가 식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어른인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통회하도록 말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이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당신 뜻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교회 역시 여러분에게 “통회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명하십시오. 좀더 용기 있게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살아 있고 거룩해지는 원천이며,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사랑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특히 봉사와 극기, 희생 속에 나타납니다.

재의 수요일
(1970년)

오늘 미사 중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입당송에서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아, 기뻐 용약하여라”, 독서에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였고, 그로 인해 유다인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합니다. 시편에서 “유배 중에 있는 유다인들아,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 때 ‘영원한 생명’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체송에서,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안이 조밀하게 짜여졌도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의미로 ‘도시’를 뜻하며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듯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소도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작은 민족, 이는 하느님의 큰 백성이며 세례 받은 자들의 모상이고 교회의 백성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상징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례상으로는 ‘예루살렘’은 ‘하늘’, ‘하느님의 백성’, ‘교회’를 뜻합니다.

미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대 백성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민족은 그들에게서 구세주가 나시기로 예언된 각별히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죄를 짓고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그 민족을 벌하신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한 이방인 왕인,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냈습니다. 그 왕은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보물들을 허물고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지옥이라 부르고 사탄의 왕국이라 불렀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을까 염려하여 그토록 선하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제키엘, 이사야, 다니엘... 이 예언자들은 바빌론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음으로 죄를 갚았습니다. 그 유명한 토비트, 다니엘, 에스델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인들의 왕 고레스가 그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귀환 길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미사의 입당송입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아, 기뻐 용약하여라.”

수녀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살 권리를 잃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 정신 안에서 생활한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면 곧 며칠 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부활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들어올려져야만 합니다. 마치 옛날에 사막에서 모세가 뱀을 일으켜 세워 그것을 바라보는 모두가 치유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즉 천국과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곧 교회이며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집트를 떠난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애 동안 사막보다 더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많은 이 지상의 사막을 건너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약속된 땅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덕분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 약속된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권세 그리고 안락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가련한 생각입니다. 또한 너무나 슬픈 양식이 되어 우리

는 굶주림에 죽을 것입니다.

성체는 더없이 훌륭한 양식입니다. 이는 살아 있는 빵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빵이며 예루살렘의 양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지나가는 것들을,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것들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의 수녀님들,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히 감사받으셔야 합니다. 뒤는 돌아보지 말고 즐거워합시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아, 기뻐 용약하여라.”

제의 수요일 후 목요일

오늘 교황은 성 요지에서 미사를 거행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히즈키야 왕과 한 백인 대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단식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희생을 해야 하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사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유대인이며 국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이며 병사입니다. 왜 하느님은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 중 하나에게 15년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의 종을 낮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 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강한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는 하느님께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려면 우선 열쇠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이 잠겨 있는 집과 같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닌 아름다운 자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위력을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나, 죄인은 그 반대로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귀기울이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합시다.

히즈키야처럼 “주님, 비오니,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거닐며 주님 눈에 드시는 일을 행하였는지 생각하소서”, 백인대장처럼 “주님, 제 종이 반신 불구로 집에 누워 심하게 앓고 있나이다”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종인 제가 앓아 누웠나이다. 제 죄와 무지와 제 육신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하느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는 내 소리 들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셨도다. 모든 시대에 앞서 계시고 또한 영원히 계신 주는 그들을 낮추셨도다.”

“내 근심 주께 맡길지니 주는 나를 기르시도다.”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리나이다. 나의 하느님, 주께 의탁하오니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 바라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재의 수요일 후 금요일

오늘 로마에서는 교황님이 성 요한과 성 바오로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실 것입니다.

성 요한과 성 바오로를 기념하는 이유는 두 분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자비의 표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성인의 집은 순례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숙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특히 사랑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단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도와줌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였는지를 특별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단식은 굶주린 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신자들이 한 끼를 굶고 그 식비를 모아 가난한 나라에 보내거나 본당 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산다면,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서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들의 원수를 사랑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죄인인, 그래서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시다. 여러분은 이곳 홍산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덥고 미소를 보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물며 원수도 사랑하여야만 할진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나 복수의 감정 없이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 후 토요일

오늘 미사의 의미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의 핵심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다. 안심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아이는 평안합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곁에 있는데도 그 아이가 의심하고 무서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들 곁에 계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는 모든 의심과 걱정을 버립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아이처럼 평화롭게 머무릅시다.

요즘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거듭 말합니다. 병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어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저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의심하지 마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어 눈처럼 희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사도가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순 제2주일

(1972년)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싸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온 생애를 통해 우리들 마음에서, 또 이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행동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생과 부활의 목적도 오로지 이것인데, 마귀를 몰아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이 다시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귀와 싸우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리이러하게 하라고 일러주시기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던 날처럼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라는 공적 책임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아, 너희에게 다시 내 자녀가 되는 길을 주노니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이 너희에게 그 길을 일러줄 터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행을 자초할 것이니...”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느님을 경멸하는 것이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큰 사람들은 부모님이건 스승이건 왕이건 아랫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랫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무한히 크신 하느님이야 어떻겠습니까?

교회나 세미나, 강론집 그리고 여러 책들과 기도들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경’ 혹은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말씀이니,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말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 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또한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법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 당연히 그 편지를 읽죠. 어떤 때는 읽고 또 읽습니다. 성서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느님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읽고 공부해야겠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고 싶습니까? 하느님 곁입니까? 아니면 마귀 곁입니까?” 하느님 곁에 있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으니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선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성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를 3번이나 물리쳤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미사는 두 부분으로 명백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즉 말씀의 전례 부분과 성찬의 전례 부분입니다. 우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말씀의 전례)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몸을 먹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루가 11,27)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의 효력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되었습

니다. 또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니, 빵이 그분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어찌나 중요한지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서 모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쳐라. 지붕 위에서 설교해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의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음은 너희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잘못 전달될까 우려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너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지난 주일에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귀를 쫓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몰아냅니까?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것만이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증거할 것이다.”

“너희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은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루가 11,42).

사순 제3주일

사순 첫 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싸움을 선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가거라, 사탄아!” 그리하여 온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역시 사탄과 싸움 중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우리 불행의 씨가 되는 이 사탄을 우리 영혼에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로부터 추방하고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순 제2주일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가 이르는 대로 행하여라.”

오늘, 사순 제3주일을 맞는 교회는 우리에게 그 싸움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상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들을 측은히 여겨 사탄과 맞서 싸우는 예수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첫 대목에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한 마귀를 쫓아내셨으니 이는 병어리 마귀이다. 이를 쫓아내니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마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병어리는 장님이든 귀머거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몇 마디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눈 먼 장님이었는데 보게 되었고, 병어리였는데 말을 하게 되었고, 귀머거리였는데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붙어 있던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은 분명 무척이나 불행한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안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실상,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죄인들도 영혼이 멀었으니 눈먼 장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피조물들 안에, 온갖 세상사 가운데 어디에서나 하느님은 현존하고 계신데 그들은 마귀 때문에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도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지옥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황, 그리고 주교가 전하는 좋은 말들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도 수호천사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악인들의 말에는 기꺼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병어리입니다. 과연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며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직 무에서 끄집어낸 피조물들과 말할 뿐이니 이는 진정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창조주와 함께 말하는 것, 이것만이 진실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 외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한테도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니, 이는 또한 냉담한 그리스도 신자들의 죄이기도 하며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귀에 들렸습니다. 돈의 마귀, 음란의 마귀, 교만의 마귀 그리고 게으름의 마귀에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참으로 불행했고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순 기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분께 우리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순절 동안 이 네 가지 기적은 종종 거듭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죄를 고해하는 이들에게는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죄 고백으로 죄인의 마음 안에서 마귀는 쫓겨나고, 그리하여 그는 신앙의 빛을 받아 다시 하늘과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다시 말하고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1. 하느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알기 시작합니다.
2. 하느님께 찬미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며 그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병사처럼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저 벼농사나 장사나 직책의 의무에만 힘쓴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싸워서 마귀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어리로,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생의 끝 날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도 아니요, 농작

물도 아니요, 여러분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가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싸워야 함은 단지 우리 자신이 하느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매순간 기도하고 말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밝혀 주어야만 합니다.

병어리 신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위를 밝히지 못하는 빛은 검은 빛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신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는지 다시 한 번 봅시다. 그분은 고통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비록 인간들은 그분을 모욕할 지라도 그분은 모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고 계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다운 지도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거스르는 자요, 또 나와 함께 거두지 아니하는 자는 흠어버리는 자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느님의 나라가 정녕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용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기서 마귀와 싸웁시다. 말로써, 모범적인 행동으로써, 기도로써 교회를 도웁시다.

성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암흑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 있기에 광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거닐어라. 빛의 열매는 완전한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라.”

사순 제3주일
(1968, 1971년)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복음에는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특별히 기억해 두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며, 나와 함께 거두지 아니하는 자는 흠어버리는 자이다.”

예수님의 지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 a. 사도들, 제자들, 호의적인 군중
- b. 증오에 찬 바리사이파들, 교만한 자들, 예수를 거부하며 모욕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
- c. 무관심한 사람들, 중간에서 결단성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넌 사람들은 특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성 베드로처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들 모두 역시 영세 때에 직접적으로든 혹은 대부나 대모를 통해서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충실히 머무릅시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며 그들 안에 거룩한 은총을 간직하려 최선을 다하고, 성 요셉처럼 죄인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님 대전에 그와 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순종하며 어디서나 항상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의 참다운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상 하느님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길 “하느님의 법을 늘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과 행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 진실로 이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당 신부처럼 말이죠.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2. 예수님께 어긋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수난 때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자를 왕으로 모시는걸 원치 않는다.” 헤로데, 빌라도, 네로, 대원군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반대하고 교회를 없애려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법입니다.

세례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냉담자와 배교자들, 그들은 친구나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처럼 예수님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후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벌하실는지요!

예수님의 적들 중에는,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술과 노름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게으르고 약해서 신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 신자임을 부끄러워하고 영성체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 있는 자와 같이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일뿐이다.”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병어리 마귀가 있어 예수님에 대해 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며 자녀들과 친구들을 가르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 기꺼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물질적 피조물인 돈과 먹을 것, 입을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적(敵)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제인데도 말입니다. 한 형제가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불행이니, 불행한 형제를 돕지 않음은 예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라고 성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불구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이라

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반대편에 있다면, 이방인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예언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그와 같이 달리 즐기겠는가.”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보상이 그들을 기다리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생활이 미련한 것인 줄 알지만 보라, 그들이 오늘 하느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도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불행을 알리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를, 나 또한 하느님 앞에서 저를 모른다 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나 또한 하느님 앞에서 저들을 증거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물러들 가라.”

이 사순시기부터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서 잘 살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빕니다. 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사순 제3주일

(1969년)

죄로의 재추락

마귀의 말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나보다 더 악한 마귀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으니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통회나 고해로 마귀를 몰아낸 후에도 그 영혼은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영혼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갖은 수작을 다 부려서 그 피해는 전 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활절을 전후하여 흔히 일어납니다. 부활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성체를 모시고 마귀를 쫓아 버리게 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에 떨어지고 맙니다. 마치 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말입니다! 성 예로니모는 “시작하는 사람은 많으나 끈기 있게 남은 사람은 조금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어른처럼 행하십시오. 만일 다시 일어난 뒤에 우리가 같은 죄에 또 쉽사리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1. 만일 쉽게 다시 넘어진다면 부활절의 우리 고해는 불경된 고해가 아니겠습니까? 고해를 했어도 그 고해는 무효가 아닙니까? 누가 이러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2. 다시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친교와 영혼의 평화와 완전한 은총을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전보다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굉장히 강한 힘을 지녔고 매번 싸움에서 불레셋인을 이겼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도 싸움에서 여전히 이겼고, 또 죄를 짓고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세 번째에도, “이번에도 내 이기리라” 하고 의기 양양했으나 그는 패하고 말았고 불레셋인

들이 그의 눈을 빼고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죄에 다시 떨어진 사람들은, “내 새로운 마음으로 고해하리라”고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기를 갈망한다구요? 하느님께서 늘 인내하시리라 생각합니까?

3. 다시 죄를 지으면 회개는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과 아편 중독자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4.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은 점점 더 수치스러움을 느껴 감히 용서를 청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머거리가 됩니다.

5. 다시 죄를 지으면 마귀는 기뻐 날뛰며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꼭 붙들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이 죄인이 하느님을 믿고 있음을 아는지라, 마치 하와 앞에서 그러했듯이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괜찮다, 해라.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를 보면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 사람이 죄를 짓게 한 후, 마귀는 하느님의 정의를 들먹입니다. “네 죄는 너무 커서 하느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죄인은 아우를 죽인 카인처럼,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처럼, “나의 죄는 너무 커서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할 것입니다.

죄 짓기를 되풀이하면,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다른 일곱 마귀를 데리고 오니,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마태 12,45).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잘 묵상하십시오. 다시 떨어지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두려워하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죄를 범하라.” 마귀의 이 말은 마치 어떤 이가 당신에게 “딱 한 번만 네 목을 베어보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들 앞에서 기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심하여 경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며 용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순 기간 더욱더 기도하시고 회생과 애궁과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많이 정화하십시오.

사순 제4주일

(다해)

탕자

이 비유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자비의 하느님을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 고해성사를 앞두고 신자들에게 좋은 묵상거리가 됩니다.

자,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의 몫을 요구해 받고는 멀리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느님이며, 은혜를 모르는 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순수한 사람이라면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혹에 굴복하여 아버지의 집에 진력이 나는 겁니다. 종교, 기도, 덕행에 진력이 나서 아버지의 집에선 찾을 수 없는 다른

쾌락을 좇아 하나님께 청합니다. “내 몫의 재산, 내 영혼, 내 육신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한마디 말없이 모든 것을 그에게 내주고 떠나도록 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억지로 붙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당신 품을 떠나 멀리 가면 오로지 파멸과 실패뿐이라는 것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아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임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죄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재산이 써도 써도 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재산을 잃고 은총과 덕행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제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돼지를 쳐야 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어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의 먹이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전략입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과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역시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냉담해지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교인 친구들이 착합니까? 여러분의 말과 대화가 돼지의 먹이와 뭐가 다른니까? 이와는 반대로 선하고 열심한 그리스도 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체를 영하며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행복합니다. 탕자가 그랬듯이 이제 여러분도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과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 들이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날마다 뒷동산에 올라가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다가 슬픔에 젖어 돌아옵니다. 아들 생각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처럼 먼 곳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그만 기쁨에 몸을 떨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누더기 차림의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청년으로 되돌아간 듯이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려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즉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며 하인들에게 잔치를 벌이라고 명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와 같이 죄인일지라도 고해를 통해 회개하면 새로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 죄인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믿게끔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버지 말입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아버지라 해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만일 세상 아버지들이 모두가 이렇게 처신한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사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엔 장남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장남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제게는 친구와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바리사이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고 있구나”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투덜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큰아들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용서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투덜거림에 대한 대답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한 횃수에 따라 이에 맞갖은 보상을 원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느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을 주시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느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이전에 자비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정함을 넘어 자비로우심을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느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상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 역시 예수님께 갑니다. 왜냐하면 성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하느님의 백성이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단체이지,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강한 자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아주 가끔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무엇을 고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진실한 신자는, 진실한 수도자는 둘째 아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주 고해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첫째 아들이나 바리사이파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들이나 세리들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미사 동안 진실로 계시는 주님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순 제4주일
(1965, 1968년)

성체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큰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성체의 상징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매일 제단에서 이 빵을 증가시킵니다. 부활축일이 가까이 다가오므로 교회는 모두에게 이 축일을 준비하고 부활 성체를 잘 모시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성체를 가르치시기에 앞서 사도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장차 사도들은 이 빵처럼 성체를 분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체를 가르쳐 주신 분은 분명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는 4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26,26-30), 마르코 복음(14,22-26), 루가 복음(22,19-21), 성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1서(11,23-27)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 복음은 성체성사 후의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미사를 거행하던 때부터 교회는 늘 성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성체성사는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느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전능하십니다. 이보다 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창조도 성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풍요로운 분이시고, 이보다 더 큰 풍요로움은 없을 겁니다. 성체는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상에 연민을 주고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을 줍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뵈옵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언하셨기에 내 육안의 눈으로 뵈옵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을 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체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천상의 빵’, ‘천사들의 빵’, ‘살아 있는 빵’, ‘거룩한 잔치’, ‘거룩한 희생’, ‘성체’, ‘노자성체’(임종 때 받는 성체).

우리 모두는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천국에 가기 위해 성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체를 영하지 않는 신자는 진실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이는 예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 안에서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시라고 권하시는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니,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체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상 낙원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이 지상 낙원에서 추방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빵’으로서 성체의 상징입니다. 지상 낙원에는 또한 모든 나무를 적셔주던 큰 강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큰 강이 흐릅니다. 성작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영혼을 적셔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인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빵과 포도주의 제물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희생양이며 양식이 되어 주었던 유월절의 어린양은 자기의 피로 (만이름) 죽이려 했던 천사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다인들은 사막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들을 살도록 했던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성체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 하느님께서 늘 성체에 대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노래하기를, “이때에는 내 백성들이 내 체대에 위에 감사하는 희생을 많이 두어 드리리이다.” 그는 이미 미사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빵)에서 태어나실 때 이미 성체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실 때,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첫 기적이며 또한 그 포도주가 그분의 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분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두 번째로 성체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자주 성체에 대해 생각하시고 성체를 영하십시오. 자주 예수님을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이 모시는 성체가 거룩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교회의 뜻에 따라 부활절 영성체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곤 했던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으리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게 깨끗한 제물을 올릴 것이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971년)

부활절 고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보고 죄 없다고 증거를 대겠느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감히, 나는 죄가 없으니 고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 며칠간 부활절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고해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곳에는 고해 성사를 보지 않는 신자가 거의 없지만, 그 몇몇 신자를 위해 부활절 고해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고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무관심한 신자, 게으른 신자, 나쁜 신자들입니다.

1. 무관심한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a.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이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일 미사를 거르는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은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신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왜 죽음을, 심판을, 지옥을 겁내겠습니까? 자, 이 유혹을 물리칩시다.

하느님은 정의롭기보다 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b.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지를 염려하십시오. 내가 고해한다면 혹은 내가 고해를 안 한다면 이 점을 두고 당신은 고민해야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골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해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다른 이들이라고 당신을 무시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사람의 아들도 영광에 싸여 올 때 하느님과 모든 천신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c.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죽인 적은 없습니까? 나쁜 본보기로, 침묵으로, 당신 친구의 영혼에, 당신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단 말입니까? 살인이나 도둑질 이외에도 다른 죄들이 있습니다. 미움, 욕망, 부당함, 생각과 말과

행위에 의한 불순의 죄들이 있습니다. 신분상의 의무를 다했고 돈도 썼습니까? 그럼 당신의 기도는? 외양만 볼 줄 아는 인간들 앞에서는 아마도 아무 죄도 없어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내부를 들여다 보십니다.

d. “고해성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만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마치 병자가 “의사를 본들 무슨 소용 있나?” 하는 것과 같고, 또 가정 주부가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는 해서 뭐하나, 또 더러워질텐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당신이 판단하려는 겁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준수할 것입니까? 고해 성사는 하느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익과 평화를 얻는지, 마귀는 분해서 날뿔 겁니다. 오셔서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맛보십시오!

2. 게으른 신자들, 이들은 고해하길 원하지만 늘 다음으로 미룹니다.

a. “나는 시간이 없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요? 당신은 병든 몸을 돌보고 가족과 받을 돌보고 또 놀 시간은 있으면서 당신 영혼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없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쌓은 재물은 모두 무덤 앞에 놓고 갑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을지라도 네 영혼이 해를 얻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b. “서두를 필요가 없다. 후에 내 고해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매일 잘못을 저지르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기다려 주실까요? 더군다나 죄 때문에 하느님과 점점 멀어져서 당신은 아무 것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만일 병이라도 든다면 고해를 잘 볼 수 있는 맑은 정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c. “내가 감히...” 당신은 무얼 겁냅니까? 하느님을요? 맏소사, 그분은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이신데요... 사제를요? 그는 비밀을 지키고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시 아버지와 같습니다.

d. “다른 사람이 고해하러 갈 때 나도 가리라.” 고해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구실이 못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중죄나 자살을 범한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하겠습니까? 고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범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고해할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3. 나쁜 신자들.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고해하지 않습니다.

a. “나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나쁜 습관도 버리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은 마치 유다와 같고 일부 유대인과도 같습니다. 가련한 자들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지옥을 보고 당신을 밝혀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하십시오.

b. “만일 내가 고해하면 모든 걸 제자리에 반환해야 할텐데.” 물론입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기 위해선 훔친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하십시오. 반환하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조금의 물질 때문에 지옥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까?

c.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유다나 카인처럼 당신도 하느님이 자비하시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에게 가장 큰 모욕은 그분의 자비를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죄라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이 유혹에 귀기울이지 말고 부활절

전에 참된 고해를 하시고 선행으로 속죄하면 다시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와 즐거움 안에서 건강해지고 생명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d. “죽을 때에 회개하라.” 이것 역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이 고해를 원할지, 당신이 고해를 할 수 있을지, 당신에게 그 은총이 주어질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바로 그 시각은 얼마나 힘든 시간일텐데요. 참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청하오니, 제발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회개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부활을 앞두고 고해를 받게 될 여기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다시 착하게 되고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971, 1974년)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며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모였던 군중, 당나귀, 심지어 새끼 나귀까지도 하느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느님의 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원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어떤지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1. 하느님의 원의

예수께서 3년 동안 온 유다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선행을 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째서 오늘은 개선의 요란한 환영을 원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진실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당신이 다윗 자손이며, 당신의 왕국은 통상적인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 또 예수님께서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를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과 당신이 정하신 날과 시각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제자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또 다른 의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무한하시므로 그것을 끊임없이 길게 설명한다 해도 언제나 부족할 따름입니다.

2.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큰 축제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에는 단순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와 땅에 나뭇가지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깔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 왕, 높은 데에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닷새 후 마음이 변하여 “죽이시오!” 하고 외쳤으며, 비록 십자가형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위해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고 놀라서 “도대체 이 새 왕은 누구며, 왜 저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것일까?” 하며 의아해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의 큰 기적에 대해 이미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일과 장사와 농사에 너무나 골몰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이 무서워 그리스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사이파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사제들입니다. 증오와 질투에 가득 찬 그들은 예수님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어떤 환영을 안겨드리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처럼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경멸하실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여전히 거절할 것입니까? 나쁜 표양을 보임으로써, 교회를 비하하는 말로써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공박할 것입니까? 장사를 해야 하기에 공장과 사무실에 나가 일해야 하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체할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야파, 유다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베로니카처럼 용감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인자하신 내 왕이 내게 오신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이 다음 주가 되면 금세 “십자가형에 처하시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영성체를 하고 그리스도께 승리의 영광을 드리고는 며칠 지나서 또 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일미사에 빠지고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나쁜 표양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리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금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으로 오시니 그분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충실히 한다면 우리가 천상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하느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원하며 이것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972, 1981년)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길 권고합니다. 교회도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 년간의 모든 전례는 부활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부활축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듯 그리스도는 열심한 신자의 표

상이며 따라서 수도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강생 후에, 아니 강생과 동시에 사람의 육신과 하나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방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주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특히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셨고 침묵을 지키셨으며 용서하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수난 기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올리브 동산에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는 앞으로 당하실 고통과 모욕과 망신과 많은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근심과 번민에 싸여 “내 마음이 죽도록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엎드리시어 기도하셨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소서” 하고 몇 번이나 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갇혀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것이며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사도들과 이교인들의 영혼을 위해 많은 공로가 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묵묵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도다.” 모욕받고 멸시받고 음모와 고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겸손과 인내로써 그분은 조용히 고통받으셨고 마치 진짜 죄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으시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시지 않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다운 표양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무시당한다고 또 장상이 나를 칭찬 해주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작은 인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성인들과 모든 순교자들은 오로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 아버지 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기간 동안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배반한 유다를 사랑하시어 그가 용서받기를 갈망하셨습니다. “벗아, 너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또 그분은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몸을 돌리시고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당신을 못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그토록 자주 그분을 못박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수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 안에 머물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겸손과 인내와 온순함과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견디어 냅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갈바리아에서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계속 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하나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977년)

오늘부터 우리는 성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간을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살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미사는 계속되는 십자가의 성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지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군중은 예수님을 환호하였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잘 이해하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미워하던 로마 사람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영혼의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세상은 변화되었기에 우리 역시 물질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은 영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1. 세상이 물질적으로 변화되기에 우리 역시 물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렇게 구분 짓듯이 교회의 역사도 아담 시대,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중세기, 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더니 작년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훌륭한 발전입니다. 이로써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 밖까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세상은 특히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나라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후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함께 살라고 권하시는데, 이것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자기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매번 죄를 짓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색, 질투, 교만, 미움, 게으름이 모든 죄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것은 모두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즉 지금은 자기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며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또 필요하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은 달나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3. 물론 물질적인 발전과 영적인 발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몇 가지 생각만 말해 봅시다. 우리 시대의 물질적인 변화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어 일어나는 변화이기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작업이고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개인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축성된 성지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속 깊이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도 당신을 환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필요한 예절에 불과하고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분을 믿으면, 진실로 그분께 순명하기를 원하면, 이는 충만한 생각이 깃든 아름다운 예절이 될 것입니다. 이 성지는 믿음과 기쁨, 승리,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성지를 받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 홀로 저의 왕이시며 저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지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신 첫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이야말로 오로지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봉헌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처럼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980년)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사가가 모두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는 루가 복음을 묵상합니다. 루가 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주목됩니다.

1. 다른 복음사가들처럼 루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그는 진정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었고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은 마귀로부터 온 최악의 유혹입니다. 예수께서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루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루가 4,13). 노렸던 기회 때가 오자 마귀는 다시 와서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루가 22,3).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건드렸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루가 22,31). 아담 시대에는 마귀가 지상낙원의

로 들어왔으나 오늘날 마귀는 계셰마니 동산에 들어와 두 번째 아담을 유혹하려고 애씁니다. 예수께서 심한 번민에 휩싸이고(루가 22,43), 루가 복음사가는 그분의 마지막 투쟁에 대해서 적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루가 22,53).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셰마니 동산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내기에 건 장구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제 사탄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2. 예수님으로서는 이 수난 기간이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그분이 취하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루가 복음사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기는 무엇보다도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번민에 빠진 그분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어 피 땀이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무기는 온 생애 동안 닳도록 쓰신 관대한 마음과 끝까지 착하신 마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수난기에는 예수께서 홀로 떨어져 고독하게 수난을 당하셨으나, 루가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유다를 맞아들이시고, 베드로가 칼로 쳐 상처입힌 대사제의 종의 귀를 고쳐 주셨으며,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돌아보셨고, 슬퍼하는 부인들에게 말씀의 건네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선하심에 감동받은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루가 복음에서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 한마디 포기의 외침이었는데 그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의탁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가 23, 46).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군중과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빈정거리는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지 않고 그저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마침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루가 복음사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십시오! 그분을 죽인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3.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며,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루가복음에 비추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고발자들의 모든 논증을 듣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였습니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심문을 했는데도 나는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죄상도 찾지 못하였다.” 갈릴래아의 왕인 헤로데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그분의 무죄함을 암암리에 인정했습니다. 여러 부인들이 그분의 무죄함을 외치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나무야 오죽하겠느냐?” 죄수가 어떤 건지를 아는 우도도 한마디 합니다. “우리야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던 말이냐?”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가 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군중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루가 복음사가에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수난은 대비극이었고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은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비극에 참여하여 매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루가 9,23).

성목요일
(1967, 1975년)

사제직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남에게 이를 행하여 모범을 보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우십니다.

사제란 무엇입니까?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사제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만이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참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며 중재자로 남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위대한 방법을 창안하셨으니, 그것이 곧 성체와 사제직입니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 은혜를 베푸셨으니, 당신의 몸과 사제직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고 이 예를 행하여라.” 진실로 이 성목요일은 우리 사람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중대한 날입니다.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 새 사제들에게 두 계명을 주시니, 성체를 거행할 것과 성체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1. 사제는 성체를 거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가 사제품을 줄 때,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권한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하여 미사 드리는 권한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성목요일 저녁, 예수께서 빵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셨듯이 사제는 제대 위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느 성인께서 말하기를 “하느님은 두 가지 경이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리아와 사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슴 안에 내려오셨는데 오늘날에는 사제를 통해 빵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려오게 했던 적은 단 한 번뿐이었으나 사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내려오게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했다 때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사제가 때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곧 내려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제는 위대합니다! 이에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신자들, 심지어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슬픈지요. 요한 비안네 성인은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이 되어야 한다! 미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죽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제단에 선 사제는 곧 하느님이니 너무나도 위대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몸이다.”

이 경이로운 일이 제정된 날이 바로 오늘, 성목요일입니다. 마치 저물지 않는 하루처럼 성목요일은 매일 되풀이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 기적이 계속되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

고 그분은 참으로 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 사제는 성체를 분배합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주셨듯이 사제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내줍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사를 제정하실 때 그분은 빵의 형태로 그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에게 가시고 싶어서 모든 이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병자, “다 내게 오너라” 하시며 초대하십니다.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하시고 간청하시며 위협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 모든 이가 이를 받아먹고 마셔라” 하셨습니다.

사제는 성체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사제의 의무는

첫째, 교우들에게 영성체 할 의무를 상기시키고 하느님의 뜻을 되풀이하여 전해야 하며 교회 법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과 교회의 갈망을 설명해 주어 교우들에게 성체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제는 분별 있게 성체를 주어야만 합니다. 성체는 아무한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교우들을 준비시키고 교육하고 시험을 치러 성체를 준비시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성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제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체와 사제직의 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시오. 사제가 없으면 성체도 없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없고 영성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빈집이 될 것이며 개신교 교회당처럼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늘 거룩한 사제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제가 거룩하다면 우리의 가정, 마을, 우리의 나라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한 나라의 가치는 그 나라의 사제들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기차나 비행기 같은 기계가 아니고 문화는 곧 마음이며, 영혼이므로 이 마음과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목요일

(1972, 1981년)

사도 시대 초기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겨우 삼 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대리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목요일에 걸맞는 영성체를 하도록 준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 중에서 열한 사도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것처럼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격 없는 한 제자는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요한 13,10)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한 사도는 훌륭한 영성체를 했으나 한 사람은 모령성체를 했습니다.

오늘 이 모령성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영성체 전과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영성체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깨끗한 양심을 지니며 큰 잘못 없이 작은 잘못들만 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발만 씻겨 주셨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모두가 깨끗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나쁜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라는 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했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도 영성체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큰 죄를 지닌 채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유다의 죄를 다시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만일 영성체 전에 우리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만족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영혼에 죄가 묻어 있다면 영성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도들이 영성체했습니다. 유다 역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릅니까?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영성체 후에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사도들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훗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았던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불타오르듯이 열심한 사람들도 역시 사랑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유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그분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유다 안에 마귀가 있기에 예수님으로서는 사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유다만이 그 말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우셨고 마지막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에게 “너는 감히 모령성체를 했으니 어서 가서 또 다른 죄를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궁전 안으로 내려오시거나 끔찍한 감옥 안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수많은 은총과 함께 오시거나 다시 우리 안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탄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령성체한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성체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며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같은 시간에 유다는 무시무시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으시오.” 이 시간 유다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의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들을 잘 본받기만 한다면 우리 생애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 특히 우리는 영원을 위한 보물을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라도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듯이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잊고 도망칩니다. 올리브 동산에 예수님 혼자 사형수들 사이에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잠시 용기를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사랑이라도 남아 있으면 즉시 통회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유다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의 통회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통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통회이며 자연적인 통회이지 초성적인 통회는 아닙니다.

수녀들이여! 우리 역시 영성체를 하고도 사도들처럼 유혹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회를 본받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약하더라도 용기 있게 새로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복된 오늘, 여러분들은 곧 영성체를 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사제인 저에게 성체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간직하시고 죄 짓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영성체 후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소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현실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목요일
(1977년)

오늘 요한 복음은 특별히 첫 구절이 감동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당신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주셨다.”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섬김’이란 말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행위를 그분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기 바로 전에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이 우정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흔히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식사 초대와 봉사 혹은 도움과 그리고 현존(같이 있음)으로써 표시합니다. 성체는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1. 우정은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표현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특히 이 식탁입니다. 성목요일은 무엇보다도 만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크신 사랑으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드신 후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성 바오로는 서간문에서 미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전통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미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미사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되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미사는 식사로써 우정을 표시합니다.

2. 우정은 또한 봉헌의 행위로써 나타납니다. 진실한 사랑은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자신을 잇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서로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벗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잘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축성의 이 한마디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이니라.” 성체는 십자가와 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그분의 몸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미사는 봉헌식부터 영성체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계속되는 십자가의 희생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의 봉헌, 그것이 우정의 표시입니다.

3. 우정은 현존(같이 있음)으로써 표현됩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이 한가한 시간에도 곁에 있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합니다. 또 장사를 하는 엄마의 자녀들은 “엄마는 한 번도 우리와 같이 있지도 않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적도 없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가운데 같이 계시는 놀라운 방법을 창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시어 미사 동안에도 미사 후에도 모든 성당 안에서, 모든 감실 안에서 축성된 성체가 모셔진 곳이면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게 말할 수 있으며 또 그분께 도움과 빛을 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사랑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식사와 봉사와 현존으로써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식사와 봉사와 현존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제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날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제직, 즉 신품성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은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표시하십니다. 오늘 저녁 각별히 성체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지향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한데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성격은 서로 달라도 서로 형제임을 느끼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제들의 근본적인 소명은 바로 성체의 봉사입니다. 사제들은 예수님의 몸과 말씀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모든 사제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제가 되도록, 모범적인 사제가 되도록, 역동적인 사제가 되도록 저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성목요일
(1978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은 당신의 사제권과 성체를,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선언하시며 또 당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예수님의 어떤 행위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마치 폭탄이 폭발하듯 너무나 뜻밖이고,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늘 사랑의 행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날 밤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완성하셨으니, 겸손과 사랑에 넘친 표시로서 당신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은 이에 어찌나 놀랐던지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당신 제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다인의 무교절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방 바닥엔 자리를 깔아놓았고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 잔들, 구운 양고기, 쓴 나물...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의 준비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제자들은 겸손하지 못하여 그들끼리 아직 형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도 그토록 중요한 바로 그 시간에 사도들은 서로 다툽니다. 예식의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 수도원들 안에서 여전히 이와 비슷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말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귀에 거슬리는 몇 마디 말들도 들으십니다.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모든 야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권력의 실행은 바로 봉사라고 하십니다.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기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빵 다섯 개로 군중을 먹이신 일, 지방 전교를 순회하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쉬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3.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한 손에 대야를 들고 다른 손으로 물병을 집어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가시어 무릎을 꿇고 차례로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심기가 불편하여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시렵

니까? 싫습니다” 하고 사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빵 한 조각 속에 담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종과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심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시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를 떠올리시고 “너희들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어안이 병병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똑같은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살라고, 이웃들과 형제처럼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온갖 교만함을 끊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앞에서 교회는, 즉 주교, 사제, 수도자, 열심한 교우들 모두는 종처럼, 가난한 자처럼 보여야 합니다. 양반과 같은 정신은 예수 제자의 정신과 반대됩니다.

4. 우리 모두 겸손되어 교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같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고,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다고,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거절합니다. 수도자들 중에서도 이웃이나 동료,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월절을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체를 영하기 전에 영혼을 정화시켜야 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겸손하여 그들끼리 형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형제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우리가 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각별히 오늘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안에 겸손과 봉사의 뜻과 형제다운 도움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청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멘.

성금요일
(1977년)

마리아, 공동 구속자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수난에 대해서도 묵상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규칙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고통받으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실 때 여관에서 거절당하여 결국 외양간을 택해야 했습니다. 예언자 시메온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찢리듯 아플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들어야 했고, 당시의 유대인 권력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수난에 온전히 함께 하시어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성 요한은 증인 기록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과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과 세 시간 동안 임종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이 분이 너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영보 때부터 우리는 마리아가 온 인류의 어머니 되심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더욱 더 기쁨 뿐입니다.

마리아 안에는 두 모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적인 모성과 온 인류의 영적인 모성이 그것입니다. 이 두 모성은 성령을 받아들임의 작품입니다.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이 모성은 즉시 구체화되어 한 범죄자가 마리아의 모성의 은총을 입어 구원됩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시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당신의 첫 번째 큰 기쁨을 체험하시니, 그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되어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강도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 회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회개인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찌릅니다. 재판관은 시체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부모 친구들에게 시체를 내어 줍니다. 마리아는 한동안 예수님의 죽은 몸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셨는지요! 그분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마리아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상처와 가지 구멍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수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난이 아들의 수난에 겹쳐집니다. 성 바오로와 열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도 자신의 수난을 겪습니다. 만일 모든 이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면 온 인류의 구원은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만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굳세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이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구속의 협력자이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마리아 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완전한 제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율적으로 온전히 당신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공동 구속자로서의 마리아의 공헌입니다. 갈바리아 산에서 마리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어머니의

권한을 포기하십니다. 마리아 자신도 당신의 아드님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리아께서 온갖 은총의 근원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홀로 은총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편에서도 협력자를 두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수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는 성 바오로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류의 구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봉헌하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 이것이 사제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제입니까? 마리아는 사제서품도 받지 않았고 한번도 미사를 거행한 적도 없지만 마리아는 완전한 사제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성부께 봉헌하셨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인데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을 훌륭하게 중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공변된 이 성직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마리아 홀로 세상을 구속하는 예수님을 돕도록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으로써, 우리의 소임으로써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면 진실로 큰 영예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사도직보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아멘.

성금요일
(1978년)

예절에 관한 간단한 설명

강론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절은 길어질 것이므로 강론까지 길어지면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오늘 전례 순서와 전례에 관해 간단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 침묵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고 아프고 불행하기만 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불평만 나옵니다. 예절 첫 부분에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1. 제1독서(이사야서): 여기에선 하나님의 이상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이 종은 짓밟혀 부서지고, 모양이 흉칙하게 되어 도무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모진 대접과 재판을 받고 처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은 변화되어 솟아나는 샘처럼 되니 그의 고통으로부터 잃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제사는 풍요로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로 구원됩니다.

2. 제2독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결실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3. 복음(예수님의 수난에 관한 요한 복음)

요한 복음에 나타난 수난은 마태오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 루가 복음처럼 괴로운 수난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개선하는 수난입니다.

1)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을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의 때가 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묻는 쪽은 그분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셨고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에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3) 예수님의 재판

법정을 이끈 쪽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말해 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라.”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자 예수께서는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말해 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는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나는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을 체계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자 그분의 열린 심장에서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 즉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4. 보편 지향 기도

매 주일 미사 때처럼 이 기도는 조금 길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는 모든 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모두를 생각하셨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십니다.

성토요일

(1977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이른 새벽, 날은 아직 어두운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온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행복의 새 시대를 희망했었으며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의 시대, 자유의 시대, 정의의 시대가 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한때의 꿈에 불과했으며 예수님은 체포되시어 재판받으시고, 마치 범죄자처럼 형을 선고받고 군중이 보는 앞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희망은 이제 끝났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으니 모든 걸 몽땅 잊어야만 합니다!!

수녀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가끔 어둠이 깔립니다. 우리 역시 실패를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 저 지평선에서 빛이 보이니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맨 먼저 그것을 믿은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염포와 수의가 잘 개켜져서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들을 통해 마음으로 하느님의 표시들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엠마우스로 가던 두 제자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잔칫날이 된 것이지요. 희망이 다시 살아났고 기쁨이 용솨음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은 막간에 불과했을 뿐 모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패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길을 막는 큰 벽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발 구름판처럼 더 멀리 나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인간에게 종지부는 없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르는 길이며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세 번 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심 ‘예수님께서 이젠 나를 못 믿으시겠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시어 예전처럼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오직 그에게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은 비겁한 자이고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께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 역시 부활하여 세상 끝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들, 세례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새 출발을 믿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를 위해 믿음을 쇄신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열렬히 일한 끝에 실패를 맞보곤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사례들은 날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위해 애를 썼지만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또는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 왔는데 결국 그 사랑이 이혼으로 끝나버릴 때,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녀가 다른 수녀의 임명을 보고 빠치는 것….

형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잃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종지부란 결코 없으며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 생명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니 저마다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실패를 겪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혹은 우리의 의혹을 대면하면서도 언제나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로써 우리 역시 부

활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부활은 온 인류의 쇄신입니다. 죽은 이들이여, 부활하십시오! 이제껏 여러분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이 지상에 더 많은 평화와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형제애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시다! 우리 모두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합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상하면서 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실패도 죽음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빛 가운데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온 인류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
(1968년)

부활 축일은 가장 큰 축일이므로 다 함께 오늘 미사의 몇 말씀을 목상해 봅시다.

1. 입당송: “내가 부활하여 당신과 함께 다시 있나이다.”

이것이 미사의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나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를 보내고 이런 통회 끝에 나는 열심한 마음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다... 세례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기도: “오늘 독생 성자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느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활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채로 무덤에서 나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안에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부활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3. 독서

오늘 독서에서는 묵은 누룩과 새 빵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의미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히브리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매년 유월절 축제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축제를 이번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날(토요일) 지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특별한 만찬을 벌이는데,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하지만 유월절 전 날에는 옛날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고, 유월절 다음날부터 다시 새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생명의 표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

리는 죽음을 앞둔 죄인들 같았으나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기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 복음

복음에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세 부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맨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이 세 부인이었습니다. 부인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니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 곁으로 돌아와 있다가 거기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한 번 보았고 그 이후로 다시 여러 번 보았으며,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현장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온 생애 동안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전교활동을 하면서 특히 언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5.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파스카 미사로 보양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파스카 미사는 곧 성체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도 서로 하나 됩니다. 미움과 분열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 대축일

(1972, 1975년 육군병원, 성가병원 강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우선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껏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없기에 그분의 부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람이 되려면 또 부활을 믿으려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참으로 놀라운 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발현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11번 발현하셨으나 성서에는 매번의 발현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발현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무덤 근처, 엠마우스, 갈릴래아, 해변가, 올리브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부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연령층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면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합당한 증인입니까? 그들 모두가 믿음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기에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본 후에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거룩한 부인들 역시 천사를 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부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부인들이 뭔가 잘못 보았으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엠마우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나서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도 사도들은 의심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유령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토마는 없었으므로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소” 하자 그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께서 토마를 위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믿음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자도 아니며 건강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일꾼들이며 밖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나 건강한 사람들이었는지 훗날엔 세상 끝까지 다니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어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꿈이었다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숨던 그들이(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별안간 변화되어 겁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다녔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 채 예전처럼 가난한 어부로, 무지렁이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붙들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적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다만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입니다!

이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안에 머물고 기쁨 중에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리 안에 존재함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평화이며 영으로 마음으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하고 특히 예수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거룩한 여인들과 사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 제3주일

(1966년)

얼마 전 복음에서 성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욕욕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역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리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약간의 시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판을 위해 남아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백 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길지라도 이는 일 분과 같으며 번갯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이를 묵상함이 옳고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거나 변영 속에 있거나, 어느 때라도 이를 묵상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누구하나 고통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 어디에서 힘과 인내를 얻습니까?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인들은 고통을 받을 때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닮을 수 있고 자신들의 죄와 또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으며, 고통을 통해서 많은 공덕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통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인내하기에 훨씬 쉬울 것입니다.

죄수가 곧 석방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수는 쉽게 고통을 참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10년, 20년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공덕을 쌓습니다.

성 바오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벼운 고통으로 커다란 영광을 받습니다.” 몇 년간의 고통을 영원과 비길 수 있습니까? 한 방울의 물을 대양과 비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수고할 때입니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하고 곧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을지라도 이는 한순간이며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용기와 인내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착하신지요. 쓸데없는 불평은 하지 맙시다.

라자로를 보십시오. 가련한 라자로는 고통 중에 하늘나라로 곧장 올라갔지만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 여러분은 변영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흔히 고통과 역경에 처하면 불평이 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번영된 삶을 살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잊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잊고 이 지상의 것에 집착합니다. 번영 중에는 치명적인 죄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교만, 욕망, 사치, 인색...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행하도다 부유한 자들이여!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돈이며 번영이며 쾌락이며 명예며 이 모두를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모두가 헛되니 그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번개처럼 지나가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관 하나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것에 집착하겠습니까?

토마스 모어 성인³⁾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장관이었을 시절, 신앙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에게 제발 아이들과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뜻을 바꾸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20년쯤 되겠지요.” “뭐라고! 이 미덥지 않은 20년의 행복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란 말이오? 싫소! 20년의 그릇된 즐거움으로 내가 왜 영원한 불행을 겪어야 한단 말이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일 분이라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년을 산다면 그때는 ‘얼마 있다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 있다가...”

모두들 서둘러 일하십시오. 죄를 씻고 덕행을 얻으며 선행을 쌓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합니까? 명심하세요. “얼마 있다가(Modicum)” 당신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8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장년들이여, 여러분은 힘이 있고 건강합니다. 여러분에게겐 훌륭한 의사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밤에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과 같이 지나갔죠? 며칠 있으면, 혹은 몇 달 있으면 그 꿈은 끝납니다. 서둘러 과거를 속죄하십시오. 착한 행동과 기도를 늘리고 많은 사랑 희망 믿음의 실천을 하십시오. 신량이 가까이 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주 우리의 생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고도 유용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건강하고 소유하고 즐길 시간이. 거기엔 마음을 두지 말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당신의 월계관을 준비할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됩니까? 빈손으로 아무 공로 없이 속죄 할 죄는 많은데...

서두릅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얼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리라.”

부활 제3주일
(1968년)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도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아버지께 간다!” 하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에게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큰 갈망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1. 이 지상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유배자들인 우리는 엄청난 위험과 셀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한 천사가 그를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소돔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되었으니, 사라질 이 세상에 남아 있으려고 애쓰는 무슨 소용있습니까?

2.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어제의 일 같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고, 온갖 쾌락과 명예를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는데 내일 그 모든 걸 버리고 관과 바퀴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부유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루인들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 뵈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곧 그분을 뵈겠지, 그분과 함께 살겠지 하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그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 바오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양편으로부터 둘러싸여 진퇴양난이니 분해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4.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앙 생활과 많은 덕행으로 자격을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과 열 처녀의 두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 종들을 불러 각각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익을 낸 종에게만 상을 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중에서 기름을 간직한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과 함께 천국

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베어 불 속에 넣으리라.”

요즘 농사 일로 무척들 바쁩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잊지 맙시다.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이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과 주일을 잊지 마십시오. 외교인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하느님을 조금이나마 가르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나쁜 말을 하거나 죄를 범하려고 하거든 좋은 말과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사실이며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부활 제3주일

(1969, 1971년)

“내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리라 ”

우리는 모두 집에 사진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사진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합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 사랑하는 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하려고 애쓰면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데도 그분의 사진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리라고 확신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얼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얼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하여튼 사진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남기셨다면 우리는 이 사진을 다른 사진들 옆에 둘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분은 ‘여기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눈은 이렇고 그의 머리는 이러하다는 등 외관으로만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외양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이고 그분의 교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산책이나 하시러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며, 성 바오로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어린 아기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를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어린 자녀의 영을 지녀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아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 계실 때 그분은 항상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완전하게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첫 말씀부터(“아버지, 저는 당신 뜻을 실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까지(“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만을 생각하셨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께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나의 음식이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뿐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즐겨하신 대로 행할 뿐이다.”

한여름날 온몸에서 땀이 배어 나오듯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갈망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사를 가르칩니다. 미사 기도문들을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천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

“천주 성부여, 비오니...”

형제 여러분, 우리도 좋은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배우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생각하며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한 신자가 아니라면, 이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영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이며 아직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1969년)

마르코 복음 10장 17-24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루카 복음 18장 24절도 함께 읽으십시오.

교황님의 명으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성소에 관해 강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책임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목자이듯이 신자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므로 예수님께서 한 젊은이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봅시다.

1.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을 받고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이름 있는 집안의 훌륭한 가문의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교육도 받았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으며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세례와 견진을 받고, 자주 성체를 영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 역시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를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2.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성소예로 부르셨다면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외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우선 만인 가운데 하느님을 높이시고 하느님이 최고이심을 말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젊은이는 지금까지 죄를 피하여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직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밀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이 올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느님께서 청년에게 원하시는 바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상의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직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하느님 교회의 일원이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부족합니다. 좀더 높이 올라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죠. 모든 순간에 희생을 드려야 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모든 신자들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3. 그 청년은 무엇이래 대답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의 소유자라 믿었으며,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즐거움의 포로였고 이 사슬을 끊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결국 오르지 못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느님을 거절한다면 양심이 꾸짖어서 평화를 잃습니다. 하느님의 요구를 용기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때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이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말라 시들어 가는 꽃처럼 힘이 빠질 것이며 저속한 영혼, 심지어 나쁜 영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에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인들은 그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소 주일인 오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시다.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요...”

하느님께서서도 우리 모두를 무엇인가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맡기십니다. 여러분께 청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또한 신학생들과 수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 제4주일

(1971년)

이웃 사랑(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고, 그 성체 안에서 당신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며 또한 새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도 하나 되라고 청하십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1. 껍질이며 외양이고 형태인 육신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한 형제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은 막달레나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이르셨습니다. 하느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그 피를 쏟으셨듯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똑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같은 빵을 먹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다 함께 하늘에서 같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결인이었던 베노아 라브르 성인도, 왕이었던 루이 성인이나 스테파노 성인도 하늘나라에서는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2. 타인 안에 계신 하느님과 예수님을 항상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상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 누구도 이 놀라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늘 이를 목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의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살펴봅시다. 미사 중에 사제가 성체를 거양할 때에 여러분은 머리를 숙이고 성체를 흠송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성체일 뿐이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알고 흠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결점들 이면에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 안의 하느님께 인사하고 봉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의 성체이며 감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그들을 시중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이며, 젊은 여직공을 사랑하면 그녀는 나자렛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병자를 사랑함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원수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의 성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타인 안에 계신 하느님’의 교리를 입증하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리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 왔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후에 고린토인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마르틴이 군인이면서 예비 신자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미앵이라는 마을 입구에서 추위로 떨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마르틴은 자기가 입고 있는 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그 망토를 입고 계셨고 천사들에게 “나에게 이 옷을 입혀준 사람이 바로 마르틴이다” 하셨습니다.

헝가리 여왕이었던 성녀 엘리사벳은 애궁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이를 말아서 씻겨 주고 그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와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려 하는데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위해 행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여기서 일생을 보냈지만 가끔은 고되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어린아이들, 병자들, 모든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본 것을 가르치고 키워나

갈 것입니다.

안젤라 성녀께서는 동료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해요”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성체를 흠숭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인가보다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녀께서는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성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마치 방금 성체를 모신 느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빈첸시오 드 폴 성인께서 하루는 가난한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한 수녀에게 병자성사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 수녀가 대답하기를 “네, 신부님. 저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지나치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뿐이라구요?” “네, 신부님. 저는 그들을 보러 갈 때면 어찌나 기쁘던지 걷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수녀님들, 오늘 이 점을 잘 숙고하십시오. 이웃은 우리 영혼의 자매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처럼 하늘에 계신 같은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웃은 또 한 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어느 왕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의 나라에 아주 소박하면서도 훌륭한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를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 남자를 시험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듣기에 너는 아이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는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누구인고?”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막내입니다. 어서 자라야 하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멀리 떠나가 있는 아이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치유될 때까지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감옥에 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위로 받을 때까지는요.”

진실한 자비와 타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세례를 받고 봉헌된 우리는 그대로 교회이며 예수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 제4주일

(1972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누군가 떠나가면 한동안은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다 조금씩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무나 사

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가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의욕도 잃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살에까지 이릅니다.

누군가 떠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낙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사도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여러 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다 해도 이 철저한 실패 앞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이었던 예수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는 커다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약 이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낙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시야에 안 계시니, 그분을 뵈을 수 없으니, 점점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더 열심히 믿을텐데!”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예수님의 출발이 몇몇 사람들 마음에서는 벌써 잊혀졌지만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라는 말씀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왜 하늘나라로 다시 떠나셨을까요?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산보하시러 이 지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서 당신처럼 살도록 돕고자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이라.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머리와 눈의 색깔이 어떤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와 정의, 형제애, 사랑의 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인기 배우나 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기 스타들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 행동과 말하는 방법까지도 모방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정신을 남겨주었지 사진을 남기지 않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시며 당신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자주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우리 역

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것은 잘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이 지상에 머무르셨다면, 아마도 그분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 왔을 것이고 영화로 찍어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최후의 만찬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불안해 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이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뵈은 것이다.”

부활 제5주일

매스 미디어

오늘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날, 즉 세계 홍보의 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0세기를 사는 우리는 중세 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천년 전, 의사 소통 수단으로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책이 없어서 일반 대중은 배울 수 없으니 글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자신이 사는 동네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먼 곳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서로 단절되어 살아서 사랑의 테두리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황께만 순종하며 교황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자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수많은 책들이 발행되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일반 대중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정신 세계도 열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교회와 교황이 가르치는 것을 비판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쇄 이상으로 수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기, 라디오, 전화기, TV, 영화, 각종 전자 기계들이 생겼고, 10개 국어를 동시에 번역해내는 기계도 있다고 하며 몇 시간이 걸릴 산술도 단번에 계산해내는 전자 계산기도 있습니다. 인공위성 덕분에 집안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은 필요없고 기계들이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열린 정신을 지닐 것입니다.

옛날에 요한 벨크만 성인은 2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나는 이 세상처럼 그렇게 광대한 마음을 지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도 “나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수천 킬로를 두루 다녔으며 복자 김대건 안드

레아도 수백 킬로의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영화와 라디오 덕분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스컴 덕분에 각 나라의 사람들은 더욱 한 형제가 되었고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듣고 TV와 영화를 통해 보고 또 신문을 통해 읽습니다. 개발 도상 국가들도 기술을 배워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도 놀랍게 발전하여 아프리카의 한 의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고, 다른 의사들에게도 정보를 전해 주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어린이가 앓고 있는 병이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지자 곳곳에서 필요한 약을 보내 주어 그 아이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매스컴 덕택으로 지구 곳곳의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며 축구 경기 등 한 경기를 다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둘로 쪼개어 살아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시대에 따라 일상 생활을 영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과 교회에 맞추어 종교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둘을 섞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TV나 라디오의 일상 생활과 종교 생활을 따로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는 이 둘을 다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은 아주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주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역시 매스컴에 찬성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한 형제처럼 되고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도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매스 미디어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가 악용되면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욕심을 자극시킬 수 있으며 오류를 쉽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송국과 우체국입니다. 매스컴 자체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망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매스컴 전쟁도 있으며 오류에 빠진 자들이 매스컴을 장악할 때 그것을 되찾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황님과 공의회에서는 가톨릭인들에게 누룩처럼 매스컴 구조 속으로 들어가 매스컴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요구합니다. 주교들은 이를 맡아 관리하고, 신학생들에게 매스 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칠 것이며, 신자들도 이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을 공의회는 요구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전파는 곧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선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매스컴을 더 잘 사용할 경우엔 온 세계가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 제5주일

(1970년)

포도나무

성서에는 포도나무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예언자들도 자주 포도나무를 언급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분명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한 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언뜻 보면 나무는 보이지 않고 열매를 주는 가지들만 보입니다. 수많은 가지들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가지들은 잘려 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쳐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다듬어 준다.”

어제 소사에 갔더니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잘려 나온 나뭇가지 단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싹 말라가고 있었어요. 곧 그것들을 불사르겠지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 그루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살라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뭇가지에 수액이 돌지 않기 때문이니 비록 몸뚱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이미 떨어져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 요한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말라고 주의하신 것입니다. 말이나 겉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열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복을 입고 있지만 수녀답지 못한 수녀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욕망이나 교만, 복수심, 불순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평화를 낳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포도나무의 진정한 수액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기상천외한 일을 하려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필요하고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못자리를 내는 시기입니다.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 자신들도 못자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쓸모없는 종이라 여기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합시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능력으로, 저마다의 성질로 자연스럽게 머물면 됩니다. 만일 하

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병과 시련을 보내시면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잔가지를 치시는 것이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고 늘 건강하게 살다 보면 당대의 일들에 온통 빠져 있어 하느님을 잊고 삽니다.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것은 가지이지만 실상은 포도 그루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처럼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사제들이며 수도자들이며 신자들을 하나로 결합하시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세요. 우리 수고의 결실은 수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액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부활 제5주일
(1971년)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오늘부터 교회는 사흘간 특별히 농사를 지향하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삼천기도’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교회의 모든 기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세세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한 신자란 그 영혼이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아프게 할 일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은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문을 많이 암송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기도문을 외울 때 여러분의 영혼도 기도에 담아 전념합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닌가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무엇을 청하기 위한 기도는 아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1. 교리에 의하면 기도는 오름(상승)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하느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교회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래 길가에서는 소음이며 먼지며 지나다니는 행인들로 붐비지만 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높은 분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며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 하

느님과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 해서 마음속의 먼지와 잡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늘 줄줄 외는 기도문을 바치는 기계적인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유치합니다. 늘 무언가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십시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치 부모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3. 기도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함으로써 사람은 하늘나라의 재산을 위해 여기 지상의 재물을 떠나게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 지상을 떠남으로써 사람은 영원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송하니 천국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의 말처럼 기도가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1.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명이 아니더라도 기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2.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점점 더 이 모상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밤에도, 수난 때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3.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꾸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4. 기도를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이 무지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옛날에 스페인 왕을 시종들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신하들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신하들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 몰래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신하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왕은 일부러 기도를 빠뜨리고 식사를 시작했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골이 흥측한 거지가 들어와 말 한마디 없이 식탁에 다가와 앉아서는 예의고 뒤고 차릴 것 없이 게걸스럽게 먹더니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를 본 신하들은 놀라 서로 쳐다볼 뿐 왕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지가 떠난 후에 왕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때서야 신하들은 저마다 버릇없는 자라느니 미친 사람이라느니, 혼을 내줘야 한다느니 한마디씩 떠들어 댔습니다. 신하들을 바라보고 있던 왕은 그제서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오. 아니 더 못한 사람들이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한 나라의 왕을 욕보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이오.”

만일 한국 사람들이 모두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의 왕국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무지가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민족, 한 형제들을 무지 속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배워서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끼니마다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에게 무기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성령

“내가 성부께서 보내신 빠라끌리또,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명하실 것이며 너희도 나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강론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 주 축일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또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날 사도 바오로가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교우들을 만나 그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오로가 그들의 세례가 의심스러워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야 바오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견진성사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준 것입니다.

저는 홍산의 교우들은 성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우들이 아직 성령이 누구이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로 성령께 기도문은 잘 바치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성령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요? 형제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왜 지옥에 떨어졌소” 하고 묻는다면 그 영혼들은 분명히 “생전에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계시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혼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알려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을 때, 성령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름 붙여졌으므로 성령은 존재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격입니다. 성령이 세 번째로 이름 붙여진 것은 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삼위를 부름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했고, 그것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나오셨다⁴⁾는 교의에 일치하는 질서입니다. 성부는 영원히 완전하시며 성자는 성부의 완전한 모상이시며, 이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알아보시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느님이신 두 분의 사랑 역시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실체적(substantiel)이며, 한 위(personne)이시니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요 우리는 너무나 작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성부도 아니요 성자도 아니며 성부의 성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자의 성부께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빠라끌리또’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느님의 영’, ‘성부의 영’, ‘예수의 영’, ‘사랑’, ‘하느님의 은혜’, ‘위로자’라고도 부르십니다. 이 모든 이름이 다 참이며 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쳐 일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특히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을 말씀드리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시다”를 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을 육신,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닷물을 몽땅 컵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강생이십니다. 하느님은 바다보다 더 큰 분이시니까요. 오늘 성령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니, 그 반대의 일을 하시는데 물질인 육신을 영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천사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성화되고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니 성령에 반대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시면 늘 그분의 음성에 따르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장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계명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꿈도 아니며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적인 존재이고 많은 일을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가 매년 성장하고 마귀와 사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이유도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심문에 답변하던 순교자들의 영혼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교황의 영혼 안에, 사제와 교우들의 영혼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종교를 잘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죽을 때까지 열심한 마음을 끈기 있게 보존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승천 대축일

오늘은 예수 승천 축일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열어주셨으며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매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풍선처럼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최고 권위자가 되시고 오르시어 높은 곳에 위치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옥좌요 지상은 인간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도처에 계시고 하느님 안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습니다.

성탄으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느님의 승천 축일날 인간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임무는 끝났고 그의 인간적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후에 누가 우리에게 하느님

의 얼굴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신비체인 교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 이후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제자들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며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받았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두 천사가 와서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당신들은 여기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하러 가야만 했고 임무를 완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각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적인 이 육신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조합적, 정치적으로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러운 손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성적으로 피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바리사이파들도 헤로데도 빌라도도 유다도 그 시대의 사제들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 다만 미사나 예배가 아니라 특히 세상 사람들을 위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병든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할 때,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이 하는 일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볼 때, 바로 하느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상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둘째,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따라야만 됩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며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참 하느님은 어느 한 분과의 하느님이 아니시며 온 세상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몇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세상 끝까지 가기 원하시며 이 세기에(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은 항상 모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좁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 믿고, 노동자들은 그리스도께 봉사하지만 보수를 위해 봉사하고, 부자들은 재산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새로 독립되지만 그들의 독립을 더 견고히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언제나 사회 계급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셋째, 성령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계승하기 위해서 성령은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도들을 초대했습니다. 의심 없이 사도들은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몇 명 안 됩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며 배워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무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힘을 주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은 금전도 아니고 인간적인 세력도 아니며 광고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돈과 권력, 지식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반대로 활동한다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거나 겁을 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얼굴이 아니며 예수님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얼굴은 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며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우리 얼굴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피하고 이기주의가 되어 인간적인 힘만 믿는다면 이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1959, 1967년)

베네딕도 성인과 스킴라스티카 성녀는 남매지간입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수도승이었고, 스킴라스티카 성녀는 수녀였습니다. 그들은 일 년에 한 번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에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된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본 베네딕도 성인이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누이는 계속 머물러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토록 행복스런 이야기를 좀더 나누기를 청했습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규칙에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스킴라스티카 성녀는 계속해서 자기 오빠와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베네딕도 성인이 감히 떠나지를 못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저는 또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느님은 내 청을 들어주셨어요”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은 이렇게 그 자매의 기도를 축복주시고 그들에게 밤새도록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이별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죽었고, 베네딕도 성인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하나의 비둘기 형상에서 그의 동생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승천 축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예수님께 전념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성인 성녀들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큰 갈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착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짓기 전의 아담과 하와만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뿐입니다. 죄를 지은 후 우리는 천국에서 추방당했고 이 지상의 비참함을 알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 하늘나라보다는 이 지상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더 좋아하십니까? 사람이 늘 나쁜 냄새에 습관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쁜 냄새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에 젖어들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묵시록에서 성 요한은 뽀얀 자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저들의 눈에서 온갖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며 죽음이 다시 없을 것이요, 비애도 탄식도 고통도 다시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앓음도 이별도 원수도 욕망도 유혹도 없습니다. 위험도, 추락도, 양심의 가책도, 죄도, 하느님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나쁜 것들의 사라짐보다 더 나은 것은 모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써 하느님을 뵈고, 의지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식입니다.

1. 우리는 하느님을 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작품들을 통하여 그분을 뵈기는 하지만, 이는 외적인 것이고 아주 조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좀더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보다 믿음을 지니면 그 경이로운 것들을 더욱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성체와 삼위 일체 등등).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분에 대해 깊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저는 당신을 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 드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원하며 마침내 당신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착하시고 아름다우신 당신을 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이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마주 대하여 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능을 당신의 무한함을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

다.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자주 자문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지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언제나 하느님의 불가사의함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자와 같은 가장 미세한 것들과 세포들이 경이롭다면 하느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뵈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찬란함을 보면서 경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 반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서야!

2.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조금밖에 인식되지 않기에 보잘것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것이며 그것은 매우 위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장님처럼 다만 믿음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볼 것이며 이는 진실로 위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하지 않고도 소유할 것이며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처럼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서 사라지듯이 한 줄기의 태양 빛이 거대한 태양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3. 하늘나라에서는 결국 휴식만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뵈고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닮게 될 것이고, 하느님처럼 죄짓지 않고 죽지 않으며, 고통받지 않고, 전능하고, 행복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부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생포리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우상에게 봉헌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끌고 왔습니다. 길 위에서 그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내 아들이야,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이 사악한 사람들은 너를 죽이겠지만 네 생명을 빼앗지는 못한다. 주님은 너에게 그것을 아주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경탄할 만한 말은 순교로 고통받는 젊은이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역시 이 예수 승천 주일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예수님께 전심한다면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쾌락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죄로 인해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승천 대축일
(1971, 1981년)

성교회에서는 예수 승천일을 축제의 날로 지냅니다. 미사에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렐루야! 하느님 용약하시어 오르시고, 주 나팔소리와 한가지로 오르셨도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해야 된다고 여기십니까?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까요. 그분은 부활하시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 루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왜 이날이 축제의 날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과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고 불행해지는 것보다 자신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참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교회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불행하셨고, 가난과 무시받음과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행복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승천은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있게 되는 것이며 그곳에서 행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은 또한 성교회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면 모든 천사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모 승천날 큰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에게야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좌정하신다.”

위대한 분이 어느 한 사람을 영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를 당신 곁에,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은 오른편도 왼편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한하시며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가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시고 그만큼의 영광을 차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간이 무한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비천한 피조물은 이 좁은 장소에서 짧은 순간을 살 뿐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비교하면 한 방울의 물은 대양에 비교하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미천하셨고 약하셨고 나자렛에서 겸손하셨으며 갈바리아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고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이며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탄날에 하느님은 인간 가운데 오셨고, 승천날에 인간이 하느님 가운데로 오르셨습니다. 성탄날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은 하느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알아듣기 힘들지만 참 사실입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하느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동물 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3. 예수 승천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알림입니다.

성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가서 너희 자리를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과 우리가 있을 자리를 잃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도 이 지상을 떠날 때 이 감탄할 만한 영광, 즉 하느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한 신비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며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사의 기도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늘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머무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비오니 독생 성자 우리 구세주께서 오늘 승천하신 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천상에 머무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박해 시대에 재판관이 한 순교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라가 어디냐?” 순교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참 나라는 한국도 프랑스도 아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주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느님께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의무를 완수하고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얻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1972, 1979년)

예수 승천 대축일을 맞은 오늘, 생각으로나마 올리브 동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영원한 하느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곳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1. 인물들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올리브 동산이며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수난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목요일과 오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성목요일에 예수님은 번민에 싸여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피땀을 흘리셨으며 두려워하셨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유다와 형집행인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은 한낮이고 더 이상 형집행인이나 유다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하시며 엄위로우시고 선하신지요. 그분의 얼굴에는 슬픔은커녕 기쁨만이 넘치십니다. 그분의 오상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졸지도 않고 분심도 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달아나지 않고 기쁨에 넘쳐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도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항상 성전에 머물며 하느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더라.”

2. 올리브 동산에서 주고받은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크나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천상 천하의 모든 권한을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명한 바대로 만민에게 모든 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라.” 참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일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에 당신이 하늘로 오르시어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역시 성자처럼 우리 안에서 강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것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오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속 머무르셨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성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보고 이 세상 끝까지 갈 것을 명하셨을 때는 단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미래의 모든 제자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외교인의 집을 찾아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당신 제자들을 도우셨듯이 오늘의 제자들도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천 년 동안 도와주셨기에 교회는 늘 성장해왔습니다. 왜 오늘이라고 당신의 도움 주시기를 그만 두시겠습니까? 천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릴래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섰느냐?” 이 말은 “너희는 아직 하늘나라로 오를 때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소임과 고통으로써 하늘나라에 오를 자격을 얻어라,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사셨고, 일하셨고, 고통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세상으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였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수도원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3. 행위들을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상 생활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천사들 대천사들, 케루빔, 세라핌 모두가 사람이신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들어오심을 환호합니다. 이 구원자를 희망했던 구약의 모든 의인들 역시 와서 예수님을 뒤따르며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이 들시려 하시나니.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굳세고 능하신 야훼님이시다. 싸움에 능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하늘나라는 열려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 길은 수고의 길이며 고통의 길입니다. 물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늘나라의 승리와 기쁨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1978년)

예수 승천 축일, 신자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이날 인간이셨고 우리의 형제이셨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성삼위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삼위일체의 나라입니다. 우리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 끝까지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이상과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상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식별이 있습니다.

1.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살아야 한다.’ ‘관례를 간직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래는 과거이다”라고. 명백히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옛날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2.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상은 미래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 모든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늘 행복을 증진한다고 주장했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거짓입니다.

3. 또 다른 사람들은 결국 이상이라는 것은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것이며 좋은 해결입니다. 지난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도 이상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분은 인간이십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의 모범을 본받으시며 평화로이 머무십시오.

첫째, 예수 승천 날 사도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 즉 과거에 매여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달레나 역시 그 손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음 안에서 당신을 찾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온갖 감각적인 것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를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리고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일을 하러가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니, 증언하러 가라.”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다. 과거는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이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시다.

둘째, 예수 승천 축일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만민을 가르치시오.”

여러분의 표양으로써 당신의 진실을 나타내시고 말하십시오. 말로써 가르치고 세상을 생각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사를 주며 또한 그것을 받도록 권고하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은 도덕적인 삶을 준수 해야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속에 있듯이 말입니다. 이 신비스런 나라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십시오”(성 바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며 동시에 세상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구속사업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하나 되며 세상과 그의 재산을 천국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번갯불처럼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형제들이여! 지나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것을 합시다. 인간적인 일에 매이거나 사도들처럼 구름만 쳐다보기보다 우리의 소맷자락을 걷어올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여러분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주실 때나 산에서 빵을 주실 때 그분은 사람들을 걱정하셨고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삼위일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느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좋은 복된 자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창고에다 밀을 많이 거두는 일도 아니고 금고에 돈을 꽂 채우는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맵니다. 복된 좋은 누구입니까? 게으르게 땅에 앉아서 구름을 바라보며 하늘 나라의 모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좋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는데 이는 달란트를 땅속에 썩히는 것입니다. 착한 좋은 서있는 종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기 형제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주는 종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주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매우 큰 승진인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오늘 하느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매일 이 경이한 여행 준비를 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매일을 살며 말하고 죽읍시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연유를 물어보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는 것도 불사하고 힘껏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눈먼 장님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도, 우리의 영혼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도 구별하지 못하며 욕신만을 생각하고 우리 영혼의 선익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분은 자주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분은 주일에 우리 곁을 지나시거나, 특히 이 사순절 동안에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외쳐 부르며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당신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 교회의 시민도 되므로 하느님 나라 법과 교회법에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사순절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을 고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아무 곳에서나 주무셨고, 배 안에서도 잠을 취하셨습니다. 성인들도 고행을 했습니다. 성 베노아 요셉 라브르와 성 알렉시오는 걸인 생활을 하였고 세례자 요한과 성 바오로는 광야에서 은둔생활을 했으며, 성 안토니오도 80년간 은둔생활을 했고 성 벵상 페리에는 평생을 단식하며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성인들께서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죄를 보속하셨는데 그분을 홀로 남겨두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속죄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통회는 말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고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싫어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결점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결점들에게 지고 말 것입니다.

삼손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속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구속자가 되기 위해 통회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통회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고통받았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주교 여섯 분과 여러 사제들과 교리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과 통회를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이들을 구원합시다. 우리 가족과 동네와 나라를 위해서 큰 마음

으로 통회합시다.

사도 성 바오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자기 육체를 그 정욕과 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데에는 통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니니베와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또 연도 기도문을 기억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즐기시는 통회는 크게 슬퍼하고 애원하는 마음이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 통회해야 합니까?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은 큰 부자도 아니요, 옷을 잘 입은 사람도 아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건간에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듬뿍 담고 있으며 하느님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점투성이며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은총은 특히 기도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시기 동안 더욱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의지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은총의 힘이요, 또 다른 일부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부터 갈아 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린들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올 한해를 잘 보내려면 먼저 비옥한 영혼과 좋은 정신으로 무장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세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인이 있었는데, 그 성인은 기적을 잘 행하여서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성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가면서, 밤에 잠 잘 때 필요하니 큰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그 말에 순종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작은 조약돌을 가져갔대요. 그 사람 생각으로는 돌이야 거기 가서 주우면 되지 쓸데없이 힘들게 큰 돌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돌을 가져가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오가 되어 성인이 제자들을 앉히자 돌연히 돌들이 빵으로 변하는 겁니다. 수고를 한 제자들은 빵을 푸짐히 먹었으나 그 한 명의 제자는 빵을 거의 먹지 못하고 “난 뭘 먹으란 말인가?” 하고 있으니, 성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조그만 돌을 가져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큰 돌을 가져오느라 수고를 많이 했으니 먹을 양식이 푸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수고한 자는 많이 얻을 것이요,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얻을 것이라는 거겠죠. 노동자는 일한 만큼 얻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알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조약돌을 들고 가는 게 쉽죠. 그저 번덕스럽게 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나 중국에 다른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잘 이해하십시오. 눈먼 사람처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순절이 왜 유익한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강림 대축일

(1953, 1958, 1966, 1970, 1978, 1981년)

성령의 활동

대림시기 동안 교회는 특히 성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부터 예수 승천 주일까지는 성자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 승천 축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이십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영원하신 그분께서는 계셨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만드시기로 결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그분께서는 각 위격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이시므로 우리가 세상 창조와 보존, 섭리를 성부께 돌리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성자는 성부의 생각이시며 살아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버지께 찬미 드리며 인간을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마치 두 분의 영원한 사랑의 산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은 은밀하게 작용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날이며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맡은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책임 맡은 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자 강생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사도신경에서 “이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전능한 힘입니까! 영(靈)이신 하느님이 육신을 취했고, 무량하신 하느님이 한 곳에 있게 되었으며(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시도록 하였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靈)을 주십니다.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나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성 알로이시오는 천사가 사람이 된 것인지 사람이 천사로 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성령의 작용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째, 성서입니다. 성서를 쓴 복음사가들은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의 살아 있는 말씀인 것처럼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간단하며 감동적이고 심오하며 진실합니까! 위대한 학자들도,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그들 말년에 성서 외에 다른 책은 읽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성서 안에 있어서 모든 해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저서는 하느님의 저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성인이 방대한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가득 찬 책들이 하느님의 한 말씀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창조물, 태양빛과 성냥불빛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서를 자주 읽으십시오.

셋째, 성교회의 무류성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활성화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19세기 동안 교회는 여러 왕에 걸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되는 외적 박해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 박해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넘치는 재물 혹은 이교도 때문에, 나쁜 아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이 내적 박해는 더 아픈 고통이었고 교회는 다행히 이 모든 것을 거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설사 몇몇 개인이 유혹에 빠졌을지 언정 교회라는 덩어리 자체는 다친 데 없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교황들의 지침이 서로 반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가르치시는 내용은 성 베드로가 가르치신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앞서갑니다. 그 예로서 지금의 사회문제는 교회가 이미 100년 전에 말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각 나라의 교회사를 연구해 본다면 각 나라의 교회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넷째, 영혼의 성화입니다. 한 영혼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보다도 더욱 경이롭습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청년 목동 다윗은 그 숭고한 노래를 지었고,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놀라운 사도 바오로가 되었으며, 세리였던 마태오는 사도이며 복음사가가 되었고, 군인이었던 이냐시오는 성인이 되었고, 죄인이었던 아우구스티노는 위대한 주교가 되었고, 교만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겸손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한 조그만 소년이었던 김대건은 한국의 첫 사제로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많은 순교자들은 탐관들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무지스럽고 겁 많던 어부가 지도자가 되어 겁도 없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신자 될 생각을 넣어 주었으며 누가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선조들에게 권한 것이며 도우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역사는 나의 출생과 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영혼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위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미합시다. 아기도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칠은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더 열심한 신자가 되도록,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 대축일

(1969, 1971, 1980년)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역사

의 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목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목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초대 신자들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1.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결점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변모시켜 완전히 상반된 미덕을 주셨습니다. 교만했고 야심에 찌르며 복수하기를 좋아했고 화를 잘 냈던 그들이 예수님같이 겸손하고, 온순하고, 인내로운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셔야 했을 정도로 가르치기에 힘든 사람들이었으며 토마처럼 믿음에도 느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비추시자 학식도 없는 그들이 성서와 예언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달았으며 그들은 선생이 되어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시기에 그들은 도망쳐서 방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하녀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후 그들은 용기 있는 자가 되어 군중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설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비난했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오! 성령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2. 초대 교회 신자들 역시 성령을 받고 변모되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하여 사도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었고 그 성령의 힘으로 신자들 역시 변모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초대 교회 신자들이 사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으며 성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가정에서나 거리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각 가정은 교회와도 같았습니다”라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에 드물게 참여하였던 신자들이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영성체를 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집에서나 다른 이들과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초대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지상의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였으며 하느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3.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초대 신자들과 한 형제들이며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명하면 성령은 우리도 변모시키시어 성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 덕분에 존속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이들이나 병자들을 돕느라 많은 이들이 힘을 기울입니다. 100만도 넘는 이 세상의 수녀들과 성직자들, 사제들, 또 신자들이 교회와 영혼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령 없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박해와 이단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유혹을 겪었습

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격이 괴팍하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번성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청빈해라, 남을 위해 일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혹독한 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작용하십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만나 보면 과연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완전한 신자가 되지만 완전한 신자 이전에 먼저 계명을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1972, 1979년)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성령 강림일은 예수님의 신비체인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만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하지 않은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너무 성령에 무심하진 않습니까? 육신과 세속만을 생각하며 세상 것에 집착해 있는 바람에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령을 제쳐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뿐인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어두운 밤 속에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주인 행세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집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화를 낼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각 영혼의 역사와 교회의 경이로운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하듯 성부와 성자처럼 성령 역시 똑같은 흠숭과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인 만큼 우리 개개인 안에 사랑을 넣어주십니다. 수액 없는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시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 오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사도 2,2).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각각의 단어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소리가 났다”- 이 말은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개개인이 주의 기울이도록 이끄십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즐기고 있다가도 깨어나야 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관심도 두지 않

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 난 화가 날 것입니다. 하느님도 그러하십니다.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테니, 혹은 무엇인가를 줄 테니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는 너에게 화가 미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안간”-성령의 입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열흘 동안 성모님과 함께 성령을 기다렸던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바깥에 있고 세상에만 머물러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요.

“하늘에서”-오! 수녀들이여,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영혼 안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신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 이웃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러 가고 싶은 마음들 말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거기에 계십니다. 성령은 빨리 지나가고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냉담한 영혼이 별안간에 열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울 같은 교회의 적이 바오로 사도로 바뀝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죄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한 힘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성령 강림일 이후로 진실로 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힘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이 “집”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들어갔던 배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집”의 모든 문을 열어 놓아 성령이 들어오시어 우리를 충고하고 도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앉아 있던”-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히 머물어야 합니다. 성령은 부산스러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은 세상 일들이 지나치게 드나드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의 영혼을 평화 속에 보존하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들도 성령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도록 맡겨드립니다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녀가 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왔습니다. 성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니,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해야 할 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갈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보다 더 성령에 따라 살기 위해 순명서원을

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유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훌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께 순종하면서 늘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내 이름을 위해서 보낼 빠라끌리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

(1976년)

누구든지 어느 날 공연히 슬플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만사가 싫증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활 주일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리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고 “난 못해, 이 일은 내 능력 밖이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된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분은 떠나시고 제자들 혼자 가난과 나약함 속에 남아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지 이미 오십 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성령 강림일에 갑자기 예기치 않던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루가는 성령의 오심을 몇 가지 표지로 설명합니다. 루가는 성령을 놀라운 거센 힘과 비상한 활력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태풍 같은 거센 바람이 있었습니다. 즉 “세차게 불어 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별안간 하늘에서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먼지와 낙엽과 휴지와 역한 냄새들을 다 쓸어냅니다. 태풍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합니다. 태풍은 잠든 사람을 깨우고 얼굴을 때리며 우리를 앞으로 떠깁니다. 바람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며 우리의 마비 상태를 풀어주며 우리를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더 멀리 가라고 떠미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둘째, 성령은 불같은 혀로 상징됩니다.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사도 2,3). 성서에서 불은 늘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불과 같습니다. 불은 우리의 의지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우리의 결심을 빛내어 줍니다.

셋째, 성령은 열려진 문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착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넷째, 설교하는 사도들의 상징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하였다”(사도 2,6).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들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것은 형제와 가족처럼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갈망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은 가난한 이나 이국인을 가리시지 않으십니다.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전쟁이나 분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가능이나 합니까? 꿈이요, 유토피아가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이것이 유토피아에 불과하겠지만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처음에는 꿈처럼 보일지라도 금방 현실로 됩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많은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현됩니다. 인간이 날기를 꿈꾸었기에 비행기가 생겼고 달나라에 가길 꿈꾸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와 말하기를 꿈꾸었기에 전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은 진실로 교회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성령께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천 년이 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천 년 동안 성령은 늘 교회를 가르쳐 왔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몇 번의 위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유다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교회는 유다 나라 안에서 매몰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 바오로에게 지중해 지역의 이방인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세기 후에 또 한 번 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교회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안에만 국한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인들이 모두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들끼리만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사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 마르티노, 성 아우구스티노, 성 골롬바, 성 시릴로, 성 메도두, 이분들은 유럽을 두루 복음화했습니다.

중세기에 교회는 부자들과 정치권에 너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수도자들을 부추겼습니다. 베네딕도, 도미니코,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와 같은 수도자들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이상형의 종교인의 모습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은 했지만 교황이 로마에 상주하므로 마치 교회는 서양 것인 양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전진하도록 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도처에 주교가 있고 교회는 더 이상 외국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것도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19세기)에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노동자들이나 정의의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에 계셨고, 교회는 점점 이러한 문제들을 돌보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젊은이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나쁜 표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의 떠들썩한 호색문화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예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종종 어려운 시기에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낙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1966, 1969, 1975, 1979년)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이여

아시아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강론 때나 기도 때에 습관처럼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이여!”를 외치셨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배 안에서 태풍을 만나자 여느 때의 습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외치자 태풍이 곧 가라앉았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교리이며 바로 우리의 믿음과 종교의 기초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삼위를 명상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미드리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삼은 또한 우리의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성삼께 찬미드리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흠송합시다.

하느님은 확실히 현존하시며 온 세계가 이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하시고 무량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어떤 이론도 이 교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관여하신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녀 여러분, 성삼을 마주 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하는 의무와 사랑해야 하는 의무, 답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1. 믿어야 하는 의무

우리가 비록 성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굳건히 믿어야만 됩니다. 성삼을 알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잘못에 빠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 말입니까?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면 나는 오히려 하느님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와 같이 미소한 자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하느님은 무한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무지는 나를 슬프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삼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삼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어떤 학자나 피조물의 말보다도 무한히 가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공로가 되는 행동이며 순종과 겸손의 행동입니다. 성삼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삼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논쟁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알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2. 사랑해야 하는 의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삼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경이로움을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으며 우리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주신 성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토록 은총을 주시어 일곱 가지 선물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거룩하신 성삼이시여! 이를 믿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는 영적인 평화이며 참 지식이며 즐거움입니다. 평화, 지혜, 기쁨은 성삼에서 오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총도 성삼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물 속에서 물고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동물도 제 새끼를 보살피고, 어머니도 아이를 보살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3. 닳아야 하는 의무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이십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수도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황님과 주교님과 그리고 사제들과 함께 하나가 되십시오. 마치 한 몸처럼 예식을 거행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전파합시다. 선하신 하느님처럼 누구라도 도우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는 모두가 사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같은 자녀이며 주님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초대 교회 때의 사제인 아리우스는 감히 성삼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을 받고 별안간에 병에 걸려 내장을 토해 내고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를 희망하는 우리들은 성삼위와 마주하며 성삼을 찬미하게 될 그날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우리도 하늘나라의 천사들처럼 큰 사랑으로 성호를 긋고 대영광송을 노래합시다. 성삼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부는 생명과 평화의 근원이시며, 성자는 빛의 시작이시며, 성령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1967, 1971년)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자들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일체이심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며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삼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홀로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께서 영원히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이 놀라운 결합이 성립됩니다.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세 분은 상호간에 어떠한 타산도 사랑의 결핍도 이해의 결핍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의 영이시며 공동의 호흡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세 위격이시며 한 분이신 그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일치될 바라는 것이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웃들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듯 우리도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교리는 심오하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종착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의미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하느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은 불화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일치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미사 동안에 하느님께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삼위일체처럼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자 노력합시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서 빨리 서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합시다.

삼위일체 대축일 (1970년)

성인들께서는 늘 삼위일체 공경이 대단하였습니다.

백 년 전, 초대 교회 때의 순교자인 성녀 세실리아의 유해가 지하 묘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성녀는 오른손 손가락 셋과 왼손의 손가락 하나를 펼쳐 보임으로 순교할 때까지 성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시아의 첫 사도였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아침 목상을 마치면 가슴을 두 팔로 꼭 껴안고 나오면서 “오, 성삼이시여! 거룩한 성삼이시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천주 성삼은 우리 신앙의 큰 진리이며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선 성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다른 진리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삼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이기도 하니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성삼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달리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또 지성으로써 하느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순수한 영이심을 알 수 있지만 성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삼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알 뿐입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성삼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조금 엿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삼은 곧, 하늘나라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천사

들이 상투스를 노래하며 흠송지레를 드리는 하느님이십니다. 성삼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성삼은 아버지와 동체인 영원한 아들이며 말씀이십니다. 성삼은 아버지와 아들이 낳은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을 향하여 같은 예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매 주일 미사는 성삼을 기립니다. 우리는 교회와 마음을 합하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우리는 성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니, 우리 모두가 바로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드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신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성삼의 이름으로 우리 죄의 용서와 수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으면 성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 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삼위일체이신 성삼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성삼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동물, 식물, 무생물이 존재합니다. 공간에는 넓이, 길이, 높이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와 전기는 불과 빛과 열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현존(존재)과 생각(인식)과 사랑(애정)이 들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토마스는 성삼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교로써 약간은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이 어떻게 그러한 분이 신지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기쁘기만 합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대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하느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즉 하느님이 저처럼 아주 작은 분이시라는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정말이지 우울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삼의 모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처럼 우리도 매일 창조하고 열렬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름 속에 생활하는 자들은 불행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구속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느님께 순명하며 하느님의 대리자들에게 순명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권고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합당한 자가 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처럼 우리 이웃을 거룩하게 합시다. 성령처럼 우리가 사랑이 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성삼처럼 우리 안에서, 성가정의 구성원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돕시다! 그러면 나와 하느님 그리고 이웃이 삼위일체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녀들인 여러분은 더욱더 그래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따라 하나이신 천주를 흠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과 하느님은 생각하지만, 타인들도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이라면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고 정치인들이나 군인들도 저 자신이 아닌 다른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들은 바로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기 위해 이 길을 택하였으면서도 이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없는지라 오로지 저 자신만을 생각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녀들 중에는 남을 충분히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쉽사리 화를 내는 수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의 모상대로 항상 우리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가장 소홀하기 쉬운데 항상 명심하십시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리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여분의 시간이 있다면, 혹은 휴식 시간에 담소를 즐기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양말을 짜든 옷을 짜든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제가 그 비용을 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저에게 청하기만 하십시오.

교우가 임종하면 사제는 사도예절에 앞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종을 심판하지 마옵소서... 이 망자는 죄를 범하였으나 살아 있는 동안에 성삼의 표를 받았으니(성삼을 믿었으니) 다 용서하십시오.” 성삼 안의 믿음은 세상 끝 날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줄 것이며 유일한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성삼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성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대축일
(1972년)

십자가의 상징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상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성호를 굿습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예비자들에게도 성호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순 기간 동안 많은 성당에서 사순절 특강이 있습니다. 한번은 개신교 목사 한 분이 이 특강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강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강사가 십자성호를 굿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성호에 얼마나 믿음과 흠숭이 담겨있던지 목사는 같이 온 친구에게, “저것으로 충분해요. 강의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만 갑시다” 하더랍니다.

십자성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성호는 모든 교리의 요약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는 두꺼운 교리 책을 여러 권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것을 다 공부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위해 문답교리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장 짧은 요약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더 요약해 놓은 것이 십자성호입니다. 따라서 십자성호는 요약한 교리를 또 한 번 요약한 것입니다. 교회 교리 중 중요한 세 가지는 삼위일체와 강생과 구속입니다.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이 세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며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리, 즉 삼위일체와 강생과 구속의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자와” 하면서 손을 내릴 때 강생을 선포합니다.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이름들로” 하지 않습니다. 즉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하느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무한히 사랑하셨음을 그리기에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르신 말씀대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싸우고 일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는 신자들의 상징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한 흠숭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신자들에게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닮았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성호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뿐 아니라 신자들의 무기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성호로 마귀의 유혹을 멀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성호는 마치 개가 우리 옆에서 짖어 대듯 난리를 치는 마귀가 우리를 물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쉽게 마귀에게 물리고 맙니다. 또 십자성호는 가벼운 죄의 용서를 얻어준다고 교황 비오 9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성호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얻어줍니다.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예수 수난 공로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미사 동안에 사제가 여러 번 십자성호를 긋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의 기적이 이 십자성호를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성 베네딕도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자들이 열심히 못을 보고 성인은 질 나쁜 수도자들을 벌하고 더욱 엄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에 불만을 품은 한 수도자가 베네딕도를 살해할 생각으로 성인의 물잔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물잔을 들이기 전에 십자성호를 긋자 그 물잔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옷과 외투를 입히듯 십자성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세례 때 사제는 여러 번 우리 위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성사를 받을 때에도 사제는 우리의 오른손에 십자성호를 그어줄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십자성호를 자주 하십시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식사 때에, 성당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리에 누울 때 그리고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유혹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십자성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이마 위에다 십자성호를 그었고 카타콤바(지하성

당)에서 신자들은 그것으로 서로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십자성호를 긋는 방식은 그 후에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잘하십시오. 너무 빨리 하지도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이마와 가슴, 양 어깨에 확실히 닿도록 하십시오. 성호를 긋는 것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제스처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을 보신 벨라멧다 성녀께서 십자성호 긋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황홀해서 “그렇게 성호를 잘하는 건 어디서 배웠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녀께서는, “저도 잘 몰라요. 전 그저 그 귀부인(성모님)이 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성호인가. 저런 성호는 하늘에서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자, 성녀께서는 자신도 전에는 빠르게 십자성호를 했는데 그 부인처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십자성호를 저토록 아름답게 하는 것도 당연해”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1977년)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나라에는 하느님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교사들은 하느님은 없으며 우리의 우주 여행자들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들은 더 높이 날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성삼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이 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다. 매일 우리는 고통과 개인적인 걱정, 가족, 경제, 정치적인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매일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고 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우리가 좀더 잘사는 데는 도움이 될까?’라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함으로 생긴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혼한 부부, 파괴된 가족들을 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곳곳에서는 노동쟁의, 정치적인 증오, 혈통적인 갈등, 전쟁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

1.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 지력의 반영과 당신 사랑의 모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부부에게 모든 새 창조력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온 땅을 채워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

와와 함께 아름다운 낙원에서 사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사랑 안에 그분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사랑도 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은 친하게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평화스런 계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 요한에 따르면 “한 처음에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2.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이 사랑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선물이며 서로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사람 마음대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은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랑의 하느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 요한은 이렇게 경탄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은 아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은 전능으로써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의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그의 친구인 라자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할 권리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 이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3. 사랑의 하느님은 실제의 사랑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처럼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립니까? 모든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은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방탕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 면전에서 매우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거절하지도 꾸짖지도 않았으며 즉시 죄의 흔적을 없애 줍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아들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높이 날아 봅시다. 좀더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너그러운 선물이며 나눔이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국경도 없습니다. 항상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접대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요구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충분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히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고 이기주의에서 나옵니다. 쉽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즐거움과 이익을 찾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이 세상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삼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사랑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1978년)

하느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대축일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성삼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삼은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의 언어로써는 도저히 하느님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부족하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삼’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매우 위대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삼은 하느님의 생명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니, 이 세상 그 누구도 결코 성삼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은 누구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성삼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 하느님은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제이십니다.

셋째,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1. 하느님은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나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나 거대한 바다를 볼 때나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면 “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고 저절로 혼잣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꽃들이나 아주 작은 벌레를 볼 때도 원자 구조나 사람의 뇌 속에 들어 있는 수억의 세포들을 상상해 보아도 저는 역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분명 세상의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홀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최고의 지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제 위에 계시며 인류 위에 계십니다. 구약성서는 특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독서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야훼다.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하느님이다. 화를 내지 않고 자비와 인내가 많은 하

느님이다.” 하느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고통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각 페이지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에 관해 말씀하시며 그분을 ‘아버지’, ‘성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는 내 아버지시며 또한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느 큰 공장의 주인집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는 것을 보니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랑의 하느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으십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면서도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당신 자녀들의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느님은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2.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제이십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의 길벗이 되신 것입니다. 한 형제처럼 늘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길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형제들 안에서 매일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쳤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친구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3. 하느님이 누구이시냐구요? 하느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샘이십니다.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혼배 성사를 방금 받은 젊은 부부를 볼 때, 50년 동안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살아 온 노부부를 볼 때, 저는 그들 안에 현존하신 성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는 젊은 수녀님이나 나이든 수녀님들을 볼 때, 저는 성령께서 분명히 저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토록 하느님과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정과 사람들의 무관심과 미움, 전쟁,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을 보게 되면 저는 분개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에게 정의와 애덕과 화해와 형제애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이신 성삼은 누구이십니까?

성삼은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성삼은 형제와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며

성삼은 빛과 사랑의 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신자들 중에 어떤 이는 특별히 전능하신 아버지만 생각하고, 어떤 이는 형제와 친구 같은 하느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만 생각하려 합니다.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전

능하신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통해 우리의 친구와 형제로 머무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나자렛의 겸손한 목수의 예수님을 목상할 때, 갈바리아 산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기쁘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계시며 그곳에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매우 많습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눈다면 늘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대축일
(1980년)

세 위격의 일치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삼위일체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이 위대한 계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성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모되고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는 과연 효성스런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보십니까?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우리와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로 보십니까?

한국에는 강과 도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많은 강과 도랑은 한 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다운 편지나 선물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 준 이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랑 또한 같은 샘에서 오는 것인데 그 샘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은 우리에게 사랑의 참 모습을 밝혀주십니다. 세 위격은 어찌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하나의 본체가 되었습니다. 그 세 위격을 살펴봅시다.

1. 아버지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아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심으로써 당신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이사야, 예레미야, 즈가리야 같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당신 아들이야 죽이지 않겠지 하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명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회상하십니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서 여기 와 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당신 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순간 비둘기 형상의 성령을 예수 위에 내려보내시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는 순간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셨으며, 또 예수님의 수난을

앞두고 “내가 이미 네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느님은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로 이루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구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으며 그것을 승인하셨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과 행동,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두가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끊임없이 아버지께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찬미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것도 선하며 아버지는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공중에 있는 저 새들을 보라. 들쭉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청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은 지상의 어느 아버지들의 선함을 능가합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나약한 너희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닮아라” 하시며,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한 자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위해 커다란 사랑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돌려 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되돌리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는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대로를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만 하겠다. 그러니 자, 이제 일어나 가자.”

3.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 분의 일치는 완전합니다. 제자들이 법정에서 가야 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다시 오르신 후에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 하느님은 나 대신 다른 협조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고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삼위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수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흔적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불화의 말을 멀리 하십시오. 이웃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질투와 미움이 담긴 말을 버리십시오. 하느님이 우리들 사이에 뿌리신 오해와 불목을 뽑아 버리고 열심히 일하여 그 자리에 사랑을 뿌립시다. 그리하여 큰 사랑을 거둬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65년)

성체 연회

“어떤 사람이 저녁 잔치를 크게 차려 놓고 많은 손님을 청하였다.”

큰 잔치를 차리신 분은 바로 성체를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를 기념하기 위해 성체 행렬을 거행합니다.

이 잔치야말로 진실로 큰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바로 크나큰 하느님이시니까요. 이 잔치는 진실로 큰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초대객 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잔치는 진실로 큰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또한 실로 큼니다.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되찾게 해주니까요. 진정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복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잔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종인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라도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우리 집을 가득 차게 하라.” 우리를 이 잔치에 응하도록 하느님은 아예 엄격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내 진실히 말하노니,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잔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서 들었듯이 많은 이들이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집을 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소를 샀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구실을 찾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이와 비슷한 구실을 들어 거절합니다. 장이 서는 날이다, 들에서 일해야 할 시기이다,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느님 뵈기를 거절하고 그에 비해 아무 가치도 없는 일들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성체를 영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말 재산을 위해,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부와 행복을 거절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세차례 거듭 초대객을 불렀고 그때마다 주인은 초대객을 바꾸었습니다. 맨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눈 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의 목소리,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대신에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신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잔치에 가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우리 보다 은총을 덜 받은 이방인들을 불러 우리에게 할당된 복락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종이며 여러분의 사제인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오시라고 권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단 한 번의 잔치가 아닌 평생 동안 매일 베푸는 이 잔치에 오시라고 말입니다. 일 때문에 또 부양해야 할 식구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일이라도 예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나이든 분들은 더 자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단 한 번의 잔치도 그토록 큰 행복일진대, 매일 베푸는 이 잔치에 어떻게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영성체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보존하며 사십시오. 매일 성체를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면 적어도 생각(신령성체)으로도 매일 성체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잔치냐, 영원한 불이냐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66, 1970년)

찾은 영성체

요즘은 성령 강림절인 만큼 성체 행렬도 있고 따라서 신자들이 성체에 관해 많이 목상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미사에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성체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자주 성체를 모시러 오라고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녀 프랑수아가 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따라 미사에 갔는데, 부모님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성체를 영하러 나가는데 프랑수아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체를 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성체를 영하지 못하나요? 예수님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강복하셨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성체는 7살부터 영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여름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아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자녀들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 자주 영성체해야 합니다.

1.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성체를 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빵이니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이다” 하셨습니다.

...(원문 미판독, 중략)...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성체를 영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방인처럼 육신의 빵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뜨겁지도, 영성적이지도 않은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특히 영적인 양식을 당부하셨다는 점을 새겨두십시오. 사도 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은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행전에 적혀 있기를 “초대 신자들은 사도들의 교훈과 면병을 나누어 영하고 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2. 교회 또한 잦은 영성체를 권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마음가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유혹 앞에서 자신들이 약함을 알기에 예수님께 강한 힘을 청하며 사랑으로 성체를 영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녀 잔다크는 매일 성체를 영했던 반면에 성 루이는 일년에 6번 미사에 참석하면서 6번의 성체를 두려움에 떨며 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체를 통하여 덕과 힘을 얻는 길을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진실한 통회의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자세는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황님이 강조하는 성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성체를 자주 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진정 예수님을 모실 자격은 없으나 성체는 치유해 주는 약이며 힘이기 때문입니다.

3. 자주 영성체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당연히 영성체하기를 열렬히 갈망할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우리와 결합하시고자 거기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방인들과 냉담자들의 무관심을 속죄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외교인 교사가 신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제 손에 있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나요?” “네!” “그렇다면 이상하군요. 만일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를 믿는다면 왜 매일 영성체하러 가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존경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체로부터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체는 우리가 죄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을 닮으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완전한 자들은 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체를 모셔야 하며, 불완전한 자들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강한 사람들은 약하게 되지 않기 위해,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되기 위해 영성체해야 합니다. 영성체함으로써 우리는 선하고 힘 있고 거룩하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은 성체로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영성체는 국가나 가정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나쁜 아이들이 많다, 혹은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어떻게 해야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영성체하십시오. 자주 성체를 영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가정과 사회를 치유하는 좋은 약입니다. 자주 성체를 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로 인해 걱정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큰 믿음 없이 영하는 것은 피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돈 보스코 성인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훌륭한 성인이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고 목사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는 감화원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성인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성인은 말하기를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체와 몽둥이뿐이죠. 저는 몽둥이를 포기하고 영성체로 다스립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성체 주간을 맞은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성체를 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선 부모님들이 열심히 영성체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도 자주 성체를 영하도록 권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67년)

생명을 주는 성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다른 본당에서는 성체 행렬로써 성체와 성혈을 흠송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감실 안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에 오느라 수고할 필요 없으니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홍산에 와 계시니 홍산의 큰 영광이 아닙니까?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지요. 그분을 왕으로서 존경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입니다.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과 함께 밖으로 나와 그분께 왕의 예우를 드리며 모두 함께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홍산에는 이방인들이 신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생명(본성 생명)입니다. 이는 육신의 생명으로 한순간 지속될 뿐이며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이 생명은 하느님과 함께 우리 부모가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초성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느님과 결합된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하나 되어 머무는 한 이 생명은 소멸됨이 없이 영원히 남아 있을 생명입니다. 우리 첫 조상은 이 초자연적 생명을 지녔었으나 죄를 범함으로써 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거듭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연적인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초성 생명은 볼 수 없으나 단지 믿음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초성 생명을 주셨습니까? 성체를 통해서입니다. 과연 성체는 제사이며 양식이며 현존입니다.

1. 성체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 모두의 빛을 갠아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계속되는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바리아 산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특히 미사로써 우리에게, 이곳 홍산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예전에 미사가 없었을 때는 아무도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미사가 있는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초성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신자들과 사제들 그리고 사도들을 필요로 하심은 분명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그 누구 이전에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지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이곳에서 매일 희생되시어 당신을 봉헌하십니다.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2. 성체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듯이 성체를 영하지 않는 영혼 역시 하느님과 결별하여 죽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일단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아주 지혜롭지도 못하고 많은 점에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성체 덕분에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성체는 힘이며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식입니다.

박해를 피하여 쉬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양식을 날라다 주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 먹어라”(1열왕 19,17)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양식을 받아먹고 40일 동안 하느님의 산(호렙)까지 멈추지 않고 갈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들의 영혼이며, 천상의 양식은 성체입니다. 하느님의 산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양식인 성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매우 무지하지만 성체가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참된 문화를 줍니다. 현세의 학자들이 아는 지식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3. 성체는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성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감실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

리에게 은총을 얻어 주십니다. 감실 앞의 빨간 불은 작은 램프 불이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빛입니다. 그 불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에 묻히고 맙니다. 중재자이시며 변호사이고 의사며 피뢰침인 예수님이 감실 안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참된 초성 생명을 주시고자 늘 감실 안에 계시겠다고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자와 짐 진자는 다 내게 오라. 나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우 여러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보존하며 키우고 싶으십니까? 오! 그렇다면 자주 교회에 와서 미사에 참석하시고 성체를 영하며 흠숭 드리십시오. 성체 가까이 오십시오. 이는 살아 있는 빵이며 생명의 원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좀더 성체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성체를 공경하면 할수록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체 영하기를 갈망하게 되면 도둑이나 거짓말, 불경스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실을 공경하면 할수록 문화는 번성하고 인간은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았던 이들처럼 가지 않으려고 구실을 찾지 마십시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많이 오시고 즐겁게 오시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습관을 간직한다면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68, 1970년)

잔치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매일 온 식구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가끔은 부모님이나 친구를 초대하여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겠죠. 또 특별한 날에는, 예를 들어 약혼식이라든가 생일날, 결혼 피로연, 회갑일 같은 때에는 큰 잔치를 벌여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복된 행사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동물들의 식사와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식사를 가지고 예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는 식사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정과 사랑, 형제간의 정, 함께 있는 행복, 평화, 서로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을 뿐이지 식사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욕구를 정신적 향연으로 변형시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식사야말로 그대로 잔치여서 식사가 없는 잔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를 사귀고 사랑하겠습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마치 한 몸처럼, 한 영혼처럼 하나로 결속되는 거지요. 함께 식사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유대인들은 에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일을 보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날은 어린 양고기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대대손손 이 식사를 거듭하며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셨던 당신의 구속사업을 성취하시기 전에 잔치로써 이 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셨습니다. 그 때의 어린양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체는 진정한 식사이고 진정한 잔치이며 그 어느 잔치 음식보다 으뜸가는 양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아주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영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들끼리도 하나 되니, 우리는 같은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느님 아들의 생명을 다 같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고 하신 말씀이 전혀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식사는 지상의 식사에 비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천국에서의 식사는 지상의 식사보다 10만 배나 더 즐겁습니다. 사랑의 대향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고 거절하시겠습니까?

부자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느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자들은 결국 불행합니다. 가난한 이들만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은 지상의 재물보다 하느님의 사랑에 굶주린 이들입니다.

“의덕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이는 복됩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이는 복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71년)

성체 안의 기적

오늘 성체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현존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체를 대함에 있어서 자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 다윗 성왕이 성체 앞에서 했듯이 우리도 온 마음을 모아 노래와 춤으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자 합니다.

성체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지만 특히 성체는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도 이 보다 더 훌륭한 일은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였고, 토마스 성인은 “성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두 박사가 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엇이 그토록 경이로운지 생각해 봅시다.

사제가 하느님으로부터 품을 받고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그 순간 8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모든 물체는 본체(substance)와 형상(accid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체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며, 형상이란 본체 이외의 것들, 즉 맛, 색깔, 무게, 형태 등을 말합니다.

1. 성체의 첫 기적은 빵과 포도주의 본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체들은 변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알이 병아리가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모두 변화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본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2. 빵과 포도주의 본체는 사라지는 반면 빵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형상(맛, 색깔, 형태)을 봄으로써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육안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본다 해도 그것이 전혀 빵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니 이 또한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 빵의 본체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의 몸의 본체가 들어갑니다. 가나에서의 기적은 물의 본체가 포도주의 본체로 바뀌었으나 본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체, 예수님의 본체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4. 네 번째 기적은 모든 물체가 형상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의 몸 또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시다, 작으시다, 마르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체 안에서의 예수님의 몸은 진정 현존하시나 어떠한 형상도 취하지 않으므로 형상 없는 채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신지 작으신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 한 몸은 한 장소에만 머무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동시에 하늘에 계시고 또 모든 성체 안에 계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6. 몸은 한곳에 완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여기 제 손이 있지만 발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빵 조각마다 전 세계의 성체마다 완전히 계십니다. 완전한 예수님은 성체 하나하나 안에 완전히 계십니다.
7.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체 안의 예수님의 몸은 영이시므로 빵의 형상은 만질 수 있으나 예수님의 몸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8.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성체 안에서는 부활하신 그분임에도 눈에 띄는 영광도 없이 심지어 죽은 이처럼 계십니다. 움직임도 말씀도 없으십니다. 죽은 이보다 더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이 같습니다. 분명 '거기에' 계십니다만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성체를 논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이 그 안에 있고 너무도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생각해 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하느님이심을 입증하니, 그 착상은 오로지 하느님다운 착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빵 한 조각으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내용들은 꽤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느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 입증하지 않습니까? 이에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에 저는 그저 감사와 찬미를 드릴 뿐입니다.

(1972년 성가소비녀회)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성체 안의 예수님 현존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으니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은 것이며, 모든 재물의 창조주를 얻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부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 안에 계시니 그분을 뵈러 가야죠. 그리고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 먹으러” 가야겠죠. 우리는 이 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의 선물로 이를 봉헌합시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며, 예수님은 우리 제사의 제물이십니다. 오늘은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목상하도록 합시다.

교회는 사원처럼 빈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기 위한 장소만은 아니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감실을 비추는 조그만 빨간 전등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려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까! 하늘 나라에서와 같이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육안으로 보듯이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계시니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경배는 그분만이 전능하시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자세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성체 앞에 조용히 머물며, 자주 예수님을 방문하십시오.

1. 무릎을 꿇는 자세는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써 또한 다른 이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 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의 자세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세리들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를 드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세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께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2.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머물러야 합니다.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성삼위의 두 번째 분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며 아버지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관이십니다! 나는 이미 이토록 큰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존경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요 나에게 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땀을 흘리신 분이요, 그리고 도모자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너’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을 볼 때 슬퍼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

히 그분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3. 예수님께서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계시니 자주 그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비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체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늘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땅 위에는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들이 살아갑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바벨탑 이후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의사 소통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에스페란토어를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를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마스크를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셨으니 바로 이 작은 제병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는 단일성의 성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거기’에 계심을 알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을 흠송하러 올 때, 모두가 그분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모두가 같은 계명을 지킬 때, 그때만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언제나 분열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특히 수도자들인 우리들은 성체를 사랑하며 자주 성체를 방문하는 것이고 성체에 대해서 강론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감실이 있습니다. 늘 감실 쪽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직접 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감실 앞으로 가십시오. 멀리 교회가 보이면 멀리서도 인사하십시오.

요즘 새마을 운동이 한창입니다. 마을이 무엇입니까? 가옥들의 집합체가 마을이 아닙니다. 마을은 교회를 두르고 있는 몇 채의 집을 마을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실이 없는 마을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늘 성체를 생각합니다.

성체 거동

(1980년 루가 9,11-17)

성체 거동

1. 오늘 제1독서에서는 멜키세덱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성서 인물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며 예수님의 오묘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말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전한 후 멜키세덱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청합니다.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위치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멜키세덱은 예언자였습니다. 멜키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마치 예수라는 이름이 ‘정의의 참된 왕’이란 뜻이듯 말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살렘이란 도시의 사제였습니다.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도시는 후에 평화의 마을인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의 희생 제물은 빵과 포도주였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아론보다 500년이나 앞서 사제직을 행하였으니 아론보다 더 위대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이며 믿는 이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노래로 유명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범통을 이은 영원한 사제이다”라고 노래하였으며, 사도 바오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이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따라 영원한 대사제가 되신 분”(히브 7,3)이라고 말합니다.

2. 매년 하느님의 축일에 성체를 제정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2독서에서는 성체를 제정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 후에 쓰여진 가장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양식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성찬의 전례)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마치 첫날처럼 그분은 똑같은 몸과 눈과 피와 마음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3. 오늘 복음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에 대해 전합니다. 초대 교회 때 이 기적은 아주 깊은 반향을 일으켰고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이 네 복음사가가 모두 이 기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네 복음사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일치되므로, 그 기적의 사실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밀알 몇 알을 가지고 백성을 먹이시는 창조주께서 빵 몇 조각 부풀리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이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 초대 신자들에게 빵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사막으로 떨어진 만나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2의 모세와 같았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의 백성을 모아들이고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교회가 형성된 것은 바로 식탁 둘레에서였습니다. 루가는 사도행전(사도 2,46)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 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제 교우들을 한 형제처럼 결속시키는 큰 연회입니다. 루가는 호숫가에 모여 있는 굶주린 군중보다도 형제 교우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번 모임에는 두 가지 전례가 거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말씀의 전례가 있었고, “군중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성찬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루가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며 빵을 손수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식탁의 시종꾼들이었습니다.

5. 루가는 그리스도의 만찬이나 빵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숫가에서나 만찬 때에, 그리고 엠마우스에서 날이 저물면 그들은 만찬실

로 갔습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시어 제사를 바치는 사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례하신 다음 빵을 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미사를 ‘빵을 쪼개는 예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바(지하성당)에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 있는데, 바로 빵을 쪼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양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교우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한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오직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행해지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이 전례를 되풀이 할 것을 맡기신 사도들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고, 오늘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동하여 성체거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심의 행위이며 흠숭을 드리는 것이며 무한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74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체와 성혈 축일을 따로 지냈으나 결국 성체와 성혈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현재는 하나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주인이신 교회가 제안하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일 미사에서 우리가 듣는 독서와 복음은 그 주일의 하나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묵상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창세기 내용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미사 성체는 감사제이며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사 성체는 말씀의 전례와 감사 전례(성찬 전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는 멜키세덱이라고 불리는 신비스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사제이며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히브리말로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살렘”으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몇 해 전 교황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거듭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살렘의 왕 멜키세덱은 사촌 롯을 구하기 위해 여러 민족과 싸워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때 그가 봉헌한 것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창세 14,18). 그 당시에는 제물을 바칠 때에 늘 어린양과 같은 동물을 바치는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떡과 포도주를 봉헌했습니다. 멜키세덱이 봉헌한 감사의 희생제를 통해 아브라함은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표시이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법입니다. 멜키세덱은 사제의 표상이고 모델이며 조상입니다. 오늘날의 하느님 백성들도 사제가 바치는 미사를 중재로 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봉헌합니다. 오늘날의 사제들도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봉헌합니다. 이 희생제의 덕행으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제2독서를 살피기 전에 오늘의 복음인 루가 복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루가 복음에서는 성체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루가가 전하는 빵의 기적 이야기에 는,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장정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 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를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군중을 오십 명씩 앉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전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질서를 원하셨고, 그때 이미 공소나 분당을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축성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성부께 사례하신 후 축복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체가 우리의 양식임을 가르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풍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미사 성체를 은총으로, 루가 복음에서는 양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2독서에서 성 바오로는 미사는 희생 이상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양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희생과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저 쾌락을 찾고 편안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 추구합니다. 성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성체를 제정하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체로써 우리들 각자에게 오시는 이유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당신께 전념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성체를 영한 사람이나 영하지 않은 사람이나 얼굴 겉모습에서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드리건대, 성체를 모신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는 죽음과 부활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들 인성의 불완전한 요인들을 죽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번데기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쏟아냅니다. 껍데기를 벗고 나온 아름다운 나비 말입니다. 진실한 영성체자들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매일 노력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며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며 결국은 기쁜 일입니다.

축성이 있는 후 “주님, 저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를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기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 속의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늘 삶과 죽음의 두 양상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 바오로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인간적인 생명을 버려야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그분에게 순명하고 평화로이 의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면 자연히 미사에 오는 것이 신나며,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을 찬양하고, 이 양식(성체)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76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대축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계약”이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피는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계약의 피이다”라고 하였고, 제2독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는 나의 피, 계약을 맺는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결합, 약속,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때 반지를 축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반지를 결혼 반지라고 부릅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 반지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 반지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여자와 남자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지를 받았고 종신서약 계약으로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1. 우선 복음을 봅시다. 마르코 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르코 사가는 성체 제정에 대해서는 짧게 서술하면서 만찬 준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고 두 제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나 큰 이층방을 마련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부사항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 식사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말씀과 거의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풍요로우면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며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 제1독서는 첫 계약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법계와 약속의 계획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하느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약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 계명을 읽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듯이, 시나이 산 밑에서도 첫 미사가 드러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법계를 읽고 설명하자 온 백성이 한 소리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매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은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피를 거두어 반으로 나누어 하나는 하느님의 상징인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먹을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피는 죽을지언정 계약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로써 하느님과 백성은 화해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가치는 말이나 도장으로 맺는 계약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3.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약의 계약은 성체입니다. 첫 번째 계약인 모세의 계약이 피상적인 계약이고 의식적인 예절이며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당신 수난 때에 맺은 두 번째 계약은 훨씬 심원한 계약이며 완전하고 파기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약에서도 둘이 계약을 맺는데 한 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 자신이시고 다른 한 쪽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이의 보증인으로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제사 때 제물은 이제 송아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 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쌍방은 서로 평등의 관계이며 신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모세의 희생제 역시 감동적이고 장엄하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신약 계약의 초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모세의 희생제와 수세기 동안 치러진 히브리인들의 희생제사를 분명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희생제로 대체하셨습니다. 유일하고 결정적인 희생제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고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잘 들어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서 ‘새 포도주’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것은 늘 ‘메시아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뜻은 당신 피를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성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성체가 있습니다. 성체는 우리에게 성부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우리를 성부와 결합시켜 주며, 우리들 서로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매번 미사를 지낼 때마다 이 신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마르 14,26).

우리도 매번 미사를 마치면 진복팔단의 길을 통해 올리브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통과 수고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977년)

제사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인 오늘, 어떻게 미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1독서에서 모세는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친 사제 멜기세덱에 대해 말합니다.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께서 식사 형태로 미사를 제정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루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사는 우선 식사입니다. 마치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먹이듯이 이 식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복음 말씀과 성체로써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십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가족이 되어 갑니다. 미사는 식사일 뿐 아니라 제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희생물을 봉헌하였습니다.

1.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주 희생제를 지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특히 양이나 염소, 소같은 가축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재산, 가족, 노동, 저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제사의 참 의미를 종종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하느님께서 살진 동물과 고기의 무게와 제사를 몇 번 지내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것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것을 바치는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마음과 하느님의 참 자녀로서 살고자하는 노력을 살피십니다. 유대인들의 제사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제사가 하느님 마음에 들리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진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거문고 가락도 귀찮다”(아모 5,21-23).

2. 신약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가축을 제물로 바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숭배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우리가 이웃에게 지니는 사랑이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연대 의식이며, 온 인류를 쇄신하려는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숭배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성부께 완전한 숭배를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그 자체가 완전한 제사였으며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생명을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

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기쁘시기야 하셨겠습니까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3. 우리가 미사에 열심한 마음으로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예수님의 이 일생을 봉헌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미사 때 우리는 사제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수난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을 생각하여, 이 생활한 제물,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바치나이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제물을 굽어보소서. 하느님, 저희는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일생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제물은 없을 것이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제사를 능가할 만한 다른 제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 창조의 완전한 성과이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과 용서의 작업을 계속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돌보라고, 1977년 이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역시 하느님의 아주 아름다운 성공작이 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축성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한 일과 또 오늘 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1).

그러기에 미사 때에 자주 교회와 인권, 그리고 우리를 앞서 간 성인들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미사 참례의 목적은 세례 받은 이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그분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함께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사의 본질은 손으로 영성체하는가 아니면 혀로 영성체하는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봉헌하는 데 있습니다. 즉 거짓 없이 예수님의 일생을 닮은 생을 봉헌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1966, 1969, 1971, 1981년)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은 착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겐 가장 큰 위력과 큰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좋은 수원지를 가진 산이 맑은 물을 내듯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모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죄에 물들지 않으셨기에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식구는 물론 친구들, 당신의 조국,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어린이들, 죄인들,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1.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그리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학자들도 어린이에게 관심이 없었고, 입법자들 역시 그러해서 어린이 보호법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풍속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매매했고 아이들을 버렸고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의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처럼 소란스럽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달려오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버리려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시며,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르 10,15).

2.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철학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덕(德)이란 것 역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조상과 부모 그리고 왕을 섬기는 마음과 효성만 있으면 다였습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덕분에 약간이나마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들은 죄인들을 이방인처럼 경멸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나 간음한 여인을 얼마나 경멸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고 그 분 역시 죄는 단죄하였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불행에 처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고 또 죄인들을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성한 자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생명을 해치러 오지 않고 오직 구원하러 왔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선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고 우도(右盜)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들의 영혼에 빛과 정화와 통회의 정신을 심어주십니다. 새롭고 놀라운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죄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종교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3.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사람들은 병자나 비통에 빠진 자,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예였고 그들은 가축처럼 매매수단이 되었고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무관했습니다. 문둥병자 같은 병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병자나 고아, 노인들을 위한 자선사업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조합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서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하셔서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맹인들, 귀머거리, 질름발이, 문둥병자, 마귀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 곁으로 몰려들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서 예수님 곁에는 3년 동안이나 병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은 억눌린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무릇 수고하고 짐진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군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고통받으셨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아들의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마르타와 막달레나가 우는 것을 보시고 라자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을 체험하셨고 가난하게 사셨기에 그분 곁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부잣집에 가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질타하셨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시켰기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마음을 지니고 어린이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중에 자주 “오, 착하신 예수님”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선한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1979년)

지난 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체에 관해 함께 묵상을 했고 그날 도처에서는 성체 행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낸 지 2일째 되므로 여러분에게 예수 성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당신 심장을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 성심상을 보십시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00여년 전 프랑스의 과레이 르 모니알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수녀원의 말가리다 수녀에게 예수님께서서 여러 차례 발현하셨습니다. 훗날 이 수녀는 말가리다 마리아라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가리다 수녀에게 당신의 심장을 내보이셨고, 수녀는 불바다 한 복판

에 있는 예수 성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가리다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는 내 성심을 보아라. 그러나 어찌하여 사람들은 무관심과 독설만을 내게 보이느냐. 내가 네게 정한 바를 실지로 행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네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 내 성심을 공경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게 하는 자에게는 수만 가지 강복을 내려 주겠다.” 이 발현을 통해 착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세 가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탄식하셨고, 그리고 요구하셨으며, 끝으로 약속하셨습니다.

1.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크게 사랑한 내 성심을 보아라. 그러나...” 연초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참혹한 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참고 견디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성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니 얼마나 크신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까? 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으며 무관심 속에 그분을 버려 둡니다. 단 하루 동안에 이곳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저질러지는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흠치고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일 마을에 큰불이 난다면 그 불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감실 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이 불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무관심하게 이 불결을 지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자들 역시 감동 없이 자주 이 불을 한 권으로 비켜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냉담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서 옳지 않게 행동하며, 떠돌고, 웃고, 쉽게 주일을 범하고, 다른 신자가 미사에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도 않으며, 사도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온전히 사랑으로 불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냉대와 무관심만을 받으시니 매우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예수님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제, 수사, 수녀가 되어 예수님을 각별하게 사랑한다고 공언한 이들이,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이들이, 저를 선두로 해서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표양을 보이지도 않고 사도직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너무도 슬프셔서 말가리다 수녀에게 탄식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기에 명령을 내리셔야 할 분인데도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요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 성심 축일 다음의 금요일을 축일로 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매달 첫 금요일에 보속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거룩한 성시간을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만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구걸하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예수님의 요구를, 더군다나 가장 먼저 사랑의 술선수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열렬히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한 주에 한 번 영성체하기를, 가끔 감실을 방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3.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에는 평화를,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직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단단히 굳어 있는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감동의 은총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은총을, 모든 영혼들에게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들어보십시오.

- 1)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줄 것이다.
- 2)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 3)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 중에 나, 저들을 위로하여 줄 것이다.
- 4)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별히 죽을 때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5)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6) 죄인들은 내 성심에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7) 냉담한 자들은 열심해질 것이다.
- 8) 열심한 자는 빨리 큰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9) 내 성심 상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가정에 강복하여 줄 것이다.
- 10) 내 신부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동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11) 누구든지 아홉 달 동안 연이어 첫첨례 육에 영성체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 죽게 할 것이다. 그 마지막 시간에 나, 저의 의탁이 되리라.
- 12) 성심께 자기를 봉헌하는 자는 다 성심의 보호하심으로 영벌을 면케 될 것이다.

형제 여러분, 이 예수 성심 축일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십시오.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오직 돈과 선물로 부모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행동이며 자세이고 즐거움이며 자부심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공과를 펼치시고 온 가족이 예수 성심께 봉헌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 제4주일
(1967, 1971년)

예수와 함께, 또는 예수 없이 일하는 것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 속으로 이 이야기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바닷가에 군중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배 위로 오르십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주님께 순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일한다면 헛된 수고가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큰 성과를 거둡니다.

1. “우리가 밤새껏 일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은총의 상태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바로 은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며, 그가 하는 모든 일도 죽은 일이 됩니다. 대도독이 미사에 참석한다면, 또 불결한 죄를 짓고, 혹은 심한 다툼을 하고 나서 미사에 참석한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제 행동을 고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들 안에 은총 없이 무슨 일을 완성한다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아서 하느님이 그들을 경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착한 이들도 있으나 나쁜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며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총이 있다 해도 세상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하여 만 번의 수고를 겪는다 해도 그 수고는 말짱 헛수고일 뿐입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말 것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대부분의 삶이 아닙니까? 예전에 사도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일했듯이 우리는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합니다. 이것도 좋으나 만일 여러분이 이것만을 위해 산다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 주일에 10시간씩(세뇌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제 영혼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서네 시간도 일하지 못하겠습니까?

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는 은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그의 활동은 곧 예수님이 하신 활동이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은총 속에 있다면 부엌에서 일하든지, 논에서 일하든지, 교실에서 공부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여러분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부를 얻을 것이며 썩지 않을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로마에 있든 홍산에 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명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즉시 순명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느님께 순명합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고 자녀들과 이웃을 가르치고 좋은 표양을 보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즐겁게 행하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복종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한다면 우리 또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이곳 홍산에는 신자들이 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은총 속에 있다면, 착한 표양을 보이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의무를 완수해 나간다면, 모두가 미사 외에도 한 주일에 2시간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무엇인가를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곳에서 많은 살찐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말씀은 함께 계십니다. 매 주일 미사는 “미사가 끝났으니...”라는 말로 맺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단 위에 오시어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차례입니다. 받기만 해서 안 됩니다. 주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봉헌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령 강림 제4주일
(1969, 1971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성서에는 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사도 바오로의 배입니다. 이 두 배를 예로 들으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후 구약은 노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자 하느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대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되고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새로운 노아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될 것입니다.

오늘의 루카 복음에서는 또 하나의 배, 사도들의 배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고 그분 옆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배 역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그저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를 곁에 두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 깊은 데로 가라.

배가 해안에 머물러 있으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교회라는 배 안에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했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바다로 나가지 않고, 나가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해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칠 뿐 그 이상의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자녀들과 이웃, 친구들을 가르쳐야 하고 특히 직장에서 외교인들 가운데서 스스럼없이 그리스도 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구실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들은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 아니며 그리스도는 두 번째쯤 자리나 차지하는 거지요. 그들은 해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은 껍데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개인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2. 그물을 쳐라.

물고기를 낚으시다! 복음에서 물고기는 우리 형제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지만 그 동안 많은 물고기를 낚으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교회 선박으로 데려오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선 순서이겠죠. 한 가정에서 부모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냉담한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죄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 아닙니까?

물고기는 바로 우리 마을 주민들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물을 칩시다! 매순간에, 모든 이 앞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교회에 오라고 권하며 우리 스스로 좋은 표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소를 돕고 교회 행사를 도우며 특히 불행한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진정 먼바다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와 내 부모를 떠나 이곳에 왔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깊은 바다에 가서 제 그물을 던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예비자와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데도, 교회에는 오지 않으려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과연 여러분들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해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하느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참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며 우리 모두는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귀중하니 영혼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성령 강림 제5주일

온유

서간문에서 성 베드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간과 복음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움과 욕설을 금하고 서로 사랑하고 늘 예의를 지키며 강요하지 말고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양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였습니까! 이사야 예언자와 세례자 요한은 그분을 어린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분을 귀찮게 괴롭히는 군중에게 에워싸여 계실 때에도, 심지어 적 앞에 계실 때에도 온유하셨습니다. 군중이 욕설을 퍼부어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피로와 고통 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온유했습니다. 옳은 재산과 자식을 잃고 병에 걸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조롱하여도 고요함을 잃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실천한 토비아도 장님이 되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평하는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온유는 실로 큰 덕입니다. 온유는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으신 하느님을 닮게 합니다. 이는 자비의 징표이며 힘의 표상이니, 인내는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하셨습니다. 우선 온유하십시오. 산상 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온유한 이들을 사랑하시며,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처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고요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 과연 우리는 온유한 이들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쉽게 싸우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타인에게 욕하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온유하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거칠다면 성체를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칭송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이 온유함에 끌려 깊이 반성하고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사도 시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인 비안네 성인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혼을 잃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얻었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기 보다 온유하게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종종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실망이나 파산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우시느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여 연옥의 벌을 면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혹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화를 낸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을 줍니까? 오�히려 온유함으로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를 낸다면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만 옳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말씀하시기를 식초보다 설탕으로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온유하신 예수를 모방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라고 모방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판관에게 매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 매를 당신에게 돌려주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따귀를 맞고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젊었을 때 성을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온유의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왕녀였던 성녀 엘리사벳은 애궁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죽자 그녀는 전 재산을 박탈당했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온 마음으로 여전히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옛날에 많이 도왔던 거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가 엘리사벳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성녀는 화내지 않고 미소지으며 일어나 옷을 털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성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모욕을 참음으로써 더욱 하느님의 마음에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함 속에서 진정 강해질 수 있으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제6주일

섭리, 하느님과 악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며 많은 군중을 보시고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무지한 군중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배운 사람들도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안배하심은 루가 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곳간도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저 날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루가 12,24)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주 하느님의 섭리를 두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불평이 나오는 데에는 하느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으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불은 하느님의 큰 은혜가 아닙니까? 불이 있어서 몸을 따뜻이 하고 음식을 끓일 수 있습니다. 물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홍수로 침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과 불, 바람은 어떤 때엔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이러한 불행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은 선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좋은 쪽은 보지 않고 나쁜 쪽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생각만 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문인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부를 주시고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으랴?”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신에겐 건강한 몸이 있지 않소?” “그거야 그렇죠.” “만일 당신의 오른손을 자르고 당신에게 1억을 준다면 그렇게 하겠소?” “아니오.” “그럼 왼손을 자르고 1억을 준다면요?” “싫어요.” “그럼 당신은 굉장한 부자군요. 하느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는데 왜 불평하시는 거요?”

우리가 하느님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선과 악, 좋고 나쁨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처럼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미흡하고 너무나 무지하니 침묵을 지킵시다! 위대한 학자들도 한 방울의 물과 한 마리의 곤충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판단합니까? 하느님의 일을 판단하려면 세상 시작에서 끝까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오늘의 복음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당혹해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애써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버리는 기술자를 보았습니까? 왕이 법을 제정한 후 그 법에 무관심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최고의 기술자이시며 최고의 법을 세우신 위대한 왕이시므로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어느 아버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가르쳐 주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아버지는 씨를 불리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세상에 흔히 있는 고통은 하느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이 자유를 잘 못 쓰는 것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술과 불경스런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잘못입니까? 가난하다구요? 왜 젊었을 때 마시고 놀기만 했습니까? 창피한 아들을 두었다구요? 왜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까? 이러저러한 남편과 사느라 고통스럽다구요? 그 아낙은 왜 진작에 이러저러한 것을 알아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어른이 되고 정화되며 예수님처럼 공로를 쌓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한국에는 예수님과 하늘나라 그리고 영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전쟁과 피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세를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에 감동받은 어느 외교인은 예수님과 교회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고통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무늬로 된 용단과 같습니다. 그 용단의 뒷면을 보면 보이는 것은 온통 엷히고 설킨 실뿐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앞면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뒷면만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할 것입니다. 오, 어리석은 사람이여! 작품을 제대로 놓고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의 작품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무지한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일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제6주일
(1965, 1968년)

예수님 기적에 대한 확신

복음에서는 자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고 단언하는 것도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사실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적들이 이 기적들을 부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거짓이 되며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병자에게 손으로 안수하여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의 기적은 아무 증인도 없는 그들의 기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군중이 그것을 보았고, 학자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적들도 기적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군중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몇몇 증인들만을 앞에 두고 외떨어진 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공공 장소에서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사천 명의 군중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군중은 예수님의 기적에 참으로 감사했고 또 어찌나 경탄해마지 않았는지 “이 사람은 곧 세상에 오시리라 예언된 참 선지자이다”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기적은 군중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너무나도 많은 군중 때문에 병자를 지붕 위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예리고의 장님을 치유해 주셨을 때도 길가에 있는 많은 군중 앞에서였습니다. 또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도 그곳의 많은 어부들이 보았습니다. 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치유되었을 때도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속인다해도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늘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였지만 누구 하나 이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권위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학자들과 권위자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 야이로, 자캐오, 백인대장들과 같은 지식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병환자 열 명을 치유하시고는 그들에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고 하셨습니다. 태생소경을 치유하셨을 때는 병자 옆에 세 명의 검사관과 그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부인하며 그 젊은이가 소경이 아니었다고 우겨대지만 결국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베싸이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해 주었다며 그분의 일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분의 반대자들 또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군중 중에는 예수님의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동기를 찾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적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쉽사리 밝혀냈을 것이지만, 끝내 밝힐 길이 없었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른 변명을 찾아낸 것이 “이 사람이 마귀를 쫓아낸 것은 마귀 두목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한다”며 떠들어 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영적을 행하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일 그를 그대로 버려 두면 모든 이가 다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나라와 백성을 탈취해 가리라. 이에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꾀하였다.” 그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들이 “당신은 다른 사람은 구하면서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친 것도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예수님의 기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들로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그 장소와 그때의 군중을 정확히 압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4복음서 안에서 거짓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헛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적을 지우려 한다면 4복음서를 다 지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없이는 성체와 예수님의 죽음, 군중의 열광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 바오로는 예수님의 적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설파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 가운데 성 베드로의 첫 강론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말할 엄두를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도 우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그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흥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신봉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군중이 그 기적을 봤습니까? 학자들과 권위자들이 그 기적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파들이 그 기적을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만이 하느님이시니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만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천상 천하에 모든 권리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성령 강림 제7주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오늘 복음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옮겨 전하면 우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란 어떤 이들이며 또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둘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서 불에 던져지

리라.” 셋째,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저를 겁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져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장차 오실 구세주를 알리며 이미 했던 말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외교인들이나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미사에 참석한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부터 목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자신에게 물어 봅시다.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인가.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으며, 주일날 미사에 늘 참석했고 아이들도 교리반에 보냈으니 하느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겠지.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야.” 그러나 여러분,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 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 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루가 18,9).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행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 보았으나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마르 11,13).

루가 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벌써 삼 년째나 여기에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 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금화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돈을 그의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돌아와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졌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 온 종을 보고 주인은 그 종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뺏으면서 그를 지옥에다 던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각자는 많은 결실을 얻어와야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니라.” 교육을 받음에도 우선은 초등 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자격도 죄를 피하기를 배우는 것이 초등학교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공덕을 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생 죄를 피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고 맙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성인 신자들을 위해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은 한 주일에 두 시간씩 하느님을 위해 일합니다. 병자를 방문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냉담자들을 권고합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마다 각자의 직무와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고용인으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모든 신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무적인 주일미사 외에도 개인적으로 기도와 평일미사에 참석하십시오. 신자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자녀들과 이웃을 가르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건대 신자 한 명이 최소한 한 명의 예비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치시고, 주일 미사에 혼자만 오지 마시고 꼭 누군가를 데려 오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갖고 성가대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집 가까이 있는 병자를 방문하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무상으로 도와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통회와 보속을 드릴 수 있으며 애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권고만 할 뿐입니다. 이 미사 동안에 여러분이 해온 일을 되돌아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결실을 거두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무서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 불 속에 던지리라.”

성령 강림 제7주일
(1968, 1971년)

하느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하듯이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어찌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옴은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자 함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나의 음식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한다.”

모든 성인들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분에 맞서서 반항하는 것이며 그분을 경멸하는 것이니 지옥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져 불 속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기에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하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도 행동으로써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이며 그래서 세상 끝 날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봉급을 주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록 성체를 자주 모시지 않고 기도를 자주 하지는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데 하느님이 설마 나를 벌 주실까”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 지옥으로 보내질 영혼들에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거라.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나! 내가 주렸을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집에 맞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된 영혼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공로를 쌓았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집에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종종 혹독하게 나무라십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본 주인은 “베어서 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또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 두었던 주인이 돌아와 재산을 불린 종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을 주었지만 돈을 땅에다가 묻어 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쓸데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옥은 씨 뿌리지 않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본보기 아닙니까? 온 생애를 통해서 1분도 잃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면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아무런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다 해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느님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합니까? 오로지 돈과 먹을 것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친구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 교육이나 성가대 혹은 레지오 마리아, 그 무엇이

라도 하십시오. 가정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인이 매일 저녁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제8주일
(1969년)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우리들은 20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세기는 기술과 전문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놀라운 발달로 오늘날에는 사람이 달나라에도 가는 세상입니다. 이 과학이 과연 유익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온 땅을 채워 복종시키며 온 땅을 다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험이 있는 까닭은 많은 이들이 사람의 행복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로지 물질적 행복만 생각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달나라에 간 세 사람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의 자녀들은 영리하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과연 만들어 내지 못하는 기계가 무엇입니까? 추우면 전기 난로가 있죠, 더우면 에어컨이 있죠, 또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와 요리기구, 라디오와 TV, 자동차, 비행기 등등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업자들은 어찌나 광고를 하는지 저마다 이 기계들을 갖고 싶어합니다. 농부들도 훌륭한 기계 덕분에 농사를 짓는 것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수확량도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오로지 기계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돈 생각뿐입니다. 옛날에 하느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황금으로 된 소를 숭배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계 제품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몇몇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을 점점 더 낭비하게 됩니다. 우주선 아폴로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읽은 기사에서는 현재 승용차가 75,000대나 되고 트럭이 500,000대나 된다고 합니다.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경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기계가 생활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이면에는 불행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행병으로 죽습니다. 초라한 판자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백만이 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도 없이 길에서 살아가며, 매일 아침 트럭이 죽은 이들의 시체를 견으러 다닙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입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이래도 과학이 유익하기만 한 것입니까? 주인을 속이는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 나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비참 속에 버려 두는 부자들은 더욱더 나쁘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그 어떤 기계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닙니까? 사람의 행복이 오로지 돈과 기계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을 뿌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계를 만드는 데 영리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뿌리는 데 그들보다 더 영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이 한데 뭉쳐서 많은 이들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일합시다. 서로 이해하도록 일합시다. 사랑은 나눔이니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을 도웁시다. 세탁기나 텔레비전을 우리 혼자서 능력으로 살 수 없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사도록 합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고 세상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빛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아,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네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제8주일
(1972년)

그리스도인의 의무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부자가 그의 소작인을 벌합니다. 부자는 소작인을 쫓아내면서 보살피던 일을 셈하라 하고, 이후로는 소작인 노릇을 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그의 소작인을 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작인이 그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역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해성사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누군가에 대해 가장 높은 찬사는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20세기를 사는 젊은이들은 사회의 주요 인사나 정부 관료들에게 직분을 완수해주기를 점점 더 기대합니다. 종종 불평의 소리가 들리고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정부 관료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그들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다면 아마 상당수의 불평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강론에서 저는 저마다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곧 큰 뜻이며 아주 큰 힘이며 매우 큰 기쁨입니다.

1. 의무, 큰 뜻입니다. 의무를 완수함에는 하느님의 생각과 한 사람의 자유롭고 지적이며 책임감 있는 생각이 함께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우선 하느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의무에 대한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느라 수고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이 이 세상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지 무엇 때문에 꿀칫거리를 만듭니까? 또한 자신의 의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자유인이며 참 지식인이며 책임감 있는 영혼입니다. 그는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돌이나 나무, 동물들은 지식도 없고 자유도 없어서 모두 하느님이 주시는 법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회전하고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며 나무는 자라서 꽃 피우고 꿀벌은 꿀을 만들고 새들은 늘 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본능적으로 자연법에 따라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자연법에 따르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도 법칙이 있지만 이 법칙은 인간이 지적으로 자유롭게 성취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나빠지게 되고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며, 그 의무를 수행하면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의무는 큰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석유가 모터를 작동시키듯 지식, 돈, 이익,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은 사람을 잘못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이와 반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되 늘 착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람은 유혹을 피하게 되고 의무는 욕망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의무를 통해서 영혼은 아름답게 장식되는데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며 결코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육신은 죽듯이,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한 국가에서도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멸합니다. 아이에게, “네가 일을 잘하면 사탕을 주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일을 잘해라”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기록해집니다. 성인들은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다. 다만 늘 하느님께 의무를 다 한 것뿐입니다.

3.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사실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지적인 사람에게는 그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이 기쁨의 유일한 원천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양심이 그를 나무랄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자신 앞에서도 얼굴을 붉힐 것입니다. 지상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는 곧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는 온 생애 동안 그분의 의무만을 생각하셨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평화로우셨으며 기쁨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청하며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지금도 미래에도 늘 우리의 의무를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의무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아버지는 밭에서 공장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어머니는 교회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저마다의 의무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라는 것은 미사와 같고 희생제이며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매 순간 하느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무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므로 자신의 의무를 공경해야만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무는 하느님의 계명과 같아서 고될지라도 완수해야 됩니다.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만 됩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세례 받지 않은 외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도 이것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습니다.

“의무를 다함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임종을 맞는 침상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약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 강림 제9주일

자녀교육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예수님의 육신을 받아 모시는 우리도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나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매일 교리반이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싫어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부모들이 아무 말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이는 부모로서 잘못된 태도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리상 부모의 첫째 직분은 자녀들에게 종교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 이것은 하느님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군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병원에 왔을 때 그의 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그토록 훌륭히 교육시키시다니 정말 장하십니다. 아드님은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대장님, 저는 늘 아들이 착한 신자가 되도록 힘썼을 뿐입니다. 착한 신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필요하다면 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신자 부모가 해야 할 첫 의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13명의 형제 중에 네 번째였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얼마나 보고 싶고 안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아기가 세례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어머니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아기가 태어난 당일에 되도록 빨리 세례를 시키세요. 시일을 끄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이며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 교육은 7살이나 8살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한 부모가

성 아오스딩에게 아이를 데려오자 성인께서는 몇 살에 교육을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모는 세 살이라고 대답하자 성인은 너무 늦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하기 쉽습니다. 어릴수록 영혼 깊숙이 교육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탈선하는 아이들은 너무 늦게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리 교육만 해도 일찍 시작한 아이와 늦게 시작한 아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아빠부터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 마리아부터 가르치십시오.

셋째,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빨리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박사이고 부자일지라도 양심적이지 않고 매 순간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들 비위를 맞추고 아이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을 꾸짖고 벌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 루이의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중죄를 범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너희가 죽은 것을 보는 것이 백 번 더 나은 것이다”라고 이르셨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의 어머니는 “하느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나는 비록 언젠가는 네 곁을 떠나도 하느님은 늘 네 곁에 계실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어머니는 매일 밤 저녁기도를 마치면 아이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지?”, “우리 마음 안에요.” “언제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까?” “세례 때지요.” “그럼 무엇이 하느님을 빼앗아가지?” “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죄를 증오합니다. 나는 내 마음 안의 하느님을 모시고 싶기에 죄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희생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가 쉽지만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린 나무는 쉽게 곧추 세울 수 있으나 굵은 나무는 그렇지 못한 이치와 같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순결을 가르치십시오. 절대로 별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 밤에는 남아와 여아를 따로 채우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 있지 않도록 얼른 일어나게 하며,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불순결한 말도 하지 말고 나쁜 책도 읽지 마십시오. 집에서 순결을 사랑하고 깨끗한 의복을 착용하고 집안을 깨끗이 한다면 후에 자녀들이 깨끗한 영혼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정결한 부모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모들이 착한 신자라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녀들이 영성체를 모시고 성호를 잘 긋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성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구유와 감실 앞으로 데려가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째, 자녀들의 첫 학교는 가정이며 아빠,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집에서 교리시간을 마련하여 보충해 주어서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아이의 친구들 역시 죄를 무서워하는 꼬마 그리스도인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커서 중,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어릴 때처럼 따라다니며 살필 수 없으니 아이가 기도를 잘 하는지 자주 성체를 모시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이 자녀들이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날, 다섯 자녀를 교육시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아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죄를 짓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신 복음이었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부모들이여!
행복하여라, 복음을 사는 부모들이여!
행복하여라,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이여!

성령 강림 제9주일
(1968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어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의 성전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집입니다. 보통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하셨고 참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교회는 빈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밤낮으로 머물러 계시며 우리에게서 흠숭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갈바리아 산입니다. 매일 미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희생되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희생제로 양을 봉헌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린양이십니다. 여러분이 갈바리아 산에 동참했다면 거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들의 집보다도 더 사랑받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세례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영혼을 씻으며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며 수많은 은총을 받으며,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다윗은 “주님! 저는 늘 당신의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성인들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처럼 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서면서 믿음과 공경심을 가지십시오. 성수로 축복하시고 장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죽을 때에 나를 심판하실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들어가시어 하느님을 흠숭하시고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과 막달레나와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지니십시오. 신뢰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걸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 먹을 것과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교회에서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오락거리를 하는 사람은 이교인보다 더 나쁩니다. 이교인들은 교회를 잘 모른다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이 하느님을 조롱하자 함을 추방했습니다. 오늘 성전 안의 상인들처럼 하느님도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면 자녀라도 보내십시오. 아침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어머니는 아침기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 제9주일
(1969년)

예수님의 눈물

오늘 복음에서는 특별한 두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심과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무엇이었으며,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묵상하기로 합시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조국을 사랑하셨고 특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예루살렘이 곧 벌받아 무너지리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시므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니,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도 하느님께서 눈물 흘리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신자들도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시다. 세례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감실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냉담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은총 속에 있지 못하고 중죄를 짓거나 그 보다 더한 죄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물들처럼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구분도 없이 지내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원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방인이 있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인 카인과 아벨은 죄를 진 후에도 봉헌했던 희생제를 지금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에도 일을 하느라 미사를 봉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감사할 줄을 모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한 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고 매일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선하신 하느님을 알려야 합니다. 이 짧은 생애를 부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느님을 위해 서둘러 무엇인가를 합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작은 교회보다 못합니다. 그 성전에서는 대규모의 희생제가 올려졌으나 우리의 작은 성당에 머무시는 하느님께서 그곳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처럼 빈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체 안의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참으로 교회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희생제를 드리며, 교회에서 죄를 씻는 최고의 양식을 취합니다.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니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은 장이 서는 날에도 교회에 오십니까? 세상의 그 어느 위인 앞에서보다 더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 것이며, 저마다의 소임으로 이 집을 깨끗하고 유쾌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빗자루를 들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믿음으로 각자가 저마다의 능력대로 와서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은 교리교사나 복사들만의 일이 아니며 모든 신자들의 일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꾸짖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또한 어느 날 하늘나라의 문인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강림 제11주일

혀로 짓는 죄

“그 혀에 침을 바르시니... 이에 병어리가 분명히 말하더라.”

예전엔 봉헌송을 바칠 때, “내 혀를 드림은 네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암송했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어리를 고쳐 주신 것은 병어리가 말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보다 우리의 혀가 짓는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혀는 최고의 것이 될 수도 있으나 또한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로써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겸손, 정결, 정의 등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혀로 짓는 가장 흔한 죄는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욕설과 경솔한 판단과 험뜯음으로써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어긋나는 이러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합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말을 잠깐이라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하지 않은 잘못을 두고 이웃을 비난하며, 이유 없이 이웃의 결점들을 끄집어내어 결점을 부풀리고, 이웃의 행동을 비난할 줄만 알지 좋은 의향은 보려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처신하다니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고, 이웃이 선행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비난해도 변호해 줄 줄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네가 틀렸고 내가 옳으며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를 하느님은 미워하시며 또 이런 죄를 벌하십니다. “서로 험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로마 1,30). 모세의 누이는 형제를 험뜯은 죄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모

세를 비방한 코라, 다단, 아비람은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혀는 독사의 혀와 같아서 비방하는 사람과 비방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혀는 자주 공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혀로써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혀로써 하느님을 선포하니, 성 바오로의 서간문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혀로 오히려 그토록 많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혀가 짓는 죄를 면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만 합니다. 시편에 “주여! 나의 입에 순라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파수병을 두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사려 깊은 생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늘 감시할 줄 알아야 하며 불필요한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상대가 누군가를 비방하려하면 화제를 돌려서라도 그의 말을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사랑할 줄 알고 말을 적게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두 병어리였다면 분명 더 많은 성인이 나왔을 것입니다. 성 야고보는 “누가 만일 심신 있는 자로 자신하여 제 혀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을 속인다면 이러한 심신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 저는 당신께 청합니다. 제 혀를 만지시어 제 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혀로 하여금 찬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당신에게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당신께 영광 드리는 데에만 쓰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악과 위협에는 특히 사랑을 거스르는 죄 앞에서는 제가 병어리가 되게 해주소서.

성령 강림 제13주일
(1966년)

감사할 줄 아는 것

열 명의 나병환자가 치유를 청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열 명 중에만 한 사람만이 감사드리러 왔고 나머지 아홉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순간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나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손해이니, 하느님께서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주시지 않을뿐더러 사랑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늘나라의 성인들과 천사들은 오직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마리아는 아름다운 노래 마니피캇을 불러 감사드렸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림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기에 거룩한 성체를 ‘감사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미사 후반부에 감사예절을 두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의 감사가 필요 없는 분이시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믿음이 두텁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처럼 감사의 말을 모릅니다.

어느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 사제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며 지당하고 구령에 유익하나이다.” 우리는 매번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 추수, 아기 탄생... 감사드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세례 기념일, 첫영성체 기념일, 견진성사 기념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들에 왜 미사에 와서 하느님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욥 성인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유익한 것들은 받으면서 고통은 안 받겠습니까?” 하며 고통을 받아들이고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다. 다윗과 토비아 역시 고통을 받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병중에 드리는 감사 한마디가 건강할 때 드리는 천 번의 감사보다 훨씬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성령 강림 제13주일
(1967년)

나병과 죄

오늘 복음에서는 치유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육신의 병이지만 죄는 영혼의 병입니다. 복음에서 나병이나 나병환자는 죄인으로 그려집니다.

나병은 세 가지 이유로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육체가 추악하게 되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나병환자들은 격리됩니다. 그렇다고 나병환자가 곧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성인들도 계십니다. 오늘의 강론은 나병환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그려진 나병의 상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나병은 기형적인 육신을 나타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세균으로 인해 피가 맑지 못하여 종기와 부스럼이 생기고, 이것이 성하면 고름이 흐르고 정상적인 사람의 외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병환자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죄인은 본 모습을 잃어 추악하게 된 영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자는

하느님의 모상을 잃게 되고 아름답던 천사가 죄로 인해 추악한 마귀가 된 것처럼 추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때 아름다웠고 순결했으며 이 지상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이 되어 몸을 숨겼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죄를 짓는 바람에 결국 돼지와 함께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에 떨어진 영혼의 상징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은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 필립보 벨리 성인, 비안네 성인 들은 썩은 오물 냄새로써 죄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 죄를 지은 불쌍한 영혼들이여, 태초에 있었던 당신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나병은 감염됩니다. 나병은 부주의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과장된 말이고 감염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죄인 역시 감염됩니다. 죄인과 어울리고, 놀고, 말을 할 때면 늘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 곁에서는 나쁜 것을 배우게 되며 죄인은 마귀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표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악한 표양 때문에 세상에 양화롭다.” 어떤 이들의 나쁜 표양은 마귀의 직접적인 부추김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루치펠이라는 마귀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영국은 국왕한 사람 때문에 이교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때문에 타락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남편 때문에 타락한 여성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자 안에 좋은 사과 20개와 썩은 사과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좋은 사과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가 금서로 지정하는 책은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병환자들은 따로 떨어져 삽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홀로 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병환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도 인간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예전에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듯이, 죄인들을 이렇게 당신의 면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은 하느님과 천사들과 성인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나병환자들은 생활비를 벌 수 없어서 구걸을 해야 합니다. 죄인들 역시 어떠한 공로도 얻을 수 없고 얻었던 공로를 모두 잃게 되고, 죄 중에서 그가 하는 일은 하늘에 닿지 못하니 죽은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열 명의 나병환자처럼 죄인이 구속자 그리스도를 향해 겸손하게 외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은 결코 치유받지 못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기에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힘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여,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슬픈지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문둥병자들처럼 어서 빨리 치유받기 원하고 예수님께 치유해 주십시오고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시도 늦추지 말고 사제에게 달려가 당신 영혼 안의 나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사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씻겨진 당신의 영혼은 은총을 받아 다시 아름답게 될 것이며, 성인들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제13주일
(1968년)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 복음에는 열 명의 나병환자가 함께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은 이에 감동하여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병환자들과 같습니다. 나병환자는 죄인의 그림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임을 배우시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훨씬 강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홀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본당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전 교구가,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 덕분에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상기하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 하나 하나를 볼 때도 행복하겠지만,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때면 그 아버지는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표시이니까요. 환갑날이나 아버지가 병중에 계실 때, 장례 때에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느님도 사람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느님도 본당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면 혼자 기도할 때 자주 잊곤 하는 기도문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분심이 적습니다. 주의 기도를 혼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섯 번만 해 보십시오. 공동기도에는 서로 좋은 표양을 주고자 하는 경쟁심이 있습니다. 열심인 사람들이 분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충해 줍니다. 공동기도에서 하느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동기도는 가장 자비로운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기도는 보다 효율적인 기도입니다. 여럿의 가슴에서 나오는 한 외침이 하느님께로 올라가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집트에서 울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단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밝혀줌으로써 진리를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얻은 레판토의 승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공동기도는 신자들의 자격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르시기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 짓는 것은 일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갈망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시다”를 외치는 것을 이사야와 성 요한은 보았습니다.

공동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가 약하고 권위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쁜 표양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당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들처럼 하느님도 어느 자식 하나 빠지면 서운하셔서, 다른 자식들도 덜 사랑하시고

은총도 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하느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앞에서도 더욱 강한 힘을 보여줄 테니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탄복할 것입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같은 가족, 같은 나라, 같은 마을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공동으로 청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 역시 그 분을 받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니 후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성령 강림 제13주일
(1969, 1971년)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열 명의 나병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한명 외에는 아무도 돌아와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자가 없구나.”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아 이교도인, 부정한 사람, 상놈으로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여 그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로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래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누어져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각각 맡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두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나병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 복음은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있는 이를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제관)도, 레위 사람(사제)도 그 상처받은 사람 옆을 그냥 지나쳤으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전에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너무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걸어오십니까” 하면서 어떤 장소에서 하느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세겜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기쁘게 믿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여긴 이방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였고 믿었으며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해 관계로 믿고 있으며 존경받기 위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조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훌륭한 신자들을 보면 종종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 새로 세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일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저는 사제입니다만 제가 가장 열심히 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보다도 더 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직함도 아니며 천국에 간다는 증명서도 아닙니다. 신자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마리아인이든 상놈이든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제14주일

구원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덩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명하시면서 우리 영혼 구원에 맞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매순간 명심해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1. 하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로써 세상을 다스리시며, 강생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모든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구유를 보십시오. 십자가와 감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올해에 일어난 가뭄과 홍수, 심지어 이런 재난으로 인한 불행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2. 하늘나라의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들은 일찍이 하느님을 위해 일하고 고통받으심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지상에 다시 온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 지옥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 생전에 재물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찾고 갈망하더니 이것이 다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4.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구원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과 돈 몇 푼 때문에 갖은 걱정을 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어서 하느님과 함

께 영원히 행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인 까닭은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나 이 일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나, 하느님도 나 없이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은 없어도 살 수 있고 지식과 건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없이 산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는 있지만 결코 영혼까지 바칠 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내 영혼의 일을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무엇이 내일을 보장합니까?

만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할까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항상 구원을 생각하며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매번 행동할 때마다 이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하십시오. 만일 나쁜 행동이라면 끊고 유익한 행동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할 때나 판단을 내릴 때나 말할 때나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2. 효율적으로 구하십시오.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따르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의 기회를 피하려는 단호한 의지와 해야 할 일을 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3. 열렬하게,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십시오. 마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정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 보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여 악을 피하고 선행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성령 강림 제14주일

(1969, 1971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복음도 있구나!’ 오늘 복음을 들으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가!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지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양식으로 먹고 살았으나 오늘날에는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고되게 일해야만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다른 걱정보다 영혼 구원부터 생각하여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에만 집착할 때 유혹이 되는 것이며 그 끝은 없습니다. 우선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하던 바람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전답을 갖고 싶고 그리고 라디오, TV, 자동차, 냉장고...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재물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로잡는 그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의 부는 한계가 있으며 늘 무언가 부족하여 자꾸만 또 다른 것을 청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로 남아 있고 또 세상의 부자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육신을 위해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껏 마음을 다해 일할 때 우리는 평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말씀하십니다.

1.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하느님은 무(無)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옷을 주시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그건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2. “공중의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느님께서 하물며 미물인 새들도 거두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먹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주신 일을 우리가 못 미더워하고 걱정하며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3. “너희 중에 누가 걱정을 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으며,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또 추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믿음을 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의 힘만 믿는 자들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저 바벨탑을 보십시오.

4.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서는 순식간에 지고 마는 들꽃도 꾸며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주지 않으신다면 이는 우리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기에 하느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5.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그저 물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높이 하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지상은 진흙에 불과합니다.

6.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요긴한 줄을 너희 성부께서 아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서 주시며 또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 아드님마저 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필립 4,6).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버지시라면 왜 우리를 궁핍하게 살아가도록 가난에 쪼들리게 내버려두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주시지 않으실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고자 하심이며, 혹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며, 혹은 우리의 탐욕과 인색함을 꾸짖고자 하심이며, 혹은 불필요한 것에 대한 애착을 나무라고자 하심이며, 혹은 재물을 남용한 것에 대한 보속을 주시고자 하심이며, 혹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혹은 재물이 우리의 것도, 우리의 당연한 몫도 아님을, 하느님만이 최고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제15주일

장례식

오늘 복음은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임의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무덤까지 어머니를 동반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비의 행위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당신 역시 외아들이시기에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어 그 아이를 부활시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느 날엔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면 “아이고, 아이고” 하며 목놓아 울며 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기도 한마디 없이 집에서 곧장 묘지로 실어 가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죽은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믿음을 지녔다면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교우들이 와서 연도를 바칠 것이며, 시신을 교회로 안치해 장례 미사를 드릴 것이며, 이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대 위로 오시어 모여 있는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의 사함과 영원한 복락을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교식의 장례를 택하여야 합니다. 어떤 외교인들은 우리의 장례식을 보고 교회의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장례를 이해하려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종시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영혼은 육신을 떠나 하느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개별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후에 영혼은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떠난 육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므로 곧장 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육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공로를 쌓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하여 바로 이 육신 안으로 수없이 내려오시기도 했으며, 성령께서 육신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신을 즉시 묻지 않고, 육신 또한 영혼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장례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신을 생전의 집에서 교회로 옮겨 모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심판을 다소 재연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데 그곳이 말하자면 하늘나라인 셈입니다. 시신은 우선 그 첫 여정에서, 집을 떠나 교회로 가는 동안 심판에 대한 불안 속에 놓이므로 그 불안을 교회는 “자비를 베푸소서”로써 달래줍니다. 두 번째 여정인 교회 안에서는 심판이 재연되는데,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변호사처럼 참석하시어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십니다. 이때 하늘의 천사들과 동정 마리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오는데, 이때의 ‘기리에 엘레이손(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고인의 부르짖는 절규를 듣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시신 위에 성수를 뿌리는데, 이는 고인은 그리스도인이므로 마귀와는 아무런 불일이 없다는 것을 마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모든 공덕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향을 피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제는 “하늘나라로 가시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여정인 묘지로 향합니다. 이때의 성가는 평화로우며 이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장례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웃고 먹고 마시는 외교인의 장례식보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고인을 돕는 최선의 방책은 바로 미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고인을 위한 미사 봉헌을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봉헌된 모든 미사에서 사제는 가족을 밝히므로 그 가족들은 미사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고인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한 비록 미사만큼은 못해도 연도를 바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연도는 공로이니 고인에게 유익합니다. 연도는 전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외교인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예식과 비교를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연도를 바치려면 단체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장례식 전날 저녁 모두 함께 가십시오. 결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도를 바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고인의 가족이 종종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하지만 적당히 거절하십시오. 가능한 한 금욕을 하십시오. 고인의 가족도 금욕을 봉헌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체를 모십시오. 제가 특히 권장하는 것이 이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성령 강림 제15주일
(1969, 1971년)

영적인 죽음, 지적인 죽음, 게으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외교인들은 물론 심지어 신자들도 대부분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여 육신의 죽음만 떠올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매우 유익한 것이기에 교회에서도 특별히 위령의 날을 두어 함께 생각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다 갖추고 있기에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은 물론 영혼의 죽음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 있지만 실상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 무지한 이들, 게으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첫째, 죄인들을 봅시다. 이들은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자연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신에서 이탈하여 육신은 시체로 변하고 맙니다만,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찾았느니라”(루가 15,28)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으려면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하느님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루가 10,28)고 대답하셨습니다.

죄인이야말로 진정 죽은 자입니다. 그는 살아 있되 실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선행도 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늘 거룩한 은총을 간직하도록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죄의 기회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달은 순교자의 달입니다. 순교자들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였고,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을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합니까?

둘째, 무지한 사람 역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오류 속에 있으므로 지적인 면에서 그들 역시 죽은 사람이며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상업이나 농업, 정치에 능통하고 과학적 지식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모르면 실상은 그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창조주께서 수백만의 가치를 지니신다면, 피조물은 1원 짜리의 가치에 지나지 않아서 1원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빠진 그들의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그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적으로 죽어 있는 수많은 이방인을 보면 참으로 슬픕니다. 또한 교리를 모르는 신자들이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슬픕니다. 이들도 거의 죽은 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참회할 줄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다면 그들을 무지하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게으른 사람 역시 의지의 죽음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는 말하는 법이 없고 움직이는 법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들, 자녀와 이웃들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도의 일을 하지 않는 신자들은 시체와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같아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한 15,5),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요한 15,16).

형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좀더 생각해 봅시다. ‘나도 죽은 사람은 아닐까? 나는 은총이 없는 죄인은 아닌가? 나는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병어리나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이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강림 제16주일
(1969, 1971년)

미사

옛날 유대인 시대에는 주일(주님의 날)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모세도 하느님의 명에 따라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역시 이날을 엄격히 지켜서 주일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 심했던 거지요. 그들은 늘 주일에 허락된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따지기를 좋아하여 주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허락된 일입니까?”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주일을 마땅히 지켜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사는 희생제입니다. 제대 위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는 갈바리아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봉헌하는 것이지 죽은 이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주인이심을 재확인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오래된 종교 행위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희생제가 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노아, 멜키세덱,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만큼 제대 위에 고귀한 제물을 봉헌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봉헌물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봉헌하는 이도 역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제는 오로지 한 분이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사제는 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큰 공로가 되는 것을 바칠 수

는 없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하나님께 네 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흠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을 흠송하실 수가 있는데, 미사 중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시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흠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벌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 유다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물론 벌하시지만, 만일 미사가 없었다면 그 벌은 더했을 것입니다. 알퐁소 드 알부케르크라는 항해자는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자 어린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풍랑이 곧 가라앉았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에 안읍시다.
3.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한들 미약하기만 한 우리의 감사는 제대 위의 예수님의 덕분으로 우리의 감사는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4. 그리고 계속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비천한 우리가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반대자들(병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구경꾼, 이방인들), 친구들(마리아, 요한, 막달레나)입니다. 미사는 갈바리아 산의 희생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므로 미사를 통한 희생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적들인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해 성사를 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2.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호기심으로, 체면상 믿음도 없이 사랑이나 공경심도 없이 이방인들처럼 회개도 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3.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한과 막달레나처럼 열심히 공경드리며 감사드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도 미사에 참석하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처럼 이렇게 찬미합시다. “천사들이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가 흠송하며 능품 천사가 두려워하고 복된 세라핌이 함께 즐거워하며 환호하오니, 우리 또한 소리 맞춰 겸손되이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강림 제18주일

미지근한 신앙

육신이 마비된 중풍 병자에 관한 복음은 냉담과 무관심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흠숭하고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관심을 경계시키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여러분은 쉽사리 그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으니, 이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냉담자가 너무 많은 그의 고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같은 신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또 교회 옆에서 거주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기에 피해야 합니다.

냉담자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이 원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나에게 영혼이 있는가?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죽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생각할 뿐입니다. 중풍 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발이나 손을 쓰지 못합니다. 20년을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이나 발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냉담자는 그의 지적 기능이 중풍 병자처럼 마비가 된 사람이라 그의 지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는 늘 지상에 달라붙어서 결코 하늘나라를 향해 하느님께로 날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지함이 원인입니다. 이 지상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학자들마저도 무지합니다. 천체 과학이며 의학, 전자학, 기계, 상업, 농업 등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들은 많지만 그들도 하느님과 영혼, 하느님의 강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항상 물질만 생각하고 하느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지 아십니까?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너무 바쁜 것이 원인입니다. 늘 육신과 돈, 생활 걱정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오로지 잘 궁리와 놀 궁리만 합니다. 하느님과 영혼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죽을 때에나 하기로 미루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니 그들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넷째는 지나친 탐욕이 원인입니다. 육신의 욕정과 마시는 것에 대한 탐욕과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은 한 번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종교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따분해 보이지만 그러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마비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 하느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와 자기를 위해 고생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느님께 어떠합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밀도 없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마다 사람들이 그 주위를 돌다가 그 구덩이로 빠지고 또 빠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주위를 돕니다. 자기의 부모와 친구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주위를 맴돕니다. 이 얼마나 헛된 짓인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을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관심은 모두에게 큰 불행입니다. 무관심한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오류 속에 빠져 있고 진리가 확산되지 못하며 죄를 짓게 되고 학문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양심의 법과 가정, 조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도둑과 분열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는 기계나 대포가 아니며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 진보 없이는 종교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굳은 결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걸어라”는 것은 좀더 용기를 갖고 더욱 분발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열정을 품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이웃을 가르쳐서 모든 신자가 한 해에 예비자 한 명씩은 이끌어야 합니다. 시간이 다급합니다.

“네가 미지근하기에 나는 너를 뺏아 버리리라.”

성령 강림 제19주일

신비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와 혼인한다 말입니까? 혼인할 때는 마땅히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제 부모를 떠나고 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한 것처럼 혼인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와 혼인하시어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또 “미소한 자에게 무엇이든지 베풀면 그것이 내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로 인해 하느님의 적이요, 마귀의 친구였으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십니다. 누더기에 덮여 있는 걸인 신세의 우리들을 예수님은 예복으로 차려 주시니, 그것이 바로 성화 은총입니다. 그날부터 아버지 하느님은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은 예수님의 모상을 보십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받는 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 순명하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성녀 아네스는 “나는 천사들이 섬기던 만왕의 왕하고 혼인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머무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가 차려입은 옷이나 그가 소유한 재물, 그가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한 사람됨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과 더욱 결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체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는 영성체를 해야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성 바오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성체를 열렬히 갈망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미, “내 영혼은 하느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을 갈망하나이다”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와 성체는 이미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대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와 영성체 안에서의 결합은 우리를 하늘나라와 결합시키기 위한 관문입니다. 저 높은 곳과의 결합은 영원한 결합이며 완벽한 결합입니다. 우리가 영세 때의 맹세를 잘 지켜서 혼인 때 받은 예복을 잘 간수하고 거룩한 은총을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복락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신성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니 이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또한 영화롭게 되리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혼인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 번 되새기십시오. 영세 때 드렸던 여러분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도 매순간,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영성체 하고 믿음과 희망과 자비의 행위를 자주 행함으로써 또 깊이 갈망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본보გი이십니다. 하느님과 가장 일치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 천사들이 우리 앞에 앞장서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오십시오. 영원하신 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화관을 받으십시오.”

성령 강림 제19주일

거룩한 은총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잔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성체에 초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초대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느님은 우리보고 예복을 차려입고 잔치에 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이 예복은 바로 성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없이는 영성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하늘나라를 희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은총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얻으면 교리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저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강생하셨는지,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7성사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지, 왜 순교자들이 있는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를 얼마나 많이 암송하십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은총이 없으면 평화와 하늘나라에 갈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설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은 교회에 들어서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총은 어떤 이름이나 생각처럼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보지 못하지만 하느님과 천사들은 완전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화 안에 머물 때 조금이나마 은총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육신은 시체이며 육신은 영혼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살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그 어떤 것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느님과 결합이 그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에 의지하여 살지만 영혼은 육신에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결합되니까? 믿음과 순명으로 예수님과 하나 됨을 통해서입니다. 아담은 본래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었으나 죄로 인해 하느님에게서 떨어졌고 영혼의 생명을 상실하고 육신의 생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어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순명으로 우리의 구속자와 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육신과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육신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양식과 열매, 산, 동물들... 무궁무진합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의 육신은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더욱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총을 주셨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은총을 지닌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혼의 생명은 훨씬 중요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염려하여 매일 땀 흘려 일을 하지만 그 생명을 언제까지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신자인 우리 자신도 과연 영혼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총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결합되어 있듯이 은총은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공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머뭙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은총이 없으면 육신만이 살아서 이방인처럼 살 것이며 영혼은 그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 이 지상에 살아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귀의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은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잔치 때에 입고 오라고 말씀하신 예복, 즉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제20주일
(1969, 1970년)

믿음의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20세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세기 사람들은 놀라운 기계를 발명하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라디오나 TV가 있는 가정에서는 잘 알 것입니다. 저 멀리 달나라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듣고 하니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또, 큰 공장에 가보면 전자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해의 지출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이며, 어느 건물의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달나라로 우주선 하나를 띄우려면 엄청난 양의 어려운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버튼만 누르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답이 나와 지구에서의 출발 시각과 달 착륙 시각, 연료 소모량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계가 이러저러한 검사를 한 후에, 환자의 병명이 무엇이고 어떠한 처방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줄 날이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만큼은 절대로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튼 몇 개만 눌러서 즉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러한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계가 모든 물음에 답변을 해주고 복음 말씀을 다 설명해 주고 참 교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위대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다 설명해 준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사전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예수님 안의 믿음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 자체를 줄 수는 없으며 우리 대신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자의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믿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수학 문제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처음 물에 들어가 헤엄을 쳐보는 모험처럼, 지구인이 달나라로 떠나는 모험처럼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심하는 것 역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자 애를 태우던 아버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의사에게 달려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청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기에 이 예수라는 의사가 과연 와 줄 것인지, 아닌지 또 제때에 맞춰 와 줄 것인지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저분의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하나 했을 것이고 어쩌면 속으로 ‘주님, 그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집까지 와 주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르며 또 어쩌면 그 사람은 낙심과 근심과 실망에 차서 되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어떻게 전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고 갔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의사보다 더 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 보니 과연 아들이 다 나왔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믿는 것이 더 쉬울 텐데... 내가 만일 석학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만 있다면, 내게 전자 계산기 같은 것이 있어서 내 믿음을 다 풀어 줄 수 있다면 믿는 것이 수월할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라서 보고, 배우는 것을 초월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야만 됩니다. 장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마땅히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을 더 키워 주십시오.

성령 강림 제20주일
(1971년)

병고와 시련에 대해서

“어떤 고관의 아들이 병들었다.”

하느님은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에게 고통이 생기고 병고가 생기고 슬픈 일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점들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유를 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를 들듯이 고관은 아들의 병 덕분으로 그와 그의 식구들이 모두 은총을 받았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자주 고통을 보내실까요?

우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흔히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어리석게 처신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말고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없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왜 이런 고통들이 옵니까?

1.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최고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실지어다.” 대사제인 엘리는 “당신은 하느님이시니 당신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으며, 다윗 왕이 시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니 나를 저주하도록 그를 놔두어라” 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자주 잊고 있기에 하느님은 이런 시련을 보내시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의 사무엘 하권 14장 29절을 보면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압살롬이 두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 요압을 불렀으나 그가 와 주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지려고 곧바로 달려오니 압살롬은 “너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고통을 보내시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를 부르시며 죄를 버리고 당신 곁으로 다시 오라고 권고하시나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병고와 슬픈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아들의 병을 통해 고관을 회개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2. 하느님께서서는 정의를 실행하시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 고통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사는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무서운 병이 네게 가해질까 염려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고통이 닥쳐오면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는 많은 죄를 범했기에 마땅히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잘못을 통회할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하느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결국 고통은 죄의 기회를 떼어내는 예방책인 것입니다. 성녀 베드로닐라는 늘 병석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인께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니 성인께서 답하시기를 “이 병은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늘 병고를 불평합니다만 만일 그 병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추악해졌을 수도 있고 술꾼이나 놀음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지리도 가난하다고 불평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부자였다면 하느님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성인을 찾아

가 많은 돈을 주며 하느님께 치유를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죽고 그 아버지가 비통해 하자 사제인 성 요한이 말하기를 “아들의 죽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만일 아들이 치유되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돈을 흠쳤을 것이고 아들은 방탕에 빠지게 되어 둘 다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쾌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하느님께 되돌려보낸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4.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상을 더욱더 닮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에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공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비트가 눈이 멀게 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의 시련을 주신 것이다.” 또 성 바오로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성인들처럼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우리의 십자가와 고통을 사랑과 감사로써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제20주일
(1971년)

네 번째 계명: 부모의 의무

오늘 복음에서는 병든 자식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두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돌보느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영혼도 것처럼 돌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육신보다 영혼에 의해 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니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하는 네 번째 계명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교육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명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약해서 아이에게 명령하거나 나무라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 그저 다 귀엽기만 해서 뭐든지 잘한다고만 하며, 아이가 잘못해도 별하지 않고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벌하면 약한 부모들은 아이만 옳다고 믿고 즉시 선생님을 탓합니다. 참으로 말하기에도 쓸쓸한 일이나, 그런 가정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분명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부모들보고 자녀에게 명령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는 유아 시기부터 자기 뜻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매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순종할 줄 모르고 늘 제 변덕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의지가 약해져서 노력도 할 줄 모르고 훗날 제 직분도 완수

하지 못하며 유혹도 물리치지 못하여 옳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할 때만이 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삼십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루가 복음). 그러니 부모는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운다고 단념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까지 벌을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벌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하고 살펴야 합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나 자녀를 감독하는 것은 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나 소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를 감독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어 악이 눈으로 귀로 들어가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부모가 속을 꿰뚫는다 한들 그때 너무 늦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정에서는 악하고 위험한 책들이나 소설들을 멀리 치우고 아이의 친구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선한 것들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성장하면 그때는 자녀를 따라다니며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주 기도하십시오. 모니카 성녀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감독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배워야 하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셋째, 실천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데는 좋은 표양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은 언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병정 놀이, 기차놀이, 가게 놀이, 엄마 아빠 놀이... 아이들은 놀면서 어른들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부부 싸움이나 술 취한 모습, 거짓말, 흠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며 아름다운 생활, 나무랄 데 없는 생활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아이들이 아주 잘 컸기에 가장에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의 대답이 “저는 좋은 표양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도해라 하지 않고 같이 기도했고, 미사에 가라 하는 대신에 같이 미사에 갔으며, 성체를 모셔라 하지 않고 같이 나가서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좋은 모범을 보이며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성령 강림 제22주일

하느님께 대한 의무: 청빈, 정결, 순명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여러분은 이미 수도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혼자 사는 법이 없이 여럿이 함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에 하느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여 삼대 서원과 종신 서원을 합니다(복음 삼덕). 모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부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육신과 영혼을 받습니다. 수도자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립니다. 청빈 서원으로 세상의 부를 포기하여 이것을 하느님께 되돌리고, 정결 서원으로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순명 서원으로 영혼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재산과 육신과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수도자가 아니어서 수도자처럼 완전히 봉헌하지 못한다 해도 하느님께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느 정도의 부와 재산과 땅과 집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이것을 당신에게 봉헌하길 바라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주신 재산을 사용하므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편히 쉬게 하는 데 씀으로써 여러분도 거의 수도자처럼 청빈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재물을 술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며 노름과 난봉으로 낭비한다면 하느님께 진 빚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므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재산은 몸입니다. 여러분도 수도자처럼 몸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몸은 선행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몸은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것이므로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죄이며 여러분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몸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하느님께 돌리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법을 완수하는 데 몸을 사용하십시오.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이웃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도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도 수도자들처럼 정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재산은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야말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으니 더욱더 하느님의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당장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원래의 당신 모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영혼은 성삼과 마찬가지로 기억, 지력 그리고 의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은 하느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지력은 하느님의 덕행을 목상하며, 의지는 늘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명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금하시는 것을 하지 말고 늘 시간 시간마다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수도자처럼 순명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총장 수녀님 혹은 총장 신부님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교회와 수도원의 장상과 부모와 교사와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계명을 실현시키십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 빚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수도자처럼 청빈을 서원하고, “가난한 이는 복 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정결을 서원하고,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순명을 서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제23주일

믿음의 유익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마르 5,34).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부활시키기 전에 한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회당장에게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어서 어디다 써먹느냐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이러저러한 규율에 순명해야 하므로 종교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면 왜 믿겠습니까? 믿음은 수많은 혜택을 줍니다. 오늘 이 점을 잘 새겨두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빛이며, 믿음은 힘이며, 믿음은 버팀이고 위로입니다.

믿음은 빛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력을 밝혀주어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 무한한 완전성과 섭리,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창조주를 알게 되었으니 피조물만 알고 사는 것보다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작은 영혼을 지녔다면 무슨 설명이 필요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끝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각자에게 걸맞는 놀라운 방법들을 쓰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리반에 오는 어린아이도 아는 이 진리를 박식한 외교인 ‘박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믿음은 힘이며 우리의 적을 쳐부수는 무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 가지 적이 있으니,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정입니다. 영혼의 세 가지 적은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이 없으면 이를 통제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유혹에 굴복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이 불가능해지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유혹을 쓸어버릴 힘을 얻게 되며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을 보며 우리의 공로나 수고, 우리의 비루함도 보게 되니, 믿음은 우리가 받을 벌과 보상을 보여주며 지옥과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옛날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승리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기도하면 가장 큰 유혹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갈망과 가르침을 되새기게 해주므로 승리를 얻게 되며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움을 얻어 위로를 받습니다. 회당장은 딸을 잃은 줄 알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가슴앓이를 합니다. 병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아픔 때문에... 비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 해도, 비록 우리가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완전히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믿음을 통해 이러한 고통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합당하고 옳은 것임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지 않음을 이해하여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며 고요를 되찾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고통은 예전의 고통받지 않고 지었던 죄를 갚기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보속하기 위한 고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는 정신으로 참아 받는 고통은 공로의 원천이 됨을 이해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되면서 우리들은 세상의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성령 강림 제23주일

믿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이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선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회당장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그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고 믿기만 하라”(마르 5,36). 이어서 가난하고 겸손한 어느 여인이 치유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지 않는 자는 판단함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갈까요? 가만히 보면 신자들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지옥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선 외교인들 가운데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닐 경우를 말합니다. 예로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

든 것을 아시며 선하시고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임종 전에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도와 믿음을 주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무지는 여전히 죄이므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름이나 체면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말로는 종교는 좋은 것이며 믿어야 한다 하면서도, 너무 엄격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도 벌하실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니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는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인 다음으로 배교자를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처음엔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나 믿음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되돌아가거나 종교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냉담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사실 배교자입니다. 이는 중죄이므로 이런 사람들은 멸시를 당합니다. 콘스탄틴의 아버지인 콘스탄스 황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고관들을 시험해 보느라고 우상 앞에서 희생제를 바치라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고관들은 모두 이를 거절했으나 단 한 사람이 황제의 비위를 맞추느라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쁜 종이다. 너는 하늘의 임금마저도 배신하는데 하물며 지상의 왕인 나야 어떠하겠는가...” 하면서 그의 직위를 빼앗았고 다른 고관들에게는 상을 내렸답니다.

배교자들은 흔히 선행을 행해도 큰 실패만 맛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배교자들이 믿음을 포기하는데는 믿음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기가 부족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하여 죄 짓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하느님을 흠송하지 않는 외교인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배교자 다음으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매우 신중하고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들 역시 알게 모르게 믿음에 반하는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말씀의 일부만을, 말하자면 90%만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프로테스탄트인이 요한 마리아비안네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끝에 그 프로테스탄트인이 성인에게 말하기를 “저도 당신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했더니, 성인께서 대답하기를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 먼저 이 지상에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프로테스탄트인이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자, 성인이 다시 답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마태 18,17)고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는 두 갈래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 길 하나뿐이니,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교인과 배교자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들 다음으로, 믿음을 거슬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냉담자와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우유부단합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

신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욕신의 배를 신같이 떠받치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지상의 것만 탐하는구나.”

어느 날, 배에 타고 있던 한 신자가 믿음에 대해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안간 폭풍이 일자, 그는 선박 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던 한 사제를 보고는 목주를 빌려 달라고 청해서 열심히 목주 기도를 했습니다. 폭풍우가 가라앉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평화로운 때는 무신론자이고 위험이 닥칠 때만 하느님께 돌아오는군요”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17년 전 이곳 논산에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많은 냉담자들이 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물러가자 그들은 다시 냉담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변하지 맙시다. 굳건하게 믿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답게 더 진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며 하늘나라로 향한 길입니다. 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강림 제23주일

의로운 사람의 죽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잠일 뿐입니다. 이 11월은 연옥 영혼들을 위한 달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할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은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두고 예수님은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죽음을 잠이라고 칭했으며 스테파노 성인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주님 안에 잠들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에 들었다가 아침이면 깨어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시간이 오면 잠들었다가 부활 날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덤을 침실이 라고도 합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그에 걸맞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토비아를 보십시오. 생전에 많은 선행을 했던 그는 평화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임종이 다가오자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느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체물이 되려 하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이미 좋은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보존하였다. 이제 정의의 월계관이 내게 준비되었으니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월계관을 주실 것이다” 했으

며, 또 성서에 이르기를 “그때 하늘에서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는데도다. 이제부터 제 노고를 풀고 쉼이니 이는 저들의 행실이 저들을 따르는 까닭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죽음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성인들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덧없기만 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요한 금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왕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고대광실을 한 채 지어준다고 합니다. 이 짐을 짓고 있는 동안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임시로 외양간에서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서 빨리 외양간을 떠나 고대광실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모든 악, 유배 생활, 그리고 모든 고통에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의로운 죽음을 맞습니까? 의인처럼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덕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제24주일

(1965, 1969년)

부활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젊은 여러분도 늙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병을 치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조금씩 원기를 잃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체가 되어 금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신이 늘 흙의 상태로 있겠습니까? 육신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영혼이 언제까지나 육신과 떨어져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엔가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새롭게 나와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천사들이 하늘의 극변에서 저 극변까지 사방에서 간선된 자를 모으리라”고 하였고, 또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역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자들 가운데에서조차 부활이 있다고 설교하셨으니 어찌 몇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며 악을 행한 자는 나와 죄의 판단함을 받기 위해 부활하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교회의 옛 교부들인, 성 아우구스티노, 아타나야스, 테르툴리아누스 교부들은

모두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나이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장례 예식 때의 시신에게 바치는 예우와 신자들 묘소 그리고 묘비들이 바로 교회의 육신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가 되면 저마다 본래의 제 육신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후에 내가 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나의 육신은 썩은 후에 하느님을 직접 뵈오리라”고 말했으며, 또 성 바오로는 “이 죽을 몸은 불사 불멸성을 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전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육신을 창조하는 것과 육신을 보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왜 우리 육신은 부활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은 영혼을 도와 선행도 하고 악행도 지었으니 육신 역시 영광과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육신은 멸시받아야 될 무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멸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은 가장 으뜸가는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도 사람이셨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썩도록 놔두어 당신의 아들과 어머니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신과 함께 성사를 받고, 세례로써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보호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마땅히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속죄하러 오셨습니다. 아담은 불멸의 몸이었지만 그의 죄로 우리의 몸은 죽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으니 우리는 전과 같이 죽지 않은 불멸의 몸으로 다시 되어야 합니다. “죽음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부활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육신은 영광 속에 부활할 것입니다. 성 마태오는 “그때 의인들은 그의 아버지 나라에서 태양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성 요한은 “저들은 이제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과 그 어떠한 뜨거운 열도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어떠한 비애도 탄식도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전에 것은 모두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나 그들의 부활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예제키엘 예언자가 전하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읽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예언자 예제키엘에게 미리 그 광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예제 37,1-15). 마카베오의 어머니는 순교하는 그의 막내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권고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를 탄생시켰다. 그분의 법에 순종한다면 네가 잃은 생명을 어느 날 자비로이 되돌려주실 것이다.” 순교자인 성 아르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해자가 그의 손과 발을 자르자 그분은 잘려나간 수족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 수족을 하느님을 위해서 잃었으니 하느님은 어느 날엔가 나의 이 수족들을 나에게 돌려주시리라.”

형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매일의 의무를 잘 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만이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끝 날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 날에 관한 내용으로 연중 축일이 마감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바로 그 날에 마감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 날에는 큰 권능을 띠고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재림만큼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척이나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곧 일어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성 바오로와 성 요한, 성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많은 신자들이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 자주 묵상해야 하며 또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 이 세상 마지막 날을 갈망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강생하기 전, 성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었습니다. “너희는 선물로 어린양들을 보내어라...(이사 16,1)” 성인들이 열렬한 갈망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참된 성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창조 이래 원죄가 있는 후로 성인들은 하느님 오심을 갈망하였으니, 이 갈망은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재림을 기다렸으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적으로부터 해방되어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 끝 날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은 비로소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영광과 보상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군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끝 날을 갈망해야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은 영광 안에서 모든 이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생 후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모욕을 받으셨으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도 또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 것이며 사악한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열심한 신자들은 이날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들고 우러러보라.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열심한 신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며 순수한 마음을 간직합니다. 이들에게 이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려 온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열심한 신자들이 갈망해야 할 세상의 끝날을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 끝날의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부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죄 중에 있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세상 끝 날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와서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초대받은 이는 많으나 선택된 이는 극히 적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과 피조물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대부분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미사 동안 진실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결하고 충실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는 자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본당 신부로서 권고합니다. 자신을 감시하십시오. 죄와 죄짓는 기회를 피하시고 순결하게 머무시고 세례 때 받은 은총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 지상의 것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느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영광 안에 계시는 당신을 뵈옵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삽시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
(1968년)

“그때 환난이 지나고 곧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제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리라. 이에 사람의 아들의 표가 하늘에서 나타나리라.”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 읽으셨겠지만, 오는 12월 21일 미국은 우주선에 3인을 태워 발사할 예정인데 그 우주선은 성탄일에 달 주위를 여러 바퀴 돌고 12월 27일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대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들 사람은 과학의 힘을 빌려 늘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의 그 욕망을 말릴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첫 조상에게 권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른 사건은 바로 하느님께서서는 강생과 성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사람의 영혼 안으로 내려오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상승하려는 사람과 내려오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이 두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잘 살려고, 또 높이 오르려고, 공간을 더 차지

하려고 애써야 합니까? 아니면 좀더 하느님을 생각하려고 애써야 합니까? 오늘의 복음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나가오 마는 분이 아니시므로 하느님이 더 중요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학자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지상의 모든 것이 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와 별보다 더 단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이 떨어진다면 사람이 하는 것은 물론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역시 멸할 것이며 대제국들과 권력자들도, 유명한 가수나 배우, 챔피언들도 멸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느님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 표징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도 주지 못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참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며 이 세상 끝 날에는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의 행적만이 남을 것이며 사랑 없이 욕망이나 미움으로 행해진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큰 행복 속에서, 환희 속에서 부활할 것이니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그리스도, 그중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자녀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마다 가장 유일하며 진실되고 위대한 행동을 완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끝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지식을 숭상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서는 하느님을 세상 끝 날까지, 심판 날까지 한 편에 밀어 놓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먼 훗날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로 강림하십니다.

저는 홍산의 영세자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요즘 보십시오. 추수 때라는 구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흠송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떨하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1970, 1980년)

“네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요한 18,37).

우리가 복음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

다. 하느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속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은 내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믿듯이 그분의 왕위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은 그분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겠으며 연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아는 저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한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참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왕은 가장 위엄을 띤 최고의 인물이며,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며 백성을 돕고 인도하며, 백성에게 행복을 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1.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왕이십니다.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은 그 모든 것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창조를 통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통해 왕이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분께서 다시 찾아 주셨고 그분 덕분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예수님은 지혜와 지력과 선함을 통해 왕이십니다.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왕도 능가하는 왕이십니다. 지상의 왕은 조그만 나라에서 단지 몇 년을 군림하는 왕이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도처에 계시면서 모든 나라의 언어로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분 몸소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는 다른 마을에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또 제자들을 보내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유대인들은 그 뜻을 잘 이해했기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했습니다”(루가 23,2).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신성을 주셨고 당신의 피땀과 피로를,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몸을 내주셨고, 당신의 하늘나라와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우

리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 창조 전에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 나라를 와서 차지하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지상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을 사랑해야 하며 그분을 자주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 성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성 베드로께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십니까? 예비자들을 데려옵니까? 대세를 베푸니까? 우리의 왕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시 후 감사 서문경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신성과 성총의 나라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니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왕국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늘나라가 임하시며”라고 암송할 때 이는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1973년)

이제껏 우리는 여러 번 예수님의 축일을 기념하였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 왕이란 말은 예수님께 아주 잘 어울리며 이 외에 여러 말들은 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지상의 가교이며 우리의 힘, 희망, 기쁨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결합되고 귀족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왕직에 관하여 말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2.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3. 예수님의 왕직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내려오셨기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마귀의 지배에서 구하셨습니다. 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에 왕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민족들이 차츰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오기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

하시고 선하시기에 왕이십니다. 그분의 전능은 기적과 선하심, 하신 일로써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작은 자들이나 학자들도 모두 기뻐 용약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왕직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지주일의 예루살렘의 어린이보다도 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매일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2.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 왕국을 세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빵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자 사막으로 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개선하는 교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늘 수고해야 하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마음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왕들은 예수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개개인이 예수님을 안다면 계명과 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나라는 점점 강하고 선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적인 것에 순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이는 힘과 무기와 경찰로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훌륭한 양심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것만이 우리가 탐내야 할 부(富)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기에 이 나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많은 적과 마귀들과 그리고 악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왕국 옆에는 암흑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왕이시고 마귀는 어둠의 통치자입니다. 하느님은 마음이 착한 이들을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시험으로 고통받아야 합니다.

3. 우리는 예수님의 왕직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수녀입니다. 매일 일하러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서원을 다시 갱신해야겠습니다. 주님께 오늘 가난하고 순수하게 살고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한다”라고. 우리는 마귀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도처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모든 경우에 기도하면서 미사에 참석하면서 영성체하면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경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라면 실제로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의 노동자(일꾼)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결점을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가르치시고, 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매일 우연히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섭리로써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지는 하느님이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들은 당신의 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과 돈 그리고 쾌락과 육신 외에 다른 왕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수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서 행복할 것이며, 영원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왕 대축일
(1974, 1977년)

다음 주일은 새해가 시작되며 미사 경문은 첫 페이지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성 루가 복음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는 골고타 위에 세워졌고, 두 시간 내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은 제일 치욕스런 죽음이며 제일 큰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복당한 실패자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헤브레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왕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예수의 왕위를 부인하는 말들뿐입니다. 군중이 십자가를 바로 옆에서 쳐다보았지만 놀랍게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그들이 승리하고 예수가 정복되었다고 여기면서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자기를 살려 보라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여러 번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도 그들의 우두머리 옆에서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살려 보아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까지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라고 욕했습니다.

이 모든 도전에 대해 예수님은 못들은 척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전능한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이 모욕을 알아들었지만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못을 치워버리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며 당신의 큰 권력을 모두에게 보일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에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무한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강생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약하게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위는 예수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은 확실히 왕이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왕이셨습니다.

갈바리아에는 한 증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착한 강도입니다. 그는 다른 죄수를 나무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십자가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은 참으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의 왕’이라는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사형수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권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 왕의 말씀을. 예수님 홀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게다가 청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달은 죄인인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왕위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 직면한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초연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영혼 안에 일어난 한 일시적인 에피소드로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왕위를 가르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강생하시어 평범한 사람처럼 약하게 사셨고 상처받기 쉬운 분으로 사셨지만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3. 성 바오로의 골로사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 바오로 역시 우리에게 예수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한의 왕이십니다. 강생하시기 전에도 왕이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왕이셨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기에 왕이십니다. 이 지상에서의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의 왕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십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공현 축일, 부활, 승천 축일을 통하여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보았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 되신 인간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왕 대축일

(1976년, 요한 18,33-37)

우리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월남에도 그러나 이 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왕이 있지만 그의 권위는 점점 실추하고 있습니다.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 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의 일부분이기를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큰 축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 축일인데, 현대 정신 사조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야심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길 원함일까요?

복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대표자인 빌라도 앞에 고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서었습니다. 종교의 권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해 고소를 당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고문을 받으시고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이셨고 모든 제자들은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손 묶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장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에 계신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시관과 갈대를 지니신 왕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과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해 봅시다.

1.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고 예수님을 한 구석에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나에게 말해봐라. 네가 유다의 왕이냐?” 때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늘 예수님은 다시 되물음으로써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 말이 당신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관해서 사람들이 일러준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까?” 달리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당신이 알기를 원해서 합니까?” 제 대답을 받아들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마음과 삶이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통치자로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책임진 국가 질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2.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가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앉히려고 시도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산으로 피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말했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그리고 성지 주일날 군중이 모여 환호하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라고 불렀소. 그러나 나는 우습게도 당나귀를 타고 있었소. 로마 제국에 대해 어떠한 위험도 있지 않았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난 동안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나자렛인, 유다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단지 착한 강도만이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회 역시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로 왕 노릇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늘나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동방에서 온 왕들 역시 예수님의 왕위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왕위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 날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서 온 인류와 함께 신비스러운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신비스런 육신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이 시작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

의 나라는 시작될 것입니다.

3. 두 왕국이 있습니다. 진리와 빛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과 거짓 왕국인 어둠의 왕국이 그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우리들의 적인 마귀의 왕국입니다. 성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왕국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어둠의 왕국을 벗어나면 빛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리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오로지 사랑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천주를 사랑하고 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열쇠, 즉 각 사람들에게 운명 지어진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재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실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특히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홀로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잃으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이 사랑의 패권이 세상 끝 날에 나타날 것이고, 특히 오늘 이 미사 동안에도 이 사랑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실한 노예처럼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교황 주일

(1956, 1968, 1977, 1979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1요한 4,20)

로마에 성체처럼 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대리자이며, 보이는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을 존경하고 교황께 순종하며 교황을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리입니다.

1. 교황님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교황을 “세상에 계신 우리 닮으신 예수님” 또는 “성부”라고 칭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교황님을 뵈러 로마로 순례를 갑니다.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 대리석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그 발에 친구를 했던지 발이 다 닳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석상을 경배해서가 아니라 초대 교황이신 베드로 석상을 통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황에 관한 소식이라면 (선거 소식이든 병고, 걱정거리, 선종 등등) 늘 감동을 합니다. 신자들은 어찌나 교황님을

존경하는지 마치 하느님을 대하듯 하고, 마치 성체조배를 하듯 교황님 앞에선 무릎을 꿇습니다.

약 150년 전 나폴레옹 시대에 로마 교황님이 파리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륜마차로 오셨습니다. 교황님이 지나시는 마을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길 양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황님을 뵈오면 감격하는데 그건 신자뿐만 아니라 외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은 어느 나라의 장관이 교황님을 뵈러 가기로 되었는데 가기 전에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않겠노라고 알리자, 교황은 그에게 그것은 그의 자유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황 앞에 이르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친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황께서 “장관님, 발을 헛디디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교황님의 그 엄위로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입니다. 영국의 사자로 불리던 프로테스탄트였던 처칠도 30분 동안 교황님을 접견하고 나오면서 어찌나 감동을 받았던지 땀을 흘릴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을 뵈었다고 말했습니다.

2. 교황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맨 꼭대기에 계신 분으로서 완전한 순명을 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제일 꼭대기에 계시므로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아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교황님을 돕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께 순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는 것이며 교황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교황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교황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따위의 의문들은 품지 맙시다. 그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순명합시다. 교황님은 여러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도덕과 교회의 행정 등은 물론이요, 사회 문제, 정치, 인권 문제 등 인간과 인간의 영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교황님께 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 교리나 신앙, 정치, 사회 문제 등을 교육받은 많은 이들이 그들이 배운 지식을 믿고 신뢰하지만(예를 들어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교황님이 그 교리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비록 순명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순명해야만 합니다. 교회사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도회를 창설하신 알폰소 성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허위 보고를 받은 교황께서 알폰소 성인을 수도회에서 면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비록 자신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나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저 역시 그것을 원합니다.” 결국 교황님은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었던 것을 아시고 성인을 다시 복직시키셨습니다.

3. 교황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일랜드의 해방자이며 훌륭한 애국자였던 오코넬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신은 아일랜드에 남기고 마음은 로마에 남기며 그리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맡길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로마에 두어야만 합니다. 효자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아버지 이상 가는 교황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황님은 진실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황님은 우리 모두를 구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교황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감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황님을 위해서 기

도해야 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교황님은 큰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새 교구를 도와야 하고, 또 박해받는 교구를 도와야 하고 수많은 대신학교와 또 수많은 선교사들도 도와야만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여러 부서가 딸린 만큼 직원들도 많아 그들을 모두 보살피야 합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항상 원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대국의 국가 예산도 교황님에게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교황님은 가진 것이 없으니 그분의 자녀인 전 세계의 신자들이 그분을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교무금은 우리들의 교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주교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오늘 헌금은 교황님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 헌금을 성 베드로의 헌금이라고 합니다.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초기 교회 때 헤로데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초기 신자들과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줄곧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교황님은 많은 걱정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명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황님은 당신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효성과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한국에서 박해가 있을 당시 (전 세계) 신자들이 매일 아침 생각으로 교황님의 미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도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황님을 돕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순교자 축일
(1969년)

순교자들

오늘은 한국 순교자들의 축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신자들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며 여러분들끼리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고 하늘의 선택된 분들로서 그분들은 온 세계 모든 신자들을 사랑하시겠지만, 한국인을 각별히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같은 피를 나눈 여러분의 조상이시기에 조국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순교자는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교자가 계시는데, 만 명이 훨씬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먼저 79분이, 그리고 그 후에 24분이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어린 아이, 노인, 부자, 가난한 사람, 양반, 평민, 선비, 무지렁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으나 믿음과 성령만큼은 똑같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쪽에 천사와 성인들이, 다른 쪽에 마귀들이 있는 저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카인은 의로운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징벌을 예고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욥과 토비트가 병고에 짓눌려 있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늘 미

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언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께 다른 사람을 지목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집에 가시어 “다들 비키시오, 그 소녀는 자고 있는 것이오”라고 하시자 모두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분을 사악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도 사람들은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자 사람들은 사도들을 향해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성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며, 여러분은 존경받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주먹으로 때림을 받고 정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늘 언제 어디서나 신자들은 멸시를 받아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를 겪었고 공산당들이 우리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깔보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를 마치 정신병자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 식구도 모르고 제 나라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오히려 온유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심문을 받는 동안에도 공손히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워서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그토록 증오를 품을까요? 유 베드로, 김 루시아 같은 어린 아이들이, 김 골롬바와 김 아네스 같은 처녀들이, 김 아가다와 같은 노인이 도대체 왜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더러는 부모, 친지들이 박해자들과 한편이 되어 순교자를 만들어 낸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마귀가 강생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려 하시는데, 당신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귀의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한 신자는 그가 바로 예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갈바리아 수난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어느 신자가 돈을 받고 범 복자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며 넘겨주었습니다. 수난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박해 때 약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감옥에 넣고 따귀 때리고 광대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분들의 고초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투옥살이, 태형, 욕설... 온 백성이 모두가 그분들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영화를 보러가듯이 그때 사람들은 그분들이 죽는 것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교리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군중이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이 교리를 설명하며 신앙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사악한 이들은 착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악한 이들은 착한 사람도 자기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 아이인 유 베드로나, 김 콜롬바, 아네스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 순진 무구한 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사악함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순교자들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그들의 악한 영혼은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마귀처럼 본의 아니게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함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히려 구속 사업을 도와준 셈이니 보기 좋게 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들은 수차례 박해를 선동했습니다. 초기 교회 때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데로 가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마귀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이단자들 덕분에 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매번 더욱 강화되었고 더 찬란하게 빛났으며 정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해 덕분에 교회는 이곳 시골까지 알려졌으니 박해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조이신 순교자들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박해를 받으면 교회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특히 고통받는 여러분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늘 가난에 시달린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집안에 병자가 있고 냉담자가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저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 역시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고통, 재산의 고통, 조국에 대한 사랑의 고통... 마치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바리아 산, 예수님 곁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순교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느님을 찾으시고 하느님의 정의를 찾으십시오. 나머지는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받으신다면 그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 (1976년)

오늘 복음에는 온 세계를 뒤흔드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그 안에 십자가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저는 어느 수도원의 경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113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대성당만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이 두 군데 있으니 십자가 수는 벌써 스물여덟 개가 됩니다. 제단 위에는 십자가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본당에는 제단 가운데 작은 십자가를 또 하나 더 놓는 신부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둘레는 다섯 개의 십자가를 새겨 넣습니다. 색 유리창에 그려진 성화 안에 들어 있는 십자가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굿는 성호와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이 굿는 성호, 또 성합 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나 습관화 되어 있어 십자가에 대해 별 생각이 없어져서 세상을 뒤집어엎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는 오롯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복자들도 하느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였기에 순교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복녀 김 골롬바와 아녜스 처녀들도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들에게도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별안간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라틴 교회, 즉 로마의 가톨릭은 특히 십자가를 바라본 반면 동방 교회는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은 무한한 기쁨과 희망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의 길 14처에 부활을 묵상하는 제15처를 반드시 덧붙여야 합니다. 도교에 있는 대성당처럼 말입니다. 15처가 없으면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감실 앞으로라도 가야 합니다. 성 바오로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신자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에 빠져 사는 격이 되고 마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축일을 지내고 있는 한국의 순교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다.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그것을 본 군중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 미친 자를 죽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예수님은 유대아 갈릴래아를 떠나 띠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리고 사마리아의 가이사리아 지방 근처로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 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 서 떠나시자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결심하신 것은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천주교를 거부했습니다. 서양 종교라고 해서 사교라고 칭했고, 전통에 거슬리는 종교라 해서 신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너무나 합당한 답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놀랐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버려야 하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심으로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가야파와 본시오 빌라도 그리고 헤로데의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이 모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정의, 그들의 연민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폭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 역시 죽음으로써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폭로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정복당한 자가 아니라 바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지면 도리어 약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열렬한 사랑에 빠지시어 십자가형까지 받아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을 피하실 수도 있었고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분은 죽음을 자처하셨고 탄식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면 그분은 거꾸로 사랑이 부족한 분임을 드러내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의 온유한 마음에 대

해서 말하라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 역시 한국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박해를 멈추게 하려고 복자 앙베르는 복자 나 베드로와 장 시므온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김 안당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명의 신자도 고발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습니 다. 그분들 역시 하느님과, 동족인 한국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위하여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동족에게 오류를 가르치는 것이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무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당신을 처형할 집행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착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리라.” 이것이 바로 첫 시복식이며, 첫 시성식입니다. 전례에 착한 강도의 축일을 두지 않은 것은 좀 놀랍습니 다.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죽으심을 당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가셨습니다.

낙원 동산의 선악과나무 옆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지만 십자가 나무 옆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곧 갈바리아가 구원임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바로 한국의 구세주이십니다. 순교자들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우리 모두 그분들을 찬미하며 그분들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도 그분들의 업적을 이어갑시다. 고통받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일함으로써 한국의 구원을 위해 일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매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렇다면 가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즉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 주일 제29주일

(가해)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 부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은 참으로 착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양들입니다. 착한 양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여 길 잃은 나쁜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내가 나쁜 그 양들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녀 여러분, 충직한 양들인 여러분께서 착한 목자 예수님을 도와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구원이라도 이는 예수님께 얼마나 값진 것이 되는지요!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온 세계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업에 관해 강

론하고 선교 자금을 모금합니다. 모든 신자들, 즉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예언자들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써 모범을 보여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영혼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갈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왜 영혼들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영혼의 값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영혼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은 영입니다. 파스칼은 “이것은 온 세상보다도 더 귀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으니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간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값을 치렀으니 우리 영혼의 값은 무한하기만 합니다. 일선에 나선 군인이 조국을 위해 죽을 때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칭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확실히 큰 덕행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국보다 더 귀중하니 어찌 영혼을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성 베르나르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필의 말이 길 위에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걱정하면서도 한 영혼이 죄를 짓고 죽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며 애공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차라리 간단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큼니까? 강생, 겸손한 삶, 노동, 예집트로 피난, 수난, 성체 성사, 밤낮으로 감실 안에 계심... 참으로 어떻게 이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3. 하느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것뿐이죠. 영혼들이 구원되지 않으면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를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직 이를 위해 성인들은 사셨고 일하셨으며 죽으셨습니다. 영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셨더니 마귀는 “군대라 합니다. 수효가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영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죄짓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제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의 집에서 조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때 저의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시며 손자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가게의 주인이나 공장주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데도 이에 항의하는 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신문, 잡지, 영화를 부끄럼 없이 읽고 봅니다. 죄의 분위기에서 살면 죄가 습관이 되고 맙니다. 흔히 교회 활동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이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교는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교국이나 그리스도교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전교는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전교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빛을 갠 죄를 보속하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에도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하며 또 자기의 수많은 죄를 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다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교 주일을 맞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녀 소화 데레사처럼 기도하기 위해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직접 향하는 것이니 활동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위해 일해야만 하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무관심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진 병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전교에 대한 갈망도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 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모든 수도자들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황님처럼 전 세계의 영혼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의 형제들이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전교해야 합니까? 물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월남은 2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외교인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신자들이 전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기도하며 하느님께 이렇게 백 번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병이 들었으니 어서 오셔서 낫게 하여 주소서!”

전교 주일

(1976년)

믿음의 보급 -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루가 13,6-9)

전교의 달을 맞아 오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를 맡겼고, 포도원지기는 땅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결가지를 잘라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처럼 주인이신 하느님께 속하며,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덕행을 쌓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힘으로써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다짐해야만 합니다. “나는 풍요로운 번식력을 갖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신자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영광되게 해야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돈, 좋은 직업, 좋은 집, 안락함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이 모든 것은 제로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로부터 기다리시는 열매는 우리의 사도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시오.” 열심한 신자나 열의 있는 수도자라면 죄를 피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이시고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 가족과 이웃과 온 나라 국민이 교회 안에서 모두 뜨겁게 하나가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잊지 않고 보러 오십니다. 하느님은 가끔 우리의 영혼을 방문하시며 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느님은 좋은 장소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신자 가정 안에 심으시고 교회 가까이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좋은 본보기를 보고 자랐는데도 여지껏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은 화가 나서 “이 나무를 잘라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라서 불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이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어쩌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좋은 직업, 좋은 집, 안락함, 학위를 소유하고 있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며 전교활동이고, 사람들에게 형제 이상으로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저의 책임을 가증시킬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제로이고 비누거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모든 이에게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으며 아주 가혹하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가 내 포도밭에 자리잡았느냐? 이 나무를 잘라 불 속에 던져라.” 이 말은 “신자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살려 두는가. 죽을지어다”라는 말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다가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화가 난 주인 앞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주인님, 이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이 나무를 거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많은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중재자이시

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우리 영혼 구속 사업을 거절한다면 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음, 이는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더 나은 삶을 살라고 권고하신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교회와 사제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잠시 후에 저는 성체 안의 당신을 받아 모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기 싫습니다. 당신에게 쓸모없는 잎과 생식력 없는 수액을 바치기보다는 제게 남은 생애 동안 당신에게 선교 활동을 바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박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 왔는데도 하찮은 일에 대해서 논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임을 알면서도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공동 구속 사업 앞에서 무관심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1972, 1977, 1981년)

베드로의 사랑

오늘은 위대한 두 성인의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었던 많은 부분이 이 두 성인의 덕분입니다. 두 분 성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지극한 믿음과 그에 버금가는 고행,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덕은 사랑입니다”라고 한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사도는 요한이었지만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언제나 겸손하고 변함 없으며 관대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1.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갖고 있던 그물도, 재산도 몽땅 버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았고 물이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수도원에 들어올 때 이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하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2. 예수께서 성체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셨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3. 타볼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자 베드로는 너무 행복하여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결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겐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빼는 것도 그의 사

량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사제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간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4. 베드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적을 확인하려고 그 나이에 불구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따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발현에 베드로는 얼마나 기뻐고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5.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 물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슬픈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그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6. 베드로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성령 강림일에 설교를 하며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유대인들을 견책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고 채찍으로 때렸지만 베드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7. 그가 훗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를 두루 다니며 성 바오로와 마찬가지로 여러 장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끝내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노인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요.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받고 땀을 흘렸습니까?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몇 번이나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렸습니까? 몇 번이나 애궁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구속받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결점을 지녔다면 그의 고행도 따라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을 되새겨 봅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비록 나약하여 유혹에 빠지기는 해도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1975, 1979년)

오늘은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의 축일입니다.

성 레옹의 말씀대로 교회의 기둥이며 햇불이고 두 눈이신 두 분 사도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우선 두 분의 성소는 어떠했습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비상한 부름이요, 두 분 편에서는 놀라운 순명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자, 그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렵니까?”

바오로는 학식이 많고 열심한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으며 바리사이파인들이 성 스테파노를 죽

일 때 바오로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 교 신자를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땅에 엎어지자,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일러주리라.”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개종을 했으나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제인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양순한 양이 되듯,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열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가 되기 전 사울의 행실은 지독한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심은 무상의 부름이었고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징표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심으로써 하느님은 아주 나약한 도구를 선택하여 이 세상의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겸손이 그리스도 정신의 기초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바오로를 부르심으로써 하느님은 대죄인일지라도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어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두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개종과 즉각적인 순명입니다. 성 바오로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라고 하였고, 두 성인 모두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 성인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두 분 성인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무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전에 우리도 바오로처럼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여라” 하시면, 두 분 성인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보다도 적게 받은 많은 단순한 신자들이 더 열렬합니다. 성 바오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셨으니 그 불러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져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성 바오로와 베드로에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소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분 성인의 성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두 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두 분은 즉시 응답하였고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범을 보임으로 행위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짧막한 시간 안에서 두 분의 덕행을 모두 살펴보기란 어려우니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두 분의 겸손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두 분은 겸손했고 스스로를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실을 늘 생각하며 마르코 복음을 통해, 사실 이는 베드로 복음입니다만 그는 자신의 죄를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아주 상세하게 주의를 다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은 사도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세 번 부인한 사실을 되도록 짧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오로 성인은 스스로 자기를 “팔삭둥이 같은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제일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두 분 성인은 통회와 고난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두 분은 64년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고린토 2서 1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성 바오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훨씬 더 많았던 베드로 성인께서도 그 못지 않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겸손을 표하느라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성 바오로는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성인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제를 임명한 것도 더욱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두 분 성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 성인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다 바치겠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위대한 두 사도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재충전합시다. 우리도 두 분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합시다.

교회와 함께 두 분 성인의 축일을 맞은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 바오로 6세께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교황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 베드로와 함께 하는 사람이며, 성 베드로와 함께 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
(1975년 9월 14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매달은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마땅히 높이 매달려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끔찍한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범죄자들에게 부여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갈라 3,13).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십자가는 영광과 축복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용기와 훈장의 상징이 되었으며, 빛과 힘과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숨겨야 했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도처에서 권능을 펼칩니다. 왜

그렇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봉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도 했으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는 무한하였기에 무한한 보속을 해야 했으나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스스로 인간의 빛을 갚아 주시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려 노예의 형태를 띠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속량시켜 주시려 죄인의 형태를 띠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소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그분의 피 한 방울로도 충분했을 것을!) 최대한의 값을 치르시어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진정한 제단이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얻어 주신 곳도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입니다. “나 만일 땅으로조차 높이 달리면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끌어 인도 하리라.”

둘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설교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컸으면 그토록의 희생양과 피흘림이 있어야 했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정의와 평화가 새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사람들은 은총의 대가와 우리 영혼의 대가를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처럼 고통과 가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괴로움을 받고 난 후에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낮지 못하다.”

우리 역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사랑했습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갈라 6,14).

셋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군림하시는 왕좌입니다. 왕좌라는 것은 왕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높은 사람, 즉 교황이나 주교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왕좌는 십자가이며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하셨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모든 성인들이 하늘나라에 계시며, 그 성인들이 소리 높여 그분을 왕으로 부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치를 당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은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게 되어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셨고 악이 이 지상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이를 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써 구세주를 알아보고 흠숭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적은 바로 십자가의 적이며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 땅 위에 내려오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고통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차지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를 했던 곳이 바로 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떨어진 것이 선악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무 아래서, 십자가 발 밑에서 마귀는 정복당했고 인간은 다시 하느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현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교회의 이 갈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례 때 그리고 견진 때 사제들은 여러분의 이마 위에 성유로 십자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녀 소화 테레사 대축일 (1971년)

오늘은 선교사들의 주보 성인이신 성녀 소화 테레사의 대축일입니다.

성녀는 1873년 신앙이 깊고 유복한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홉 자녀 가운데 일찍이 네 명은 죽고 나머지 다섯 딸은 모두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넷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고 한 명은 베네딕도회에 입회했습니다. 테레사는 가장 막내딸로서 1888년에 가르멜회에 입회하여 1897년 25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기까지 가르멜에서 9년 동안 사셨습니다. 생전에 성녀는 지극히 겸허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자매들이 그분의 그러한 삶을 수궁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그녀에게 자서전을 쓰라고 하여 쓴 것이 후에 출간되자 사람들이 이에 어찌나 탄복했던지 수백만 권을 찍어내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와 기도하였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녀는 1927년에 시복되었습니다.

성녀 소화 테레사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단 한 번의 강론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녀 소화 테레사의 위대한 점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녀의 위대한 점은 첫째,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과 둘째, 어린 아이의 영성을 통하여 위대한 교리를 가르치셨다는 점을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위대한 성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성녀 소화 테레사는 고통을 그다지 받지 않은 줄 압니다. 그저 성녀의 장미, 성녀의 미소, 그리고 어린 아이가 적은 것과 같은 성녀의 책에 대해서만 흔히 말들 합니다. 성녀가 그런 어린 예수 때문에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로 불리게 된 사연 등등의 일화들로 성녀가 많은 고통을 받은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실로 성녀께서는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성녀는 네 살에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막내딸로 집안에서는 ‘우리 꼬마 왕비’로 불리며

언니들과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녀의 성격은 다정다감하였고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열 다섯 살 때 성녀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언니들은 물론 삼촌, 수도원의 원장, 부주교님과 주교님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성녀는 로마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교황님께 수도원 입회 허락을 청했습니다. 유순한 꼬마 아가씨였지만 병사와 같은 성질 또한 있었습니다. 성녀는 자서전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을 ‘칼 덕분’이라고 회고했을 정도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지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녀는 여러 수도원 중에서 가르멜을 선택했습니다. 가르멜은 통회의 수도원이라 어떤 다른 수도원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가르멜 수녀들은 독방을 사용하는데 이 방은 감방과 같습니다. 십자가 하나와 침대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담요 두 장이 전부입니다. 사순시기의 단식은 9월 14일부터 부활 때까지 지속됩니다. 성녀는 “추워서 죽을 정도”로 고통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녀는 공동체 생활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스무 명에서 스물다섯 명의 수녀가 외출이 금지된 채 수녀원 안에서만 생활하니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서로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을 터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 원장 수녀는 3년마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원장 수녀님은 벨라벳다 성녀의 수련 시절 지도자처럼 성녀 데레사를 아주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성녀의 언니가 원장 수녀가 되었는데, 성녀는 다른 수녀들에게 질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감히 원장인 언니에게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성녀는, “나는 입회 순간부터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강이 아주 나빴는데도 다른 수녀들과 똑같이 움직였으므로 아무도 그녀의 건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에 수면을 취했어야 할 그녀는 기도하러 성당으로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명랑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는 사실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들 속에서 그녀는 기쁨의 샘이었습니다. 그녀가 빠지면 수녀원 전체가 허전했습니다.

성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을 드렸고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저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상을 하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분심만 들었으며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녀는 자신이 신심이 부족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더라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은 여러 번 성녀를 위로하셨습니다.

성녀가 어렸을 적 앓고 있을 때 성모님이 나타나시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치다가 사랑으로 마음을 다친 적도 있습니다. 성녀는 하느님께 작은 은총을 구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착복식 때 눈을 청하기도 했으며 또 꽃을 보게 해 달라고 청했을 때 이튿날 그 바람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성녀는 너무나 고통을 받아 하루는 “나의 위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어린이의 영성’에 관하여 그 어느 위대한 학자보다도 더 위대한 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오게 하여라... 이 어린 아이처럼 작아지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성 바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녀 테레사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아 자신은 “모래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성녀는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녀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어린이의 행동 같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승강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집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나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오르려면 승강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굳은 신뢰 속에서 성녀는 말을 이어갑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들어 올려줄 이 승강기는 바로 예수님, 당신의 팔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이 교리는 사실 위대한 길입니다.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만과 자신이 위대하다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초성적인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헤서는 안 되며 자신은 유혹에 강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며, 어린이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알기에 성녀 테레사는 자신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순간에 아주 작은 일들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련장이 되어서도 이것만을 가르쳤으니, 이 어린 아이의 길만이 성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이 작은 희생을 어디서든지 행하였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도 늘 미소지으며 매 순간 어디에서나 식당에서, 세탁실에서, 집 안에서, 부엌에서... 작은 희생을 바쳤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받기 싫은 약을 미소로 받았습니다. 까다로운 수녀님의 병 간호를 맡아 했습니다. 성녀께서 종이 장미를 만들고 있을 때 한 수녀님이 그것이 생화인 줄 알고 장미향이 방해된다고 말하는데도 그 말에 아무런 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녀의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온통 작은 희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희생들로 성녀는 많은 영혼을 구했습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살인자 프란치니는 결국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녀는 자신의 고통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성녀는 선교하러 떠나길 원했습니다. 그토록 영혼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성녀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후보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녀의 삶을 읽어보면 우리 영혼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또 따라야 하는 본보기입니다. 성녀 소화 테레사의 자서전을 모두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고 살아라!”

모든 성인의 날

행복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란 초성적인 동기를 가지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1.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설사 소유한다 해도 사도들이나 많은 수도자들처럼 극히 적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2.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난의 재난을 면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나, 장애인과 맹인들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가난에 만족해 할 줄 알고 읍 성인이나 켈마나 성녀, 로사 성녀처럼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3. 부자이면서도 돈에 집착을 하지 않기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잃어도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자선에 보탬니다. 성 루이와 샤를르, 보로메, 뽀랭, 엘리자베스, 프랑수아 드 샹탈,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와 같은 분들이 그러합니다.

4.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을 매우 권고하셨습니다. 가난이야말로 탐욕과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 국가간의 분쟁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증오와 전쟁과 송사는 교만과 탐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이 소유한 부를 포기하고 무절제한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부를 버릴 준비를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교만의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기만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디오게네스, 켈롱같이 부를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가난하거나 겸손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모든 성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자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시절에도 머리 돌 곳조차 없었으며 애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가난 그 자체인 알몸으로 못박히셨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이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는 그리 대단치 않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만일 그들이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앓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바오로 사도도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사도직을 행하면서도 생활하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안토니오, 베르나르도, 베네딕도, 도미니코, 프란치스코 같은 다른 모든 성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자들도 가난했습니다. 오! 교회가 여전히 가난하게 남아 있었다면 손해를 덜 입었을 것이며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보상은 엄청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a.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이며 평화이고 기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과 아울러 다른 많은 것을 덤으로 받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자비의 풍요로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 b. 하늘나라는 기쁜 소식(복음)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는 회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복음에 나오는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질적 부를 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c. 하늘나라는 영원한 복락이며 하늘의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하느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서(성무일과)를 보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르티노 성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또 “가난하고 겸손한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내리신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불행할지어다, 부자들이여!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마태 19,23-24).

오늘날에도 외교인들과 신자들 사이에도 나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지옥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질적 부는 이방인들에게는 회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신자들에게는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데 방해되는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55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살았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어려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유혹과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믿고 희망하고 살았기에 지금은 아름다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용기를 가지고 성인처럼 산다면 영원한 행복과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에서 여덟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되는 것, 온유한 자 되는 것, 정의로운 자 되는 것, 눈물 흘리는 자 되는 것, 자선을 베푸는 자 되는 것, 순결한 자 되는 것, 평화를 간직하는 자 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곤란을 당하는 자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덟 가지 길 중에서 다섯 번째의 길인 자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선에는 육적인 자선과 영적인 자선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선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마태 25,36-37).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맞이해 주고, 병자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고,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선 역시 일곱 가지가 있습니

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고, 죄인들을 고쳐주고, 죄인들과 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충고를 해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짐진 자들의 수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습니까?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하심으로써 자선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이를 부활시키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고통받으셨고,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그분은 길을 잃은 자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에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불살라버리겠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는구나. 사람의 아들은 생명을 해치러 오지 않고 오직 구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사도들과 성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랐고 선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병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헌신하는 수사들과 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우리보다도 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당신은 잊지 않으시고 한 잔의 물이라도 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 숨어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성체 안에 숨어 계심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시니 그대로 행합시다. 우리 각자가 많은 자선을 베풀 수는 없으나 함께 하면 많은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양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이 양로원에서 노인 세 분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수녀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노인들을 돌보고 있고, 교우 몇 분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 모두가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당 교우 모두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때, 우리 교우들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자선을 다른 이들에게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자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미사에 참석합니다.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때에는 물질적 제물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헌금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로원에) 갖다 주신 물질적 도움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일은 양로원을 위해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또 할아버지 몇 분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입혀야 하고 먹여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룬다면 본당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반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봅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성인들은 자비로웠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자비로워야 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55, 1971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가르칠 때면 다른 사람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로서 세상은 부자를 사랑하였으나, 예수님은 가난을 가르치시며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설교는 “행복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였습니다. 세상은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 여긴 반면, 예수님은 고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고통이었습니다(추위, 배고픔 등등). 그분은 고통을 찬미하시며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되고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군인과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그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분은 온 생애가 온유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분을 비방하는 반대자들과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분께 오는 병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특히 수난 중에 그분은 더욱 온화하셨습니다. 유다가 그분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유다야,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므로 나를 잡아 넘기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온화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수난기 동안 “마치 어린양처럼 양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사형집행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신 성 바오로 사도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나 바오로는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2고린 10,1).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천국의 성인들 중에는 이 덕행으로 천국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성 장크리스토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를 부당하게 미워하였습니다. 성인은 죄가 없는데도 그에게 가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성 베르나도(수도원장)는 그의 수도승들을 교정해 줄 때 매우 온화함으로 이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어머니처럼 신뢰하였는지요!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는 화를 잘 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습관을 고침으로써 온유함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는 “온유함이란 애덕의 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평화와 화목의 자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우 겸손하게 말하고 받아들이며, 경청하고 도와주며 토론을 피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그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늘 친구들과 다투고

부모님들에게 나쁘게 말합니다. 또한 남편을 탓하고 자녀들의 요구를 불평하는 어머니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온유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을 비겁하고 약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세상은 힘 있고 강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하지 않은 하나의 힘입니다. 온유함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세상의 기준을 이겨내며 자기 자신에게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무기로 무장했을지라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남을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 온유한 사람들은 수난의 주인이 되나 유혹을 쉽게 물리치고 평화를 간직할 것이며, 난폭한 사람들은 늘 불만족할 것입니다.

2.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교회는 온유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며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온유와 양순함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폭력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공포를 주며 살인하고 처벌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가 말합니다. “식초보다 설탕으로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3.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즉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참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온유하시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성인의 날인 이 좋은 날, 천국에 가기 위해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학교에서 온유해지십시오. 굴욕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이들을 멸할 수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68, 1977년)

그저께는 모든 성인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자들이 부쩍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나도 성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십 년 동안 손에 예수님의 오상을 받고 사셨던 수도 사제 비오 신부님께서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많은 신자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신부님! 비오 신부님은 성인이십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 오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인이신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그분이 성인품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검사 결과와 직접 그분을 본 증인들의 증언과 교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비오 사제가 성인이라는 질문을 요즘 들어 최소한 열 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 프란치스코 하

비에르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성녀 베르나뎃다처럼 발현을 보아야 되고, 비오 신부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오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비범한 점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우리 본당의 마들렌이라는 어느 어머니는 여러 자녀를 키우느라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삶과 비오 신부님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 아이가 울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시장에 달려가야 했고, 빨래를 하고 김장을 준비하고, 게다가 막내 아이는 귀 병까지 앓고 있으니... 오! 마들렌, 당신은 비오 신부처럼 오상을 받지 않았다고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상이 없는 당신의 손 역시 비오 신부님의 손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찌면 더 아름다운 손 아닙니까? 성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일어난 일은 하느님만이 관여하실 일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하느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비오 신부님의 성화는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데레사나 비안네 신부나 돈 보스코 성인이나 빈첸시오(뱅상 드 뵈) 같은 위대한 성인들도 계시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2000개 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별들은 수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교황님이 성인을 시성 시복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등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들렌, 비록 당신 손 안에는 등대 빛은 없을지라도 당신의 손은 하느님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놓으십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하느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교만, 값비싼 옷, 금고, 그런 것들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집안의 식구들을 위해 늘 하는 일상의 일들, 다른 이들을 위해 겪는 고초, 이 모든 일들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손은 오상을 받지 못했어도 비오 신부님의 손만큼이나 아름다운 손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이들을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남을 위해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성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만일 자신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70년)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하늘나라에 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는 성인들뿐이니 여러분 모두 성인이 되고자 마음 깊이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도원에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성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인이란 켈투르다 성녀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그리고 대 데레

사처럼 탈혼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쿠페르티노의 요셉 성인이나 베네딕도 라브르 성인처럼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몸에서 한 가닥 빛이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절망뿐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연유로 그런 현상들을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성인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 죄도 짓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늘 장계틀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은 마음 안에 자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1. 하느님은 성서를 통해 성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성인은 “원의(갈망)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인은 분명히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원의(갈망)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메시아, ‘오시기로 되어 있는 이’ ‘구세주’를 갈망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깊이 청했기에 성인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니 나, 너에게 왔노라.” “많은 갈망을 가진 자이니 내 말을 깨달으라.” “많은 원의를 가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축성하시기 전에 “이 파스카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늘 청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리사이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사이인은 아무런 청원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용서를 청했던 세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우도(右盜) 그리고 방탕한 아들도 청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인들 가운데 가장 큰 성인이시며 하늘의 여왕이 되신 마리아 역시 메시아의 도래와 인류의 구속을 갈망한 성녀이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는 우리의 갈망을 청하라고,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갈망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자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욕욕을 채우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욕욕에서 떠날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망 없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하고 얻으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요해서 청할 것이 없는 자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갈망 없는 사람은 죽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이는 먼지에 불과하므로 쓸데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성인들과 대조됩니다. 성인은 살아 있으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생각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나 돈 보스코 성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죄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갈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 성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인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몇 개의 작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완전히 당신을 통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반쪽 성인을 원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연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느님께서 거짓 성인들이었던 바리사이파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위선자가 아닌지 종종 성찰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갈망은 힘이 없고 자주 나약하며 갈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 진정으로 영혼과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는 잘 하면서도 말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자주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데, 성인이 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인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결코 절망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인의 공로가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원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왔고, 세계 만일 공로가 있다면 이는 저의 활동이 아니라 저의 원의가 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말도 서툴러서 큰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원의가 있을 뿐입니다. 비록 큰 일을 해내진 못할지라도 저의 간절한 원의만으로 공로가 될 것입니다.

성성(聖性)은 우선 우리 모두의 갈망(원의)이어야 합니다. 성성(聖性)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분만이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성(聖性)은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므로 죽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성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성인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무한히 성인이신 하느님 앞으로는 어떠한 더러움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74년)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얻는 진복자가 되는 길 중에서 일곱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진실로 평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화해시켰고 사람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승천 때에는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야고보 사도들도, 성탄일의 천사들도 모두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교회는 미사 때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평화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국가간에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없고 서로 싸우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질서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완전한 평화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 이래로 무질서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인간은 나약하여 자주 죄를 지으며, 마귀는 유혹으로 평화와 질서를 방해합니다. 평화란 조용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행을 일삼는 자들이 힘으로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란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압제 정치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사 정권하에서는 정치인도 국민도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 영혼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규범은 있어야 하겠지만 규범이 너무 과하면 증오만 증폭될 뿐입니다.

평화란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바로 옆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시오 빌라도의 평화도 평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곤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악인들이 두려워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평화는 확실히 큰 덕입니다만, 정의는 그보다 더 큰 덕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평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랑이니 하느님이 바로 평화이십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끝없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영원한 평화 속에 계십니다. 평화는 또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 안에 살기 위해서는 저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상의 사람들의 평화는 늘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 이래로 죽음과 병과 전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란 어떤 것일까요?

1. 우선 우리는 정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해드려야 할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성탄 천사들이 노래했듯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더욱더 지킬수록 사람들 사이에 다툼은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누

구에게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한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강요된 평화도 참 평화가 아닙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심과 당파 정신도 평화 정신에 반대됩니다.

2.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슬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 삶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모든 이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웃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성녀 테레사도 그러셨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4.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면 전혀 만족할 수가 없고 따라서 평화도 지닐 수 없습니다.

5.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 없이 평화를 원하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물질적인 평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서 살찌우기 위한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평화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성격들 안에서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비심이 모두를 온화하게 해줍니다. 자비한 사람이 됨으로써 평화의 일꾼이 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평화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많은 성인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셨기에 그분들은 큰 복락을 누리시며 세상 모든 이로부터 경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온 생애 동안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성인의 날
(1976년)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

모든 성인들은 하늘 나라와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열렬히 행복을 갈망하지만 참 행복과 거짓 행복,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시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거짓(값싼) 행복을 찾는 오류를 범합니다. 어떤 것이 거짓 행복입니까? 제 생각에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 게으른 자들의 행복입니다. 즉 휴식(쉽)과 평안 그리고 태만과 졸음의 행복이 이것입니다. 오!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가끔 피곤할 때에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천국도 영원한 편안함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너무 길고 지루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참 행복은 편히 쉬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잠자는 동물인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2. 거짓 행복은 쾌락과 소비의 행복입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모든 쾌락

을 이용하는 행복입니다. 오늘의 소비조합과도 같습니다. 광고, 라디오, 신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행복입니다. 소비조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패물을 사시오. 나의 향수와 통조림 사십시오. 맛보시고 사시고 소유하십시오!” 이는 부유한 자들의 행복이며 거짓된 행복입니다. 너무나 값싼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행복은 소비하고 즐기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주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3. 거짓 행복은 서로 떨어져 사는 이기주의의 행복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행복은 타인이 아무리 불행한 비참 중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서간문에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즉 천국에는 많은 선택된 자들이 있고, 참 행복은 서로 공유하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거짓 행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참 행복에 대해 살펴보시다. 이를 위해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아랍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동과 서를 갈라놓는 절대주의가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도다, 원한과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들! 이들은 합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약한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며 이들은 그들의 쾌락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들을 생각합시다. 이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며 싸웠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토록 희생하는 훌륭한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완전한 행복으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상의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1981년)

오늘은 모든 성인들의 축일을 지내며 하늘에 계신 성인들과 또한 그곳에 계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누릴 행복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연옥 영혼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행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매일 눈물짓는 사람이 많지만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없고 평화와 기쁨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직접 뵈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정의와 선하심과 사랑을 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를 뵈을 것이며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철이 불에 들어가 녹듯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느님 안에 잠길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울진대 하물며 조물주께서야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성인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성인들은 서로 완전한 합일을 이루며 평화와 사랑과 고요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뿔힌 자들은 천주 성삼을 뵈을 것이고 소유할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충만한 은총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시며 우리의 어머니를 마주 뵈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같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인들을 뵈을 것입니다. 성인들의 얼굴은 화장을 한 여인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뵈을 것이며 하느님과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이 지상도 아름답지만 하늘나라는 더 아름답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며 그 행복을 잃을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오! 위험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여... 저는 언제쯤에나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성인들도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근심과 똑같은 유혹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여덟 가지 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1.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청빈의 길이 그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는 오로지 하느님뿐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2.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무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는 늘 여러 제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3.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언제나 웃고 지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여도 그 마음 밑바닥에 늘 평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4.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평화를 얻어 누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5.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힘을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뵈을 것이며,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하느님과 모든 성인, 성녀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7.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것입니다.
8.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은 피와 고통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 이르는 여덟 개의 길입니다. 이 여덟 가지 길은 세상에 평화, 행복, 정의와 사랑, 진리와 생명을 줍니다. 이 여덟 가지의 길 중에서 단 하나만을 골라 봉헌한다면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깊은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이상하게 여긴 사냥꾼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바로 나병환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냥꾼이 말했죠. “맙소사! 당신 처지에 노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나병환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난, 노래를 부른답니다.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하느님과 나 사이엔 아주 작은 벽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있으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

일치 주간

“너희 중에 누가 시련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자인지 드러내기 위하여는 마땅히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세계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3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종교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존재해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니 한번 진지하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힌두교가 4억의 인구를 가졌고, 불교가 또 4억, 마호메트교가 4억 그리고 유대교가 1,300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이 10억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모두가 똑같이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일치가 안 됩니다. 신문을 읽어보니 한국에는 가톨릭 교인이 70만 명에다 프로테스탄트가 150만 명인데 150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70개의 파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이교인들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당신네들부터 일치하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분파처럼 큰 유혹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악한 표양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악한 표양을 내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되게 하소서. 세상으로 저를 보내심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결합하기 위해 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이니, 힌두교나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유대교, 천도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해봅시다. 그들은 크게 4대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로마 교황님께 순명하는 가톨릭 인구가 6억, 그리스 정교인이 대략 2억, 프로테스탄트인이 2억, 그리고 구세군, 여호와증인, 성결교 등등 기타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매년 5천만 명 증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던 이러한 종교의 신자들도 매년 증가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 일단 그 역사를 공부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할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완전히 그 성향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발에는 늘 좋은 종자와 가라지가 함께 있는 법이며 그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노략질하는 이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의 무리들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한들 다른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틀림없이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종교는 인류를 하나로 결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는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본 교황님은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교리를 보존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해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그리스 정교의 수장을 방문하셨고 그리스 정교의 수장도 로마에 왔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도 로마에 와서 교황님을 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서로 일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저께 한 목사님이 명동 성당에 오시어 설교를 했고 또 가톨릭 신부님들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강론을 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으나 공동 미사나 공동 성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기도합시다. 미사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마을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은 참으로 슬픈 목자이시니,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처럼 열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 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서로 서로 존경합시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이니 개신교를 비방하지 말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개신교인 중에는 신중하고 열심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한 신자들도 많습니다. 말과 행위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점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고 그들에게서는 선함과 선행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순명에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성서를 해석하므로 우리의 엄격한 태도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셋째, 바티칸 공의회는 가능한 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서를 연구할 것을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로 함께 일해서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돕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라고 권합니다.

넷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좋은 표양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한 신자가 못 된다면, 하느님의 계명을 100% 지키는 신자가 아닙니다. 복음

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이단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일치 주간

예수께서는 나병환자를 치유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증명하여라”(마태 8,4). 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성직자가 네게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오늘 일치 주간이며 또한 구라 주일을 맞아 복음은 성 바오로의 회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오로의 회개는 그야말로 크나큰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바오로는 유대인이며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구약)성서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무렵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과 한편이 되어 제자들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테파노 성인을 죽인 것도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알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병사를 청하여 제자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하느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찬란한 빛을 만나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은 사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어 바오로를 가르쳐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오로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때부터 가장 열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오로의 이야기는 바로 회개한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느님의 은총인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구유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오로도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기에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빛을 본 것이며, 최근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어느 신자의 훌륭한 표양을 보았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사제를 찾아가, 즉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 바오로가 회개한 이날이 바로 일치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울도 많습니다. 성서를 많이 공부했다는 그들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바오로처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역시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이기에 늘 그 빛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초성적인 선물입니다. 하느님만이 이 빛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은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들도 빛과 별과 은총과 믿음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에 따라서 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거짓과 오류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 이단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혹해하지 마십시오. 성 바오로도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리로 인해 논쟁도 할 수 있겠지요. 논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유익한 일입니다. 논쟁이 있어야만 참된 교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병환자는 한센병에 걸린 병자가 아닙니다. 진짜 나병환자는 오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보다 행실로써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원장 수녀 모임

(1970년 4월 1일)

성가정

저는 오늘 원장 수녀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강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에 관해 언급하는 대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메시아는 고통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거듭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번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마태 20,17-19).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해서 자주 말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는 바오로 성인은 그분과 같이 당신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바오로 성인을 부르시고는 아나니아에게 알리셨습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사도 9,15-16).

사실 바오로 성인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분은 온 나라 안에 주님의 이름을 알렸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11,24-27)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사십에서 하나를 감한 때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의 온갖 위험 등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 역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수녀님들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외교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 역시 고통을 겪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책임자인 만큼 원장 수녀님들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고통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 높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선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엠마우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괴로움을 겪은 후에 자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냐?”(루가 24,26)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소명은 ‘고통을 겪는다’는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은 분명 주님의 큰 은혜이며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또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

요한 보스코 성인께서 처음 미사를 집전할 때 그의 어머니 마르그리뜨는 “아들아,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곧,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명심하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희생제를 올릴 때 피를 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면 저마다의 피와 땀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하며 자연 감정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심지어 수녀님들마저도 고행과 금욕은 불필요한 것처럼, 구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행과 금욕은 단식이나 소제일을 지키는 것,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바치는 것... 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무를 전적으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규칙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성무일과와 묵상, 성서(읽고 명상하기),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임무인 예비자 교리교육이나 환자 돌보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 불편한 점, 비판,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며 바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영혼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 번 ... (미번역)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인내를 갖고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당대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슬프고 만족할 줄 모르는 수녀님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녀들에게
(1978년 1월 10일)

‘도구’: 주님 손에 도구같이

“주님 손에 있는 도구같이” 이 말씀은 이나시오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주 그의 수도자

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수도원의 표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비녀’도 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구에도 종류가 많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도구가 필요하죠. 망치, 지게, 비, 술, 바늘, 연필, 삽, 이 모든 것이 도구들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다른 도구들이 있죠. 붓, 악기... 이따금 인간은 주인에게 도구처럼 쓰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인간은 지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이므로 아무리 주인이라도 마치 망치를 사용하듯 그렇게 인간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도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도구는 일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붓으로 칠하고, 도구가 잘 맞으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도구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림의 중심은 붓이 아니라 예술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처럼 아름답고 큰 건물에서도 주인공은 일꾼이 아니라 건축 기사입니다.

1. 하느님 홀로 장인이시며 건축가입니다. 성 요한 복음사가는 복음서 초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 홀로 태초부터 일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즉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창조와 같이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때도 있고, 당신이 마련하신 법에 따라 당신이 창조하신 부모를 통해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씨앗을 통해 식물을 내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태양을 통하여 인간을 비추시는 것들은 모두 그분의 간접적인 일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듯이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숨씨를 일러줍니다.”

하느님은 매일 인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도구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2.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느님이 원하시는 도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 일한다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합니다. 하느님은 무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섭리로써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손안에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홀로 예술가이시고 가장 능란한 일꾼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분을 시중드는 종(소비녀)일 뿐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으나 지성과 자유를 갖춘 도구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은 매우 무질서합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므로 인간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자유스러울지도 모르나 실상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3. 수녀는 늘 하느님 손 안에서 완전한 도구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당신 손 안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어 좋은 일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수도자의 성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좋은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4.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도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도구 없이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도구는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꼭 인간의 시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쓰시기로 했고,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시기로 했으며, 은총을 주시기 위해 사제와 신자를 이용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도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종종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백여 명의 블레셋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고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로 몇 만 명의 미디안인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 12명을 데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능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작품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도구가 되려면 노력해야만 합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작업을 진행할 때 명령하는 자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도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인데도 마치 예술가처럼 직접 나서서 일하려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바보가 안 되려면 늘 겸손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큰 작품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비천함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연장은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도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가난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시편 115). 그러한 도구들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가정의 소비녀들은 주님의 손에 착한 연장되길 바랍니다!

지원자들에게

여러분은 길에서나 버스 안에서 혹은 기차 안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수녀입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나 영화 속에서, 소설과 잡지에서 종종 사제나 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간혹 이들에 대해 좋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나쁘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녀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0,90년 전 한국에서는 수녀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녀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수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녀들 중에는 공부를 적게 한 수녀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수녀들은 공부를 많이

한 수녀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잔 수녀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나병 예방주사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리고 큰 병원이나 큰 학교를 지은 수녀들도 있고 버려진 아이들이나 불구자, 나병환자, 죄수들, 창녀들을 돌보아 주는 지극히 선하고 자비로운 수녀들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지은 마더 테레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설립한 수녀회에는 현재 수천 명에 이르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수녀들은 다 착하신 분들입니다. 수녀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다른 일반 여인들과 비교를 하면 좀 유별난 점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수녀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어떤 수녀들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살다가 거기서 묻힙니다. 용산의 수녀님 묘지를 찾아가 보세요. 외국인 수녀님 묘가 여럿 눈에 띄일 겁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의 블랑슈 수녀님께서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개성 있고 자유롭게 멋진 옷들을 입지만 수녀님들은 평생을 같은 색의 같은 옷을 입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좋아하고 부와 호사와 좋은 집을 좋아하는데 수녀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시간마다의 규칙을 따르며,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없고 돈도 소유할 수 없으며, 원장 수녀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녀들은 슬플 것 같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환하고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모릅니다. 수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마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구도 강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세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시도해 봅시다.

1. 수도생활은 바보스럽고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생활은 지극히 지혜롭고 또 지극히 쓸모 있는 삶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죽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됩니다.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 해도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거기서 그저 몇 밤을 자고 가는 나그네의 숙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집을 나서는 여행자는 없습니다.

한 남학생이 사제를 찾아왔어요. 사제가 물었죠.

“자넨 무엇을 하나?”

“공부합니다.”

“공부는 왜?”

“지식을 쌓으려고요.”

“그 다음엔?”

“저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벌어서 좋은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놓고 저 세상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자주 생각해 보게나. 자네가 버릴 것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헛수고이고 바보짓 아니겠나?”

로마에 칼리굴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머리가 약간 돌아서 온종일 파리만 잡으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러는 동안 적국은 그 틈을 타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결국 칼리굴라 왕과

로마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수녀들은 바로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과리를 잡느라고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2. 수녀들은 죽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여러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중에는 역사 과목도 있으니 역사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공자, 맹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혹은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배울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지금으로부터 198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도 여러분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자신이 하느님이고 누구든 그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 예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살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죽은 이들을 살렸고 그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사흘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를 보고 만졌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녀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제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 보속하시고 저의 빛을 대신 갹아주시고 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느라 수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제 육신의 부모보다 더 저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처럼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며 저도 저의 말과 모범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형제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 무엇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로서의 아름다운 삶도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수녀의 열렬한 삶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엔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불구의 몸이 된 노인들과 시각 장애인들,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호스피스입니다. 저는 젊은 수녀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성당으로 가는 모습이나 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옷을 입혀 주고 목욕을 시켜 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한국이 아닌 다른 어느 나라에서의 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수녀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저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우리 정부 관료들은 상업자, 농민, 산업인,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물질적인 일들이지요. 그러나 수녀님들은 더 필요하고 더 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영혼을 위해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란 재산도 아니며 옷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장사도 아니고 농사일도 아니며 산업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 오로지 영혼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하늘을 쳐다볼 줄 압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지요. 뭐 먹을 게 없나 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 사람들도 땅만 바라보고 오로지 먹을 것만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유혹이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동물들과 같은 삶이니 말이죠. 다행히 이 세상에는 수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

리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개선시키는 분들이 바로 수녀님들이십니다.”

수녀들이 없으면 문화도 없습니다. 한 나라에는 철도며 공장이며 비행기며 대포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껍데기들입니다. 누구든 그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요. 그러나 문화는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란 위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며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수녀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녀들은 사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집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성소를 위해 기도합시다.

장례 미사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이제 고인이 되어 우리 앞에 있으니, 인간이란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교만도, 모든 재물도 놓아야 합니다.

이제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의 앞에 있으면 그 어느 순간보다도, 그 누구라도 하느님께서 바로 여기에 우리 곁에 현존하심을 느낄 것이며,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느님만이 주인이심을 새삼 깨달을 것입니다.

오! 여러분 모두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 고인을 산으로 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인과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느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지를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상기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원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첫 조상들을 행복한 사람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조상들은 고통도 몰랐고 영원히 죽음도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현혹되었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원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나셨기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성모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죄인들인 우리, 매일매일 하느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를 부르실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주셨다가 하느님이 다시 찾아가시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당신 생명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을 봉헌하여 우리 죄를 속죄합시다. 우리의 고통을 봉헌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느님께서서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며, 천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죽은 모든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영혼과 육신을 다시 결합하시어 부활시키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무와 꽃과 풀은 매년 잎을 떨구었다가도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와의 이별을 슬퍼하기에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함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무지한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물론 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간직하고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세상 끝날의 부활이 저마다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환희의 부활을 맞을 것이나, 하느님을 위해 일한 것 없이 다른 일에만 삶을 소모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명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께 많은 빛을 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를 도와 공로를 쌓고 그 공로를 고인에게 봉헌합시다. 그를 위해 모두 기도합시다.

이 장례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청하오니 “아이고”만 부르짖지 마시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인사만 하지 마시고,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고인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드리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미사의 희생제를 다 함께 봉헌합시다. 하느님은 지극히 선하시므로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늘 들어주십니다.

김 켈마나(영순) 수녀 장례 미사

(1974년 2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소”(마태 9,24).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온 생애 동안 경건하게 살아온 영세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오직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자르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라자르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깨우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놀라 겁먹지 않도록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셔야 했기에 그들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떠난 모든 열심했던 신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 교회 역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 스테파노의 죽음을 교회는 “주님의 품안에 주무십니다”고 표현합니다.

초대 교회 때에 무덤은 공동 침실이라 불리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잠이라고 불린 까닭은 그의 모습이 잠든 모습처럼 평화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곧 하느님을 뵈오리라는 큰 희망 속

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는 생전에 선한 주인만을 섬겼으니 그 주인께서 백 배의 보상을 주실 것을 알기에, 하느님만을 섬겼으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의 시종을 들어주실 것을 알기에, 그는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로운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좋으신 주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 바오로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내게는 이득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라, 내 아버지의 강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라.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다.”

모든 의인들은 죽기를 갈망했으며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지니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을 복음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켈마나 수녀님은 분명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수녀님은 예수님의 모든 바람을 지키셨으며,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은총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셨고,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당신 서원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이 진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켈마나 수녀님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순명하셨습니다. 켈마나 수녀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수녀님 역시 평생을 이렇게 섬기었으니, 수녀님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어 삼십 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수녀님 역시 겸손하시어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사셨으니 방문객들 중에 누가 수녀님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수녀님은 경건하셨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셨고 빠짐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수녀님은 그저 평범한 수녀로만 보였을지 모르나 하느님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수녀님은 겸손하고 작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일하는 단순한 종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느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수녀님을 사랑하시어 더 빨리 당신 나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이입니다”라고 대답하셨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하늘의 여왕님이 되셨습니다. 켈마나 수녀님도 하느님 앞에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기에 수녀님 역시 그분의 기도와 공로로써 수많은 영혼의 어머니가 되셨을 것이며, 수녀님 또한 이제는 하늘나라의 여왕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켈마나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이 희생 제사를 수녀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봉헌합시다.

김 이레네오(영자) 수녀 장례 미사
(1975년 11월 15일 선종, 17일 장례)

오늘 우리는 김 이레네오 수녀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김 이레네오 수녀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수녀님은 1945년 3월 13일 황해도에서 8남매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이북에서 내려와 피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수녀님의 건강은 늘 매우 약했습니다. 1965년, 20세에 성가회에 입회하여 불과 3년 전인 1972년에 첫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병고로 자주 누우셔야만 했고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자매 수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수녀님은 늘 일하고 싶어하셨던 갈망을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고 지난 토요일, 수녀님을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병중에서도 이레네오 수녀님은 탄식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미소 짓고 평화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바로 직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안해 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딸이며 예수님의 자매인 이레네오 수녀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수녀님은 생전의 모습대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매님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부활 때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가실 때, 더군다나 젊은 사람을 불러가실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하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신을 덮을 이 땅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을 향해 눈을 들어 더욱 그분을 바라봅시다.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느님은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원천이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혹도 품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 창조주께서 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당신은 묻히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아셨고 그래서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여러 번 발현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곁에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타인과 형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와서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봉사를 완전하게 마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의 형제로 사셨으며, 병자를 치유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상처받은 가슴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레네오 수녀님은 이곳 수녀원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봉사를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로 인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봉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수녀님의 영혼 안에서 이 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인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많

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영혼과 육신과 병고를 봉헌함으로써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수녀님은 봉사를 갈망하셨고 하느님께서도 이 갈망에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이레네오 수녀님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종국적인 자리 역시 이 지상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진리이신 하느님 옆입니다. 아멘.

혼배 미사

(1976년 10월 23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한 15,9).

오늘 우리는 호 아오스딩과 성 안젤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결혼 서약을 통하여 두 사람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몸을 서로에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봉헌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또 다른 결혼을 머리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입니다. 바로 하느님 아들의 강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생은 진정 결혼이었습니다. 천주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하나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동정 마리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하느님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부부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모든 결혼의 특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 역시 사랑으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방금 전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간은 당신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한 시간 전 예수님께서 사랑의 성사라고 불리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으며, 또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으며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역시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이를 본 성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새로이 맺어진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처럼 두 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혼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선택이며,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러 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세례를 주셨으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오늘의 신랑, 신부 두 사람도 양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은 마땅히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름입니다. 사랑은 착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기쁨과 온유함이 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여 권하신 것도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나는 병자와 불구자를 고쳐주었고, 나는 군중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여 주었으며, 나는 내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로마인들도 사랑하였다. 너희의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며,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주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도 서로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끝으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사실 때 예수님은 사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여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앞으로는 두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본당의 신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를 환대하고 동정하여 모든 이에게 열린 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두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계약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는 가장 위대한 계약입니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일 서로에게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사랑 안에서 산다면 두 사람은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될 것이며, 두 사람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1) 원문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 2) 불어로는 “한나”가 “안나”로 발음된다.
- 3) Thomas Morus(More): 1478-1535년, 런던 출생. 정치가이며 휴머니스트. 헨리 8세 통치하에서 화려한 정치 활동을 발휘하였고 왕립 대법원장까지 임명되었다. 가톨릭 신자이었으며 종교개혁을 적극 권장하였다. 헨리 8세의 이혼을 반대하여 투옥되었고 처형되었다. <유토피아>의 저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에라스무스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 4) 원문에는 ‘spirare’ 동사를 사용했다. 이 동사의 뜻은 ‘입김을 내뿜다’이고 신학적으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다’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한다.